



저작자표시-비영리-동일조건변경허락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 이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동일조건변경허락. 귀하가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했을 경우에는, 이 저작물과 동일한 이용허락조건하에서만 배포할 수 있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의학 석사학위논문

전후 소설에 나타난 치과의사의
형상화와 전문직업성 연구

- 손창섭의 「잉여인간」을 중심으로 -

2014년 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인문의학 전공
배 민

전후 소설에 나타난 치과의사의 형상화와 전문직업성 연구

- 손창섭의 「잉여인간」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김 옥 주

이 논문을 의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3년 12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인문의학 전공

배 민

배 민의 의학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3년 12월

위 원 장 _____ (인)

부 위 원 장 _____ (인)

위 원 _____ (인)

학위논문 원문제공 서비스에 대한 동의서

본인의 학위논문에 대하여 서울대학교가 아래와 같이 학위논문 저작물을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동의사항

① 본인의 논문을 보존이나 인터넷 등을 통한 온라인 서비스 목적으로 복제할 경우 저작물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의 복제를 허용합니다.

② 본인의 논문을 디지털화하여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한 논문의 일부 또는 전부의 복제·배포 및 전송 시 무료로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개인(저작자)의 의무

본 논문의 저작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출판을 허락하는 등 동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소속대학(원)에 공개의 유보 또는 해지를 즉시 통보하겠습니다.

3. 서울대학교의 의무

① 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을 외부에 제공할 경우 저작권 보호장치(DRM)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② 서울대학교는 본 논문에 대한 공개의 유보나 해지 신청 시 즉시 처리해야 합니다.

논문제목 : 전후 소설에 나타난 치과의사의 형상화와 전문직업성 연구 : 손창섭의 <잉여인간>을 중심으로

학위구분 : 석사 박사

학 과 : 의학과

학 번 : 2007-22012

연 락 처 :

저 작 자 : 배 민 (인)

제 출 일 : 2013 년 월 일

서울대학교총장 귀하

국문초록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온 한국의 치과의사의 모습 그리고 치의학의 모습을 문학이라는 특정한 형식의 기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찰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개별 영역, 즉 문학과 의학, 역사, 사회학 등의 영역에 존재하는 개별화된 사실과 이론들을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치과의사 한 명의 삶을 통해 종합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1958년 『사상계』에 발표된 손창섭의 단편소설 「잉여인간」의 주인공인 치과의사 서만기를 그 대상으로 하였다. 소설 속 허구인물인 그의 개인의원을 배경으로 하여 화자에 의해 묘사된 그의 모습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에 입각해 인문사회의학의 궁극적 주제인 시대를 관통하는 이상화된 의사상에 대한 접근을 하고자 하였다. 그는 서구 근대의학에 대한 성찰의 자세, 특히 20세기 이후 급격히 과학화 되어가던 현대의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내면화한 인물로서 형상화된 측면을 가진다. 또한 그는 1950년대 우울 일변도의 단편소설 속 인물들 중에서 그 시대가 요구할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인격체를 표상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이는 대중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당시 치과의사들의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투영된 모습이다. 동시에 그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즉 실재하지는 않지만 인격성이 부여된 소설 속 치과의사 인물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각 개념 요소들을 그의 인격성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추상적인 이론화와 달리) 전인격적인 접근 방식을 피하였다. 사회적인 측면에서 교사의 교직원에서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유형화하듯, 고전적인 전문직업성을 구현하려는 봉사자적 치과의사상과 기업가적 전문성을 구현하려는 사업가적 치과의사상으로 유형화해보았다. 하지만 사업가적 치과의사상은 전문직업적 자율성보다 자유주의적 원리, 즉 환자의 선호에 따른 의사 선택을 우위의 가치로 수긍함으로

써 스스로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내려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치과의사 개인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 요소에 영향 받음을 고려하여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직업문화적 측면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이는 절대적인 윤리원칙을 일상의 치료과정 속에서도 환자와의 관계에서나 늘 적용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치과의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환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문직업성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으며 문화심리학적 분석의 틀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를 활용하였다.

핵심어 : 전후소설, 문학, 치과의사, 의사, 형상화, 전문직업성

학 번 : 2007-22012

목 차

제1장 서론	1
제 1절 연구 목적	1
제 2절 연구 배경	3
제 3절 연구 방법	10
제2장 1950년대 국내 치의학 상황	13
제3장 1950년대 전후소설과 손창섭	18
제4장 형상화된 치과의사로서의 서만기 분석	24
제 1절 소설 잉여인간 속 등장 인물의 특성	24
제 2절 서구 근대의학의 틀로 바라본 서만기	29
제 3절 전형적인 이상화된 인물형으로서의 서만기	39
제5장 서만기의 전문직업성 분석	48
제 1절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48
제 2절 의료시장의 측면에서	55
제 3절 윤리성의 측면에서	65
제 4절 자율성의 측면에서	73
제 5절 직업문화적 측면에서	87
제6장 결론	101
참고문헌	105
Abstract	116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 목적

1950년대 한국사회에 대한 기억은 그저 미국의 원조 속에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로, 정치적으로 자유당 독재 시절로 간단히 정리되기도 한다. 하지만 사회사적으로 문화사적으로 깊이 들어가면 그 시대를 치열하게 살아가던 사람들의 실체를 보다 구체적으로 만나게 된다. 1950년대 전후 사회에 폐허를 딛고 사회를 재건하던 과정 속에서 치과의사들의 삶 역시 마찬가지였다. 그들은 지금과는 다른 곤란에 직면해 있었을 것이며 다른 성격의 고민을 하고 있었을 것이다. 본 논문의 주제를 관통하는 문제의식도 다음과 같다. 이 사회 구성원의 생각 속에 구축된 혹은 이 사회 구성원의 눈에 비친 치과의사의 상은, 치의학의 상은 1950년대에는 지금과 얼마나 달랐을까. 즉 과도한 경쟁과 광고 속에 간혹 영리만을 추구하는 자영업자의 모습으로 비춰지기도 하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당시의 치과의사는 과연 더 사명감을 갖고 환자를 위하는 전문가로서 인식되었을까. 그리고 치의학은 고수익을 위한 전문적 기술로 변질해가고 있는 지금과 비교했을 때 과연 환자의 건강 회복에 보다 헌신적으로 기여하는 학문으로 인식되었을까 하는 점이다. 치의학의 모습 그리고 치과의사의 모습에 대한 성찰은 바로 그러한 시간의 흐름 속에 변화해온 치과의사들의 삶의 모습에 대한 특정한 형식의 기억으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학의 형태로 기억된 치과의사 상을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고찰한다.¹⁾ 앞 부분은 성격심리학과 사실주의적 인물 형상화 논리

1) 소설에서 작가가 인물을 어떻게 묘사하는지 인물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는 그 소설의 작품성과 직결되는 부분이다. 그런 의미에서 인물 형상화는 소설 연구의 중심 영역일 수밖에 없다.

우한용, 전용태, 한점돌, **현대소설의 이해** (서울: 새문사, 1999), 103-105.

에 기반을 두고 분석해보고자 한다. 1950년대 소설을 통해 드러나는 서구 근대의학에 대한 성찰의 주제와 물질적 가치보다 정신적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주인공 치과의사의 가치관을 통하여 인문사회의학의 궁극적인 주제인, 시대를 관통하는 보편적이고 이상화된 의사상에 대한 접근을 시도해보고자 한다.²⁾ 또한 뒤 부분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구조주의적 인물 형상화 논리와 사회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분석한다. 이를 위해 1950년대 의료전문직으로서의 사회적 측면과 홀로 개원한 치과의사로서의 문화적 측면의 두 측면에서, 다시 문화적인 측면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관점으로 구분하여, 주인공 서만기가 가지는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치과의사 직업에 대한 문학적 고찰은 치과의사가 직업적으로 연마하는 지식과 기술인 치의학 학문에 대한 철학적 성찰로 이어질 것이기에³⁾, 문학적 형상화 연구 방식을 활용한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에 대한 종합적인 고찰의 성격을 띤다.⁴⁾ 이를 통하여 궁극적으로는 한국사회의 치의학과 치과의료에 대한 새로운 의미 부여의 계기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리라 여겨진다.

2) 전우택, 김상현, 오승민, **인문사회의학** (서울: 청년의사 2010), 23-37.

3) 이영미, 이영희, “종설: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국의학교육** 15, 2 (2003): 83-90.

4) 최근 한국치의학 교육평가원이 모든 치과대학(원)들이 반드시 도달해야할 필수기준으로 제시한 교육인증 평가기준에는 인문사회치의학도 교육과정 안에 포함되어 있다. 평가 기준 내용에는 “환자나 치과 진료팀 구성원과의 효율적 의사소통, 치과의사의 임무수행에 필요한 인문사회적 이해, 직업적, 윤리적 기준을 위한 교육과 체험활동이 포함되어야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의사의 태도를 함양하는 사실상 의학전문직업성 교육이 그 내용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제1주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 2010년 2월** (서울: 동연연구소, 2010).

제2절 연구 배경

문학이나 철학은 언어를 통해 표현된다. 언어는 존재의 집이라고 말했던 하이데거의 표현⁵⁾을 빌리지 않더라도 인간은 세상을 살아가며 언어의 구속⁶⁾을 받는다는 사실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사회적인 동물로서 인간은 다른 인간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고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을 규정하며 그 관계를 자신의 의도에 맞게 변화시켜가기도 한다.⁷⁾ 그 가운데서 인간은 자신의 자아(self)⁸⁾를 인식하면서 살아가는데⁹⁾, 이는 많은 부분 언어에 의해서 이루어진다.¹⁰⁾ 이른바 상징적 상호작용주의의 창시자라 할 수

5) Martin Heidegger, **숲길**, 신상희 옮김 (서울: 나남출판사, 2008).

6) 니체(Nietzsche)는 “만일 우리가 언어의 구속 내에서 사유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사유하기를 멈춘다.”고 말했다. 하이데거는 주지하다시피 니체의 사상에 대한 연구와 그 사상의 한계를 극복하는데 많은 열정을 쏟았던 철학자이다.
박준상, “언어와 예술의 관계 (니체로부터),” **범한철학회** 44 (2007): 177-180.

7) 1940년대 구조기능주의에 입각한 현대적 사회학 이론체계를 집대성한 미국의 사회학자 탈콧 파슨스 (Talcott Parsons)는 그의 저작 『사회체계(The Social System)』에서 사회체계와 퍼스널리티 사이의 통합에 관한 여러 유형변수들을 활용한 범주화를 시도하였다.

Jonathan Turner, **현대사회학이론**, 한상근 등 옮김 (서울: 나남출판, 2002), 65-73.

8) 본 논문에서는 자아를 프로이드 정신의학에서의 ego가 아닌 사회학과 심리학의 보편적 개념인 self로서 사용하고자 한다. 엄밀하게 심리학적으로 용어를 개념 정의하자면 self(자기)는 “유기체의 실제적인 경험들을 평가하고 탐지하는 참조의 틀로서 작용하는 체계”로, ego(자아)는 “프로이드 학파의 이론에서 원초아(id)의 요구와 세상의 요구 사이를 중재하는 성격의 의식적인 부분”으로 구분할 수도 있겠다.

Walter Mischel, **성격심리학**, 손정락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666.

9) 현대적인 의미에서의 자아에 관한 최초의 사회학적 이론화는 19세기 말 미국의 심리학자 윌리엄 제임스(William James: 1842-1910)로부터 비롯된다. 그는 인간이 세계에 반응하는 방식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능력으로서 자아를 인식하였다.

Jonathan Turner, 432.

소설가 헨리 제임스(Henry James)의 형이기도 했던 그는 그무렵 미국의 많은 명석한 젊은이들이 그랬듯 의학을 전공한 후 철학으로 전공을 옮겼으며 인간의 모든 사고와 정신적 과정이 생물학적이라고 주장한 독일의 신경해부학자이자 골상학자인 프란츠 갈(Franz J. Gall)을 지지했다.

Tom Butler-Bowdon, **내 인생의 탐나는 심리학 50: 프로이트에서 하워드 가드너까지 인간 탐색의 흐름과 그 핵심**, 이정은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08), 14.

10) 언어에 관한 이와 같은 시각과 관련하여 현대의 대표적인 언어학적 논의로는 벤자민

있는 미드(G. H. Mead)는 인간이 사회적으로 타인과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데에는 언어나 문자와 같은 상징의 창조가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인간의 행동은 이러한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상징을 바탕으로 함을 지적한 바 있다.¹¹⁾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며 살아가는 개인은 그러한 자신의 자아를 인식하는 가운데 자신의 모습에 대해 우월감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기도 하며 행복해하기도 하고 고통받기도 한다.¹²⁾ 또한 그러한 자아상 (self image) 속에서 자신에 대해 고민하고 반성하고 더 나은 모습을 열망하며 초조해 하기도 한다. 하버트 블루머(Herbert Blumer)는 인간의 이러한 모습을 자아 상호작용(self interaction)의 개념으로 설명하기도 하였다.¹³⁾

가령 어떤 한 사람이 어느 날 직장에서 별로 친하지 않은 동료 아무 생각 없이 내뱉은 조롱이나 비난의 말에 억울함이나 부당함을 느낄 수 있다. 이는 모멸감이나 분노로 발전할 수도 있는데, 그 때 그 분노의 이유

윌프(Benjamin Whorf)에 의해 제기된 유명한 사피어-윌프(Sapir-Whorf) 가설을 통해 볼 수 있다. 비교언어학적 관점에서 제기된 이 가설에서 윌프는 “개인의 언어구조는 세상에 대한 다른 관점들을 만들어 내며, 따라서 그 언어의 화자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1930년대 이래 이 가설에 대한 언어학자들의 논란은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

Andrew Dalby **언어의 종말**, 오영나 옮김 (서울: 작가정신, 2008), 465.

11) 권희완 등,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31.

12) 미드와 같은 사회심리학자들은 사회적 구성원인 개인들의 자아는 사회의 존재를 필연적인 전제로 한다고 보았다. “자아는 사회적 상호작용으로부터 창조”된다는 것이었다. 이러한 미드의 전통을 계승한 자아이론은 자아에 포함된 사회적 내용을 강조하여 타인에게 비친 자신에 대한 평가(reflected judgement)가 어떻게 개인의 자아 평가(self evaluation)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실증적으로 연구해 나갔다

James A. Schellenberg, **사회심리학의 대가들**, 김동, 이동원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76-78.

13) 어빙 고프만(Erving Goffman)은 이러한 블루머의 생각을 더욱 발달시켜 이른바 연극학적 접근이라 불리는 자신의 이론에서 인간이 주로 상징의 매개를 통해서 현실과 대응함에 착안하여 개인이 사회적 상황에서 혹은 사회적 상황을 해석하는데 있어 자신에 관한 가급적 좋은 이미지 혹은 유리한 모습이 보여지도록 노력한다고 주장하였다. 개인의 인상 관리(impression management)에 대한 사회학적 근거인 셈이다. 권희완 등, 33.

는 자신의 자아가 다른 사람의 눈과 생각 혹은 자신의 생각 속에서 원치 않는 모습으로 인식되어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일종의 자아에 대한 왜곡된 상에 대한 감정적 반응인 것이다. 실제로 사회적 관계 혹은 직업 활동 속에서 개인의 자아 상은 다른 사람들에겐 언제나 쉽게 오해되기도 하며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 빈번히 왜곡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이기도 한다.¹⁴⁾

로저스의 현상학적 성격이론의 관점에서 본다면, 한 사람의 성격¹⁵⁾은 그의 자아와 사회적 현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이다.¹⁶⁾ 이러한 상호작용에 있어 개인의 직업은 결정적인 중요성을 가진다. 직업은 개인이 사회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근거가 된다고 할 수 있겠는데, 사회학에 있어서 고전적 이론가 중 한 명인 에밀 뒤르켐(Emile Durkheim: 1858-1917)은 『사회분업론(Division of Labor in Society)』에서 분업이 사회질서의 토대가 되는 이유 중 하나가 인간이 사회집단에 귀속감 내지 결속감을 느끼고자 하는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데서 찾기도 했다.¹⁷⁾ 사회

14) 행동주의 심리학과 같은 기계론적 관점에 반대하는 칼 로저스(Carl Rogers)와 같은 심리학자는 개인의 태도와 성격 특성에 초점을 맞추며 이러한 자아이론을 개인상담에 적용하였다. 이것이 바로 후에 내담자 중심 심리치료라고 명명된 치료방식이다. 로저스의 현상학적 성격 이론에서 핵심적인 개념은 바로 자아(self)이다. 성격은 개인이 자기자신에 대해 인식하고 있는 자아상과 영향을 주고 받음을 강조했으며, 인간의 성격발달은 대체로 자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다고 그는 주장한다.

노안영,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319-340 ; Carl R. Rogers, **사람 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재은 옮김 (서울: 학지사, 2007).

15) 본 논문에서 성격심리학의 이론까지 동원하여 인물형상화에 접근하고 있는 까닭은 소설 속 인물의 성격은 사실상 인물을 대표하는 의미를 갖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조남현, **소설원론** (서울: 고려원, 1987), 129.

16) 이러한 관점은 심리학에서가 아닌 문학평론의 측면에서도 공유되어지기도 한다. 가령 사회학적 문학 비평가인 리오 로웬탈(Leo Lowental)은 “인간은 사회에의 적응이라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문제와 맞붙어 싸워 나가는 과정을 통해 인격의 보존에 점점 더 집념하게 되며 또 그것을 위협하는 힘을 점점 더 인식하게 된다”고 한다.

동국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학과 여성**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2), 104.

17) 권희완 등, 17.

심리학자인 에버트 휴즈(Everett Hughes)와 같은 학자는 직업 사회화에 대한 연구를 통해 사회 속 개인들이 자신의 직업상황에 맞추어 타인과의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에 대한 의미체계를 새로이 수립해 나간다고 보았다.¹⁸⁾ 그 결과 직업은 그 직업을 선택하고 그 직업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으로 하여금 특정한 인성을 갖추게끔 규정지어주는 기능을 수행하게 되기도 한다. 현실에 있어서도 더러는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볼 때 하나의 군상으로서 동질적인 특성 혹은 신념과 결부되어 이해되기도 한다. 특히 전문직으로 일하고 있는 경우에 생활의 현실적 기반을 제공해주는 지식체계 혹은 사고체계로서의 전공학문은 더욱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치의학을 전공한 개인이라면 자신의 자아를 치과의사라는 사실과 관련시켜 구축하게 될 것이고 당연히 그렇게 구축된 자아상은 그 개인이 치과의사로서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 및 사회적 현실들과 지속적으로 상호 영향을 주고 받으며 자아실현으로 이끌 것이다. 마찬가지로 특정 시대를 살아간 치과의사들의 모습 그리고 그들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은 치과의사 자신들의 개인적 자아¹⁹⁾와 이를 바탕으로 한 사회적 현실과의 상호작용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18) James A. Schellenberg, 78

19) 집단적 자아와 개인적 자아를 주의해서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을 수 없다. 치과의사를 하나의 집단으로 놓고 봤을 때, 집단적 자아 내지 집단적 의식이라고 부를 만한 일체적 성격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자아(ego) 심리학의 대가인 에릭슨에 의하면 정체감(identity)을 개인적 정체감과 집단 정체감으로 나누고 후자의 확립이 전자에 선행하여 청년기에 달성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이런 집단적 정체감은 직업집단으로서의 성인들이 가질 수 있는 집단적 의식과는 층위가 다른 개념이다.

장휘숙,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9), 158.

반면 프로이트(Sigmund Freud)는 집단적 심리에 대해 부정적이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한 바 있다. "인간 사회에서 찾아볼 수 있는 독창성과 개인적 용기가 얼마나 적은지, 모든 개인은 민중성과 계급적 편견이나 여론 등의 형태로 집단 심리의 태도에 얼마나 많이 지배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상기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런 집단의 심리-의식적인 개인의 인격이 감퇴하고, 사고와 감정이 공통된 방향으로 집중되고, 정신의 정애적 측면과 무의식적 정신생활이 우세해지고, 어떤 의도가 떠오르자마자 당장 실행에 옮기려 드는 경향-는 모두 원시적 정신 기능으로 퇴행한 상태와 일치한다."

Sigmund Freud, **문명속의 불안**, 김석희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7), 130-137.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시대인 1950년대는 전후 사회의 혼란 속에서 한국인들은 저마다 자신의 자리를, 자기 터전을 잡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시기였다. 건국과 그에 이어지는 전쟁이라고 하는 사건은 그 시기를 살아 가던 사람들의 삶의 과정 속에 깊숙이 개입해 들어와 지대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물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이전 일제 강점기 때부터 해오던 일을 자신의 직업으로 계속 이어나가게 되었고, 이전부터 공부해오던 자신의 전공 학문을 직업으로 삼기 위해 노력했다. 치과의사 역시 다르지 않았다. 1950년대는 치의학이 구한말과 일제 강점기 시기를 거치며 국내에서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잡고 더 나아가 건국 후 치과의사라는 하나의 직업이 한국 사회의 의료 전문직으로서 점차 자리매김해나가는 도상에 있었던 시기이기도 했다.

기대와 좌절, 의욕과 무기력, 의미와 공허함이 교차했던 당시의 시대적 분위기는 그 시대 문학에 잘 반영되었다.²⁰⁾ 동시에 사람들은 모순된 시대적 상황 속에서 자신의 혼란스런 마음, 흔들리는 자아상을 문학을 통해 들여다 볼 수 있었다.²¹⁾ 시인이나 소설가 등의 문학 작가들 역시 자신의 그러한 내면이자 그 시대의 내면을 문학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동시대의 대중과 교감²²⁾하고자 했으며, 그 모순의 극복을 위한 시도를 공유하고자

20) 문학은 사회학이 하는 방식처럼 사회 자체를 직접적으로 탐구 대상으로 삼지는 않지만 사회의 양상을 작가 자신이 내부에서 소화하여 외적인 형식으로, 즉 언어로 표현해낸 결과물이라 볼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문학비평을 논했던 대표적인 학자인 드보날드(De Bonald)는 “문학은 사회의 표현이다”라고 말한 바있다. 물론 문학에서 이러한 현실의 드러냄은 있는 그대로의 반영이 아닌, 해리 르빈(Harry Levin)의 표현대로 “굴절”된 형태를 취한다.

이상우, 이기환, **문학비평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95), 119-122.

21) 문학에 나타난 내용은 사회문제에 남다른 관심을 갖고 있는 작가가 의식적으로 선택한 내용이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학자는 주로 거시적인 사회적 요소에 중점을 두는 데 반해 문학에서는 “세밀하고 내면적이고 개인적인 즉 미시적 사회현상” 보다 많이 취급한다.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서울: 탐구당, 1985), 120.

했다²³⁾. 또한 그 과정에서 그 시대 문제의 해결에 뛰어들었던, 그 사회의 인간적 행복을 이성적으로 탐구했던 철학적 시도 또한 문학 속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게 되었다.²⁴⁾ 가령 실존주의는 당시 전후 소설을 비롯한 한국 문학에 담긴 대표적인 철학 사조였다.

문학과 철학은 그 시대 사람들의 자아상을 반영함과 동시에, 그 시대의 자아상을 창조해내기도 한다. 사실주의적 인물 형상화 관점²⁵⁾에서 볼 때 이러한 점은 두드러진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소설의 인물은 단순히 텍스트 상의 모티브의 연결체로서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현실 속 인간의

22) 물론 이러한 교감, 즉 작가와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 사이의 커뮤니케이션과 관련하여 부르디외(Pierre Bourdieu)는 최소한 대중들이 문학에 내제하는 사회적 약호를 읽어낼 수 있는 해독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봄으로써 대중에 대한 비판적 입장에서 있었다. 반면 롤랑 바르트(Roland Barthes)는 언어로 구조화된 문학의 속성을 오히려 극단적으로 형상화시켜 대중이 그러한 텍스트의 지배와 권위로부터 빠져나와야 함을 역설적으로 주장함으로써 문학 창조자인 작가에 대해 비판적 입장이었다. 이러한 두 입장의 사이에 선 움베르트 에코(Umberto Eco)는 문학에 내제해 있는 언어로 구조화된 약호들을 대중을 위해 끊임 없이 해독해주고자 노력했던 기호학적 연구를 수행했던 대표적인 학자이다.

23) 이와 관련해서 김현(1942-1990)은 문학이 현실의 모순 극복을 꿈과 행복에 비추어 드러낸다고 보았을 때, “꿈을 꿈 자체로 드러내는 방식을 취하기 보다 꿈에 비추어 어떤 것이 어떻게 결핍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드러낸다고 보았다.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예술과 사회** (서울: 민음사, 1979), 21.

24) 이러한 철학과 문학의 만남의 필요성에 대해 프랑스의 현대 시인 이브 본푸아(Yves Bonnefoy)는 “철학과 시가 만나야 한다. 개념 안에서 그리고 개념을 초월해서 현재성을 되살리고 사회에 필요한 사상과 판단과 가치관을 현재성의 관점에서 재배치할 수 있는 완전한 언어를 찾아야 한다”라고 주장한다. 반면 현대의 여러 학파들의 언어 철학은 철학의 담론 앞에 문학의 특수성과 직관을 경시해온 경향이 있는데, 그 대표적인 예가 구조주의 분석이며 구조주의 분석으로 인해 문학 작품에서 저자의 존재가 무시되기 시작했다고 이브 본푸아는 말한다.

Yves Michaud 등, **문화란 무엇인가1**, 강주헌 옮김 (서울: 시공사, 2003), 549-552.

25) 소설 속 인물의 행위에 대하여 크게 두 가지 형상화 방식이 있다. 형식주의나 구조주의적인 측면에서는 그 결과와 플롯 상의 의미에 초점을 맞춘다면 사실주의적 측면에서는 그 행위의 의도, 그리고 그러한 행위의 의지를 가진 인물의 사고와 세계관에 초점을 둔다. 전통적인 소설에서는 작중 인물, 특히 주인공은 작가의 의지의 대면자였고 작가의 자기표현에 가까웠다. 반면 1960년대 전형적인 구조주의 소설에서는 작중 인물에게서 정신적 심리적 요소를 배제시켜 버린다.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165-167.

모방, 재현²⁶⁾으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그럼으로써 소설에서 창조된 인물 형 속에 그 시대적 치과의사 상이 반영될 수 있다. 또한 그 인물형을 구조주의적으로 분석함으로써²⁷⁾ 소설 속 시대의 사회상을 특징적으로 구성해낼 수도 있다. 전문직으로서의 치과의사가 가지는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인식 등을 소설을 통해 분석해보는 것이다. 구소련의 바흐친 (Mikhail Bakhtin : 1895~1975)의 대화주의 문학이론을 대입하자면 소설 속 인물은 작가에 의해 조종되기만 하는 수동적 객체가 아닌 독립된 목소리를²⁸⁾ 내는 능동적 주체로 표상된다. 이로써 인물형의 분석은 작가의 의도 이상의 의미를 가지게 된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러한 형상화된 인물형의 분석을 통해 그 소설이 씌어진 시대를 넘어서는 인간상의 창조 가능성을 보게 된다는 점이다. 여기에 치과의사 형상화 연구의 의미가 담겨 있다. 소설 속 주인공의 성격과 행동은 그 독해 과정에서 시대를 초월한 보편성을 가지는 인간상을 제시할 수 있다. 치과의사의 문학적 형상화는 치과의사 상의 반영과 더불어 새로운 치과의사 상의 발견으로서도 기능하는 것이다.

26) Shlomith Rimmon-Kenan, **소설의 시학**, 최상규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85), 53-55.

이러한 리얼리즘적 관점에서 보자면 소설 속 인물은 현실 속의 인간과 유사하게 그 인물의 성격을 분석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작중 인물의 성격적 특성을 바탕으로 소설에서 화자가 설명하지 않은 과거를 유추한다거나 미래를 예상하기도 하며 더 나아가 현실 속 사람에게 하듯 인물의 정신분석을 면밀하게 시도하기도 한다.

27) 구조주의적 인물 형상화는 인물 자체의 특성, 즉 그 인물이 가지는 생물학적, 정신적 특징 등이 아니라 그 인물이 소설 속에서 위치하는 관계와 위치에 초점을 맞춘다. 그 인물이 어느 자리에 있는가, 작중 상대 인물과 혹은 극 중에서 제시된 환경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의해 의미가 부여된다. “주체는 구조의 효과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인간세상이 사실은 단순한 인간관계라는 구조의 재반복”인 것이다. 여기서 실존주의에 대한 비판으로 태동한 구조주의의 본질이 위치한다. 하지만 이러한 구조주의는 인간의 주체성을 적극적으로 인정하는데 회의적이었고 결국 개인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이진경 "관계를 떠난 주체는 없잖아!" **한겨레**21, 2000년 05월 04일.

28) 바흐친은 이를 다성성(polyphony)의 개념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이 개념은 나중에 줄리아 크리스테바(Julia Kristeva : 1941 -)에 의해 상호텍스트성이라는 현대문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발전하게 된다.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1993), 163-196.

제3절 연구 방법

문학을 통한 치과 의사의 형상화 및 전문직업성 연구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선행된 연구는 없다. 본 연구는 1950년대 치과 의사의 삶의 모습을 문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탐구하는 작업을 위해 소설 속에 치과 의사로 형상화된 인물 한 명을 분석적으로 연구하는 방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본 논문에서는 1958년 『사상계』에 발표된 소설가 손창섭의 단편 소설 「잉여인간」을 소재로 하였다.²⁹⁾ 소설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중후반이며 소설 속 주인공 치과 의사의 이름은 서만기이다.

소설 속 인물 한 명의 분석을 통해 특정 직업의 형상화 양상을 연구하고 있는 점에서 실존 인물을 문학적으로 어떻게 형상화³⁰⁾했는지를 살피는 연구와 다르며, 또 단순히 특정 작가 혹은 특정 시대의 소설 속 인물들을 분류하고 유형화하는 연구³¹⁾와도 다르다. 본 연구에서는 인물 분석을 위해서 인물 개인의 직업과 관련된 성향, 가치관 등 성격적 요소들을 면밀히 다각도로 분석하고, 그럼으로써 인물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해 들어가는 연구방법을 취한다. 소설 속 인물의 활동 공간과 배경 전반을 검토하고 소설 속에서 드러나는 인물의 행동과 대화를 분석함으로써 소설 속 인물의 상을 재구축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렇게 인물 한 명에 대한 형상화 양상을 분석해 들어가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본 논문의 목적

29) 조남현 같은 평론가는 「잉여인간」을 손창섭 소설의 정점으로 평가하기도 하였다.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서울: 문예출판사, 1994), 116.

30) 가령 이순신이라는 실존 인물이 시대적 흐름에 따라 다양한 작가들에 의해 문학적 형상화가 어떤 변화를 겪었는지 혹은 또 다른 예로 김동인과 이광수에 의해 이루어진 세조(수양대군)의 문학적 형상화의 대조적인 차이를 논한다든지 하는 것이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31) 가령 손창섭의 50년대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한 유형화 시도 혹은 1950년대 소설에 나오는 여성주인공들에 대한 유형화 연구가 이런 경우에 해당할 것이다.

이 손창섭 문학의 재발견이나 분단소설에 대한 문학사적 의미부여 등의 문학적 관점 보다는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이나 의학의 근대성 등에 초점을 맞춘 인문학적 관점에서 시도된 연구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먼저 본 연구의 기초를 위한 작업으로 인물 형상화의 대상 시기인 1950년대의 국내 치의학 상황을 살펴 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에서 지금까지 이루어진 치의학사 연구 내용을 검토해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1950년대 문학사 연구 내용 및 전후 소설에 나타나는 인물들의 문학적 형상화 연구에 대해서 검토해보았다. 소설을 쓴 작가인 손창섭과 그의 소설들에 대해서도 그간의 연구 상황을 살펴보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1950년대 손창섭의 단편소설들, 그리고 그의 소설 속 인물에 관한 연구들을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소설 잉여인간의 인물 분석에 관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보았고 이를 바탕으로 서만기의 인물 특성에 대한 집중적인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과정에서 인문학적 관점에 입각해서 의학의 근대성을 고찰해 보고 그에 비추어 서만기가 가진 의사로서의 내면적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어 문학적인 이상적 인간상을 소설사의 관점에서 고찰해 보고 이에 입각해 서만기를 다시 조명해보았다.

그와 병행하여 치과의사 서만기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위해 국내외 연구를 참고하였고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그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는 윤리성과 자율성에 대하여 그 역사성을 고찰해 봄으로써 서만기에 대한 입체적 이해를 시도해볼 수 있었다. 더 나아가 1950년대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개원의로 살아가는 치과의사의 직업문화적 측면에서 그의 삶과 가치관을 분석하였다.

크게는 두 갈래 길의 연구를 동시에 접목시키는 본 연구의 특성 상 두 분야의 연구 내용이 가지고 있을 상호연관성에 초점을 맞추어 상이한 두 분야의 논문들을 검토해 나갔다. 본 연구는 일차 자료에 기반을 둔 좁은 주

제에 대한 심도 깊은 연구는 아니며 문학사와 치의학사에 대해 거시적인 관점으로부터 접근하여 특정한 소설 속 인물 한 명에 대한 다양한 시각의 분석을 시도한, 원근법과 입체성을 띤 독특한 연구방식에 바탕을 두고 있다.

제2장 1950년대 국내 치의학 상황³²⁾

신생독립국이었던 한국 사회에는 미국의 경제 원조 속에 미국 중심의 서구 근대 문화가 급속히 유입되고 있었다. 그 이전에는 주로 일본을 통해 서구 근대문화가 들어왔다면, 이 시기는 미국을 통해 들어온 것이었다. 이미 19세기말부터 서양에서 유입되고 있었던 의학 및 치의학이 유럽의 근대사적 배경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다면, 1950년대 국내 치의학은 20세기에 들어와 기초 과학과 임상 의 결합으로 체계적 교육내용이 구성된 현대적인 성격을 강하게 띠기 시작한 것이었다. 물론 1950년대 한국의 치의학에 미국에서와 같은 학문적 깊이나 기술적 수준, 더 나아가 의료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위상을 가능케 할 학문적 권위를 기대할 수는 없었다. 1950년대 국내엔 입치사 출신 치과의사들도 아직 건재하게 활동하고 있었다.³³⁾

원래 치의학은 구한말 즉, 19세기 말에 초기적 형태로 이 땅에 전래되었다. 일본을 통해 수입되었다고 할 수 있는데 일본인 치과의사가 당시 조선에 와서 활동하기 시작하였다. 당시 조선에 소개된 치과의료는 몇 개월 기술을 배워서 바로 환자를 치료하는데 활용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었다. 하지만 1890년대를 전후하여 미국에서는 치의학 역사의 혁명적인 발전이 일어나고 있었고 기초와 임상에서 학문적 토대가 왕성히 구축되어가고 있었다. 밀러(W. D. Miller)의 저작 『Microorganisms of

32) 치의학 분야의 연구에서 국내 치의학사 연구 내용은 최근에 나온 신재의의 연구와 이주연의 연구 결과를 많이 참조하였다. 국내 치의학사 분야에서 이 두 연구자의 연구는 철저한 실증사학적 연구방식에 근거하여 일차 자료의 집대성을 통한 통사적 역사서술의 기반을 닦았다고 볼 수 있다.

신재의, **한국치의학사연구** (서울: 참운, 2005) ;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해안, 2006)

33) 일제 강점기 직전부터 이미 일본인 입치사들이 들어와 활동을 개시했고 이후 한국인 입치사가 한국인 치과의사보다 먼저 생겨난 바 있었다. 해방 이후에도 미군정기 실시된 한지치과의사 시험 등으로 치과의사가 된 입치사 출신들이 존재했다.

the Human Mouth』에 의해 촉발된 치아우식의 병리학적 기전에 대한 학문적 연구가 왕성하게 전개되고 있었고 블랙(G. V. Black)에 의해 와동형성(cavity preparation)의 기준이 제시되어 치과치료 술식의 학문적 토대가 구축되어 나가고 있었다.³⁴⁾ 물론 미국에서도 일반 서민들에게 치과 진료는 고가로 인식되었으며 당연히 그 접근성은 낮았다.

이후 1914년 이래로 국내에 한국인 치과의사도 생겨났다. 하지만 이 당시 이미 일본식 입치사가 광범위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그 당시 입치사는 일본에서는 존재 자체가 부정시³⁵⁾ 되어나간 것과 반대로 식민지 한국에서는 광범위하게 활동을 하였다. 그로 인해 식민지 시기 내내 일반인에게 국내 치과의료는 의학적 근거 없는 물리적 보철 술식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강했다. 물론 1916년 서울의 세브란스병원 내에 치과가 설치되어 미국식 치과 진료가 선보였고, 1920년대에 와서 독일식 교과과정을³⁶⁾ 일본을 통해 들여온 경성치과학교가 개교하여 치과의료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보강되어 나갔다. 경성치과학교는 이후 치과전문학교로 발전하였다. 하지만 치의학 연구는 일본인이 주를 이루었고 한국인은 학문적인 연구과정에서 거의 배제된 형편이었다. 단지 한국인 치과의사 중 소수만이 일

34) Marvin E. Ring,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Harry N Abrams, 1992), 271-277.

35) 일본에서는 1906년 치과의사법 제정 후 입치사의 활동 폭이 크게 제한받게 되었다.

36) 일본의 경우 명치정부 시절 부국강병 정책을 내걸고 서양문물을 적극 도입해나갔는데 서양의학은 그 대표적인 학문이었다. 일본 명치시대 서양의학은 처음엔 영국의학이 주류였으나 1870년경부터 독일의학의 수입이 대세화되었다. 하지만 오늘날 치의학의 영역에서는 미국의 치과학이 도입되었는데 이는 치아에만 주의를 기울여 수작업에 몰두했기에 의료인이라기 보다 숙련된 기술자에 가깝게 인식되었으며 이는 이후에 일반인들이 입치사를 치과의사와 혼동하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특히 당시 독일의학에 심취한 의사들이 볼 때 별실에서 보철물을 제작하는 기공작업은 매우 이질감을 주는 것이었다. 이후 일본에서는 베를린 대학의 코흐(Heinrich Hermann Robert Koch)로부터 세균학을 배워온 이자와 신페이(伊澤信平)에 의해 1909년에 야 구강외과학이 치과 교과목으로 포함되었다.

나카하라 센(中原 泉) “현대의치원론(1),” **대한치과 의사학회지** 17, 1 (1998): 85-102.

본인 위주의 연구자 그룹에 제한적으로 동참할 수 있었을 뿐이다. 또한 20세기 전반기는 서구에서도 감염 예방과 관련하여 치과 의료가 수세적인 상황에 몰려있었던 치의학의 암흑기이기도 했다.³⁷⁾

해방 후 국내 치의학은 성장을 위한 발판을 구축하게 되는데 1950년대는 그런 의미에서 치의학사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특징을 가진다. 해방 후 서울대 치과대학이 설립되어 졸업생을 배출하기 시작했다. 그와 함께 기존의 다양한 출신이 혼재되어 치과의사로 활동했던 시대가 점차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치과대학 출신 치과의사가 국내 치 의학을 독점적으로 전수, 발전시켜 나가게 되는데 그 과도기에 있던 시기가 1950년대에 해당한다.³⁸⁾ 또한 1950년대는 당시 한국에 주둔해 있던 미군을 통한 군진 의학의 형태로 20세기 중반의 치 의학을 선도하던 미국 치 의학의 내용과 술식이 소개되었던 시기이기도 하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국내 치 의학 체계는 미국식을 따라가게 되었다. 그 계기가 되었던 6.25 전쟁은 한국 치 의학 역사에도 큰 영향을 끼친 사건이었다. 전쟁의 과정에서 많은 사상자가 발생할 수밖에 없었고 부상당한 군인들을 치료하는 과정에서 구강외과 및 그와 관련된 진료의 수준이 전반적으로 발전하게 되었다. 특히 이에는 군진치과의들의 주도적 역할이 있었다. 국내 치과의사들은 미국유학이나 군진치의학 연수를 통해 아직은 세분화가 본격화되지 못한 국내치

37) 20세기 초반 영국의사 헌터(W. Hunter)에 의해 제기된 입안 패혈증(oral sepsis) 개념은 치의학에서 이른바 치성 국소감염 이론(dental focal infection theory)의 성립으로 이어져 많은 예방적 목적의 발치가 횡행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당시 치과의사들은 이러한 검증되지 않은 의학이론을 자신들의 전문직업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에서 선불리 받아들인 측면도 있었다.

G. Dussault and A. Sheiham, "Medical theor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theory of focal sepsis and dentistry in early twentieth century Britain," *Social Science & Medicine* 16, 15 (1982): 1405-12.

38) 일제 식민지시기 입치사 면허를 받고 활동했던 입치사들이 1950년대에 한지치과의사 면허를 달라는 진정서를 낸 적이 있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또한 이들의 입치사 면허 갱신발부 역시도 중단되었는데 이는 대한치과의사회의 반대에 의한 바가 컸다. 동아일보, 1959년 8월 19일, 3.

의학 수준을 각 분과 마다 활발히 발전시키는데 관심이 많았다. 이로써 미국식의 치과 전문 분야가 형성 되었고 치과 내에 분과학회들이 성립되기에 이른다.

또한 전쟁 전에도 그랬지만, 전후의 피폐한 경제사회적 조건 속에서도 구강보건에 대한 치과의사들의 많은 관심은 조선치과의사회와 같은 중앙회조직의 활동으로 구체화되었다. 당시는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사회 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보건의료 부문 역시 마찬가지로 한정된 예산을 바탕으로 제한된 사업이 실시되고 있을 뿐이었다. 치과의사들은 보건의료의 한 부분으로서 치과 의료를 담당하는 위치에서 나름대로 국가 정책에 기여하고 자신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일반 치과진료의 실상을 보면 당시 국내엔 치과 의료기기 수준과 기자재 보급율이 낮아 치료 술기의 임상적 적용에 여러 물리적인 제한이 많았다. 50년대엔 핸드피스 모터 작동은 힘이 없고 속도가 낮아 정교한 치아 삭제를 요하는 보존, 보철의 제반 술식들이 힘이 들고 시간이 많이 소요될 수밖에 없었다. 방사선 촬영은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기타 외과적 처치에도 많은 한계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볼 때 1950년대에는 국내 치의학의 여러 내용적 원리와 학문체계가 가닥을 잡아가고 있었다. 또한 당시 국내 치과의사들은 단지 매일의 환자 진료로 수익을 내고 보람을 얻는 것으로 만족하기 보다 의술을 통해 사회에 기여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³⁹⁾ 더 나아가 자신의 학문 분야를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치과의사로서

39) 이주연은 해방 직후 한국 치의학계가 우선적으로 일제 식민지 치과 의료의 잔재를 청산하고 자주적인 치과 의료 체계, 즉 우리 국민들을 위한 진료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 국민 구강보건 수요에 부응하고 그 질적 가치와 부를 우리나라 안에 축적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체계 수립에 주력하였다고 말한다.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 의료 체계, 276.

의 사회적 지위를 전문직업인으로서 발전시키는 데에도 관심이 많았다. 적어도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치과의사는 1950년대에 가장 선진적인 지식을 교육받은 직업군으로⁴⁰⁾ 인식되어 갔다. 소설 속 서만기는 변두리 지역의 영세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묘사되었지만 그러한 1950년대의 치의학의 발전이 초래한 일반 대중의 치과의사에 대한 변화된 인식이 어느 정도 투영된 인물상으로 봐야 한다.

40) 이러한 인식은 사실상 치과의사들의 의도적인 노력과 다분히 관련되어 있다. 당시 신문에는 구강 보건 차원에서 치과의사의 기고문이 자주 등장했는데 그럴 때마다 선진국의 치과의료계 사정과 자주 비교함으로써 일반 대중의 인식 제고와 더불어 치의학의 선진성을 간접적으로 부각시켰던 측면이 있다. 가령 다음의 기사가 그런 전형적이 예라 할 수 있다. “…… 그렇기 때문에 선진국가에서는 아동치아 충치예방에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미국 같은 나라에서는 불소라는 충치예방약을 상수도 저수지에 풀어서 전국의 아동이 상시 먹도록 하고 있다. 우리 대한치과의사회에서도 거년에 불소를 구입하여 각 개업치과의사에게 분배하고 아동치아 충치예방을 꾀한 바 있으나 일반 국민의 비협조로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지만, 우리는 계속하여 노력을 다하고 있는 것이다. ……”

김종옥, “이와 입안을 깨끗하게” 경향신문, 1958년 6월 10일, 4.

제3장 1950년대 전후소설과 손창섭

20세기 전반부는 딱히 일제에 의한 강점기를 떠나서라도 세계적으로 자유민주주의가 암울한 터널 속을 헤메던 시기이기도 했다.⁴¹⁾ 하지만 한국 사회는 해방직후 극심한 진통의 시기가 지나고 1948년 국민국가 수립과 함께 자유민주주의가 적어도 체제 상으로는 (일반대중에게 얼마나 그 사상이 이해되고 있었는지를 떠나서) 실험적이라 할지라도 이식되었다. 그리고 건국 직후 치러진 전쟁을 통해 다시 한번 행정조직 체계나 사회체제가 허물어져 가는 가운데, 종래의 수직적인 신뢰관계와 전통적 사회 가치관이 붕괴되었다. 서구의 자유주의 사상과 개인주의 의식은 미국을 통해 빠르게 과급되어 나가기 시작했다. 그와 더불어 전후 사람들이 가지고 있던 회의감과 불안, 방황, 소외감은 증폭, 확산되어갔다.⁴²⁾ 그러한 시대적 분위기를 담은 전후소설은⁴³⁾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의 내면을 잘 보여주었다. 사람들은 소설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투영하고 자신들의 상을

41) Eric Hobsbawm 같은 역사학자는 “1917년부터 1942년 사이에 서구사회에 자유민주주의가 자취를 감추어” 버렸다고 말하기도 한다.

Ybes Michaud 등, 37.

42) 딱히 발전과 진보에 대한 관념 자체가 없었던 전통사회 농민들이 “자신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자각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경우 식민지 시기를 지나고 해방 후에 와서라고 할 수 있다. 더욱이 전쟁을 겪으면서 “농민들의 전통적인 체념과 복종, 불신은 다시금 심화되었고 걸으로는 국가에 복종하나 실제로는 믿을 곳은 가족밖에 없다고 생각하여” 농촌을 중심으로 가족의 안전과 복리를 무엇보다 우선시하는 새로운 형태의 가족주의가 빠르게 확산되어 나가기도 했다.

김동춘, “1950년대 한국 농촌에서의 가족과 국가,” **선택과 굴절**,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서울: 역사비평사, 1998), 186-227.

43) 신경득은 전후소설에 대해 전쟁의 실상과 휴머니티를 다룬 문학으로 그 개념을 설명하기도 하였다.

신경득, **한국전후소설연구** (서울: 일지사, 1983), 7.

전후 소설에 대한 논의는 다양한 편이나, 여기서는 전후소설의 의미를, 전쟁 전에 비해 문학적 특징이 선명하게 변화된 측면에서 보다는, 해방공간의 혼란과 건국 후 사회 체제의 불안정이 전쟁 후 연장 내지 증폭된 시대적 측면에서 바라본다. 즉 전쟁으로 인한 혼란과 불안정이라는 1950년대의 시간적 배경에 중점을 두어 전후소설을 이해하고자 한다.

사회적으로 그려나간다. 사회적으로 소통되는 그들 자신의 이미지는 그 시대의 인간상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기도 한다. 1950년대 국내 전후소설 역시도 그 당시 삶의 현실과 그 속에서 살아가던 사람들의 생각과 감정에 조응하는 인물형을 창조함으로써 사회적 정서와 교감해 나갔다고 볼 수 있다. 전쟁 이후 50년대 소설의 본격적인 등장은 <문예>, <문학과 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문예지의 등장 및 신문사들의 신춘문예제도가 이 시기에 자리 잡으면서 나타났다.⁴⁴⁾ 하지만 이데올로기 갈등으로 인한 전쟁은 후유증을 심하게 남기게 되면서 기존 소설의 전통에서 탈피하여 서구 전후 문학의 영향을 많이 수용하여⁴⁵⁾ 새로운 소설 기법을 시도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구인환과 같은 학자는 해방전 소설들이 주로 리얼리즘을 바탕으로 사회적 반영에 주력하는 경향이 강했다면 전후 소설은 의식에 대한 설명을 삽입하는 구조론적 경향이 새롭게 부각되었다고 평가하기도 했다.⁴⁶⁾

특히 1950년대 우리나라 소설에는 실존주의 철학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⁴⁷⁾ 실존주의 철학은 서구 자본주의 사회에서 2차 세계대전 후 전쟁의 참상을 겪은 사람들의 정신적 혼란을 배경으로 나타난 철학 사조이다. 실존주의는 부조리한 현실, 공허한 관습적 질서에 맞서 자아의 주체성과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자유로운 결단을 촉구하였다⁴⁸⁾. 한국의 1950년대 소

44)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서울: 민음사, 1991), 83.

45) 한국의 소설사에서 1950년대 전후소설은 개화기 소설에 이어 두 번째로 서구 문학 정신의 대량 유입과 긴밀한 연관성을 맺는다는 점에서 일정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송하춘, 이남호, **1950년대의 소설가들** (서울: 나남, 1994), 13-14.

46) 구인환, **한국근대소설연구** (서울: 삼영사, 1977), 375-376 ; 구인환, “전후 한국문학의 지형도: 소설의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전후문학연구**, (서울: 삼지원, 1996), 17-22.

47) 임현영, **한국현대문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1988) ; 이대영, **한국전후실존주의소설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48) 하지만 이러한 실존주의에 대한 평가도 명암이 존재한다. 실존주의 문학 활동이 가장 활발했던 프랑스 실존주의를 대표하는 사르트르에 대한 다음의 비판은 특기할 만하다. "실존주의는 1940년대 후반과 50년대에 인기를 얻은 철학이었다. 사르트르의 희곡들은 히트를 쳤고 그의 저서들은 엄청나게 팔려나갔다. 20세기 그 어떤 철학자도 세계

설 역시 실존주의의 영향으로, 자아를 극단적으로 뒤흔드는 혼란한 사회적 상황 속에서 작중 인물들이 어떻게 자신의 자아를 유지시켜나가기 위해 발버둥 치는지를 비유적으로 절실하게 혹은 냉소적으로 보여주게 된다.⁴⁹⁾ 이러한 소설을 발표했던 대표적인 전후 소설가들 중 한 명이 손창섭이다.

지금까지 1950년대 소설에 대한 연구(주로 평론)는 거의 단편소설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⁵⁰⁾ 그 양이 매우 방대하다. 그 선두 격이라 할 수 있는 김상선의 이른바 신세대 작가론⁵¹⁾ 이후 많은 후속 연구들이 지금까

전역의 너무나 많은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의 정신과 태도에 것처럼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했다. ……결국 그의 사상은 인간 개개인이 행위와 용기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할 경우 각자는 자신들의 영혼의 절대적 주인으로 볼 수 있다는 일종의 도전적인 개인주의 철학이었다. ……이는 전체주의의 악몽을 겪은 유럽인들에게 던지는 자유의 메시지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의회민주주의에 열정도 관심도 없었으며……결국 1952년에는 공산당에 동조하기에 이른다. ……사르트르 자신은 행동하는 인간은 아니었지만, 그는 항상 다른 이들에게 행동할 것을 장려했고 그 행동은 보통은 폭력을 의미했다. ……그는 아프리카의 현대적인 흑인인종주의 창시자인 프란츠 파농의 후원자였고…… 결과적으로 1960년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아프리카 대륙 대부분을 집어삼킨 내전과 대량학살에 이바지했다. ……캄보디아에서 행해진 전체인구의 1/5에서 1/3을 죽음으로 내몬 대량학살은 앙카 류(고등조직)로 알려진 1950년대 프랑스에서 유학한 지식인 집단으로서 공산당에 가입했을 뿐 아니라 사르트르의 철학적 행동주의에 열광한 그의 이념적 추종자들에 의해 저질러진 결과였다. ……사르트르는 자신이 대중적으로 표방한 관점에 일관성을 부여하거나 체계를 세우는데 실패했으며 세상을 떠난 후 그가 내세운 주장 중 어느 것도 살아남지 못했다. 그가 대변한 것은 좌파와 젊은이의 진영에 속하려는 모호한 욕망에 불과했다.”

Paul Johnson, **지식인의 두 얼굴**, 윤철희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4), 415-461.

49) 이러한 소설기법에 의하면 기존의 민족주의나 사회주의와 같은 이데올로기, 혹은 사실주의의 현실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 내면의 심리에 초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1950년대 실존주의적 서술 경향은 국내 문단의 흐름 속에서 볼 때 1930년대 모더니즘과도 접점을 갖는다. 사회적 총체성 보다 화자의 개별성에 입각한 현실 응시와 동시에 현실로부터의 소외 등은 둘 사이의 연결 고리를 형성한다.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서울: 일지사, 1988) 참조.

50) 이 시기 문단의 주류는 문예전문지를 장악했던 단편 소설이었다. 장편소설은 문예지에 제대로 실릴 공간도 없었거니와 상업적인 면이 강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문학적 분석의 대상에 제외되는 경향이 강했다.

51) 신세대 작가론이란 주로 손창섭, 장용학, 김성한, 오상원 등의 작품에서 보이는 허무주의와 냉소주의적인 면을 특징으로 삼아 서구의 현대적 문화 사조에 연관 지어 지

지 이어져 왔다. 이들 연구는 전후 소설을 어떤 관점에서 혹은 어떤 기준으로 분석하는지에 따라 연구 결과에 다양한 차이가 존재한다. 크게 보면 시대적 특성을 특정한 개념 혹은 사조를 통해 규정한 후 그 시대 소설들의 맥락을 짚어내려는 연구가 있는가 하면, 작가 위주로 개별 작가들 고유의 인물 형상화 방식이나 서사 방식에 근거하여 그 시대 소설들을 해석해 나가는 연구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좀 더 시대상의 반영에 주목한다면 후자는 작가의 특수성에 좀 더 주목하는 입장이라고 도식화 해 볼 수도 있겠다. 가령 후자에 해당하는 연구로 박동규는 인물의 성격을 중심으로 전후 소설들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를 다시 시대상으로 형상화하는 귀납적 논리 전개를 시도하였다.⁵²⁾ 최근에는 그간의 전후 소설에 대한 고정된 시각, 즉 사실주의적 인물 형상화, 실존주의, 휴머니즘, 전쟁, 세대론 등에 대해 다소 벗어나서 다른 관점으로 조망하려는 시도도 제기 되고 있다⁵³⁾.

본 연구도 후자의 입장에서 최근까지 손창섭의 소설을 분석한 비평가들의 논의를 고찰해보았다. 손창섭은 1950년대에는 단편소설들을 주로 집필하였다. 그 후 60년대로 넘어가면서 신문을 통해 대중적인 장편소설을 정기 연재하는 집필 활동을 주로 하였다. 그가 자신의 작품을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많은 비평가들이 그의 소설을 분석했다. 특히 1950년대에 그가 남긴 단편소설들에 대해 전후소설의 대표적인 특성을 보여준다고 많은 비평가들은 얘기해왔다. 그의 소설에 등장하는 주요인물들은 소외되고 무능력하고 무기력한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이 그 시대의 암울한 사회의 내면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실제로 그간의 손창섭 연구는 주로 그의 소설에서 등장하는 인물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칭한 개념이다.

김상선, **신세대 작가론** (서울: 일신사, 1964) 참조.

52) 박동규, **현대한국소설의 성격연구** (서울: 문학세계사, 1981) 참조.

53) 양은창, **한국 전후소설 구조론** (서울: 웅동, 1999) 참조.

많았고, 그 인물들의 행동과 처해 있는 상황에서 드러나는 특징적인 모습들을 중심으로 그의 소설을 분석하는 경향이 일반적이었다. 정창범, 조연현 등 손창섭이 소설을 발표하던 당대에 그의 작품을 비평했던 이들은 작품의 우울한 분위기와 비정상적인 인물들에 대해 긍정성이 결여되고 허무주의적이라는 다소 부정적인 평가였던 반면,⁵⁴⁾ 유종호는 그의 작품 속 인물 형상화의 특징을 인간 모멸, 즉 인간에 대한 모멸로 특징지었다.⁵⁵⁾ 이후 격변기 사회의 인격의 붕괴를 예리하게 묘사한 작가로 보는 관점도 나왔고⁵⁶⁾ 최근에 와서는 50년대에 대한 보다 객관적인 조망의 차원에서 그의 소설을 바라보는 비평들이 나오고 있다. 정호웅은 그의 소설이 모더니즘적 성격의 실존주의 소설이라고 평가했다.⁵⁷⁾ 신경득은 손창섭의 소설을 50년대 소설 특유의 반항과 좌절의 희화로서 보았다.⁵⁸⁾ 조현일은 그의 소설에서의 인물 제시가 허무주의의 원형을 보여준다고 보았다.⁵⁹⁾ 이후 1990년대 중반 이후로는 보다 다양한 관점의 해석이 시도되면서 그의 소설 속 인물 형상화의 주제를 뛰어넘는 연구들도 나오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볼 때 손창섭에 대한 “문학사적 의의를 구명”하려는 시도들이⁶⁰⁾ 이어져 오고 있다. 하지만 손창섭 소설은 전반적으로 작중 인물의 형상화에 대한 논의로 기우는 경향을 지울 수 없는데, 최근에는 그의 소설 속 인물에 대해 심리학적 접근에 이어 의학적 접근을 시도한 연구도 나오고 있다.⁶¹⁾ 본 논문의 소재가 된 소설 잉여인간은 손창섭의 1950년대 다른 소

54) 정창범, “손창섭론: 자기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2.): 41-48 ; 조연현, “병자의 노래,” **현대문학** (1955. 4.) 참조.

55)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문학** (1959. 9.) 참조.

56)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1973), 405.

57) 정호웅, **1950년대 문학연구** (서울: 예하, 1991) 참조.

58) 신경득, “반항과 좌절의 미학,” **월간문학** (1978. 12.) 참조.

59) 조현일, “허무주의 심연과 극복의 노력: 손창섭론,” **한국전후문학연구** (서울: 삼지원, 1996), 241-259.

60) 김명임, “손창섭 소설 연구: 인물구조와 그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6.

이러한 추세 속에서 1996년 『작가연구』 창간호에서는 손창섭 특집이 실리기도 하였다.

61) 심영덕, “손창섭 소설의 심리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조두영,

설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실존주의와는 다소 거리가 있는, 사실주의 소설에 가깝다.

“손창섭 초중기 세 단편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유실몽, 설중행, 잉여인간을 대상으로,” **정신분석** 12, 2 (2001): 253-260.

제4장 형상화된 치과의사로서의 서만기 분석

제1절 소설 잉여인간 속 등장 인물의 특성

1950년대 전후 소설은 전통 사회적 특성들이 해체되기 시작하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특성들이 본격적으로 자리잡기 시작한 시기의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소설 속의 서만기 역시 종래의 전통적인 주인공 남성상과는 근현대의 서구 사상의 영향 속에서 탄생한 인간상이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 그 이전의 식민지 시기에도 서구 사상은 한국의 작가들에게 이미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었다. 많은 문학가들은 낭만주의, 사실주의, 자연주의, 실존주의, 초현실주의 등 이미 1920년대 및 1930년대에 서구 문화 사조의 영향을 받은 바 있었다. 하지만 사회적으로 볼 때는 해방 직후까지도 농촌의 촌락 공동체를 바탕으로 한 집단주의적 사고 및 가치관이 한국 사회의 주된 특성이었다.⁶²⁾ 서구에서 들어온 문화 사조는 서울 등 일부 도시들에서 지식인 층 및 문학, 예술가들에 영향을 미쳤을 뿐이었다. 더욱이 문화 전반의 지배적인 경향은 해방 전까지는 민족주의적인 정서가 중심이었으며 그와 함께 중요하게 영향을 미친 사상은 서구의 대표적인 정치 사조였던 사회주의였다. 결코 해방 전까지 우리 사회가 서구의 낭만주의나 사실주의 등의 문화 사조를 순수하게 만끽할 상황이 못되었기 때문이었다. 6.25전쟁을 거치며 농촌의 공동체적 생활터전이 붕괴하고 도시 인구가 급증하면서 서구의 문화 사조가 보다 강력한 영향력으로 한국 문

62) 가령 미군정기(1945-1948) 공보원의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한국 농촌 마을의 폐쇄성과 상명하달체계를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학교에 가거나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 먼 이상의 읍내에 나가는 것을 제외하고는 마을을 벗어난 교류를 거의 하지 않고” 지내므로 시골 마을이 별개의 삶과 사상의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리고 이러한 폐쇄성이 오히려 서울과 지방의 상명하달 관계를 강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

김보미,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화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1950년대에는 민족주의적 경향과 사회주의적 경향을 대신해, 식민지 시기에 미약하게나마 명맥을 이어온 순수 문학이 문단의 주를 이루게 되면서 전술한 바와 같이 실존주의가 확산되어 나갔다.

잉여인간과 같은 사실주의 소설에서는, 작가가 현실의 무수한 사람들 중에서 선택한 몇 명의 인물들이 역시 작가가 설정한 배경⁶³⁾ 속에서 걸 어다니게 된다. 소설 속에 등장하게 된 인물은 자신을 둘러싼 환경 속에서 역동적으로 상호관계를 맺어 나가게 됨으로써 소설의 서사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이 때 그 인물이 자신을 둘러싼 환경과 맺어 나가는 관계가 곧 인물의 형상화를 이루게 된다.⁶⁴⁾ 「잉여인간」에는 천봉우와 채익준, 서만기 세 명의 중학 동창 친구가 중심 인물로 나오는데 어떠한 인물이 주인공이라고 하기 힘든 독특한 구조를 띤다.⁶⁵⁾ 그리고 이 세 명과 관련된 여자 등장인물들 또한 소설의 긴장 관계를 흥미진진하게 엮어내는 역할을 하면서 소설의 전개에 있어 없어서는 안될 존재로 등장한다. 특별한 기승 전결의 플롯을 담아내기 보다 이러한 인물들 간의 상관 관계 그리고 인물의 성격 자체가 소설의 중심 주제라는 점에 이 소설의 특징이 있다.⁶⁶⁾ 특

63) 여기서 말하는 배경은 소설의 사회적 조건이 된다. 잉여인간의 경우는 위에서 언급한 1950년대 후반 한국 사회의 모습, 특히 도시 외곽의 풍경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64) 조정래,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서울: 평민사, 1991), 76.

65) 이 소설에서 치과의사 서만기는 여러 명의 주인공 중 한 명이며 결코 단독 주인공의 역할을 하는 인물은 아니다. 소설이 발표된 해 “200매의 위대한 실패작”이라는 이어령의 비평이 나온 것도 이러한 복수의 주인공을 내세운 내용적 형식에 기인한 바 컸다.

이어령, “1958년의 소설 총평, ”**사상계** 65 (1958.12): 125.

66) 이 소설에서는 서사적인 측면에서 분석할 내용이 그다지 보이지 않는다. 특히 서만기의 경우 소설 속에서 그가 겪은 일은 특별한 게 없다. 건조하게 말하자면, 친구 아내의 유혹을 뿌리쳤고 또 다른 친구의 아내가 죽었다. 게다가 친구 아내의 유혹을 뿌리친 후에는 소설에서 그나마 유일하게 작동하던 긴장 요인, 즉 서만기 치과의원의 운명에 대해서 아무 결말도 나지 않은 채 서사가 중단돼 버린다. 또 다른 죽은 친구의 아내와 서만기 간에는 사실상 아무런 관계도 없었으므로 서사가 전개될 개제도 아니

히 봉우의 아내는 서만기 치과의원이 세 들어 있는 건물의 주인으로서 소설 속 갈등 구조의 중요한 축을 형성한다. 한편 채익준은 소설에서 소위 비분강개파로 나온다. 신문에서 나오는 사회적 범죄사건에 극도의 적대적 반응을 보이는 인물이다. 하지만 직업은 없으며 서만기 치과의원에서 하는 일 없이 환자 대합실을 지킬 뿐이다. 그런가 하면 천봉우는 무슨 일에도 관심이 없고 무기력한 인물이다. 역시 직업은 없고 환자 대합실에서 시간을 보낼 뿐이지만 간호사 흉인숙을 연모하고 있다. 그리고 서만기는 치과의사로서 그의 개인의원을 운영하며 소설의 배경 공간을 제공하는 인물이다. 그리고 그는 손창섭의 50년대 단편소설의 주인공들 중에서는 다소 이례적인 특성을⁶⁷⁾ 보여준다. 즉 정체성의 인식에 혼란을 느끼거나 무력하지 않은, 오히려 사회적 가치 체계 속의 긍정적인 요소들을 극단적으로 내면화한, 확고한 자아 인식을 가진 주인공이다.⁶⁸⁾

손창섭의 소설에 대한 무수한 연구들 속에서 잉여인간 만을, 특히 서만기를 집중적으로 탐구한 연구는 따로 존재하지 않지만, 인물에 대한 화자의 묘사를 통해, 그리고 내용 전개 과정에서 작중 인물인 서만기가 하는 말, 그리고 행동 등을 통해서 그의 인간상을 보다 정밀하게 살펴볼 수 있다. 서만기라는 인물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면 그는 매우 전형적인 고전

다. 게다가 두 친구의 아내와 관련된 사건에 서만기가 보인 반응은 화자가 묘사한 그의 성격으로 비추어 보아 응당 예견되는 태도였다. 결과적으로 이 소설에선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중요하게 이야기되고 있을 뿐이다. 그럼에도 이 소설이 흥미를 주는 요인은 손창섭 작가가 가진 인물 형상화의 탁월한 자질, 즉 50년대의 전후 시대상을 빈약한 서사구조에도 불구하고 인물의 성격 속에 효과적으로 녹여냈던 능력과 작중 인물 간의 소설적 의사 소통이 뛰어난 데에서 연유한다고 볼 수 있다.

67) 물론 잉여인간 외에도 손창섭은 서만기와 같은 긍정적 인간상을 제시한 소설을 발표한 바 있긴 하지만 그다지 주목을 받지 못했다.

68) 그리고 이러한 결점 없는 인간형을 손창섭이 “모범생을 비꼬는 말투 한번 없이 긍정적으로 그려낸 것”도 역시 놀라운 사실이라 할 수 있다. 바로 이 점이 소외되고 병든, 그러면서도 일그러진 인물들을 그리는 데 열성적이었던 작가가 단편소설 창작 후반기에 들어와서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이기도 하다.

홍지수, “손창섭 소설의 인물 유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소설의 주인공 남성상을 보여준다. 우선 조선 시대 고소설 주인공들의 특징인 인물의 전형성, 즉 그 시대의 정신 혹은 계층을 대표하는 인물로서 서만기가 제시된다. 사실상 전후 소설 속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통제하기 힘든 전쟁 상황을 고려한다 하더라도 대부분 적극적 행동 보다는 심리적 수용을 통해 환경에 대응하거나 환경에 지배당하는 인물들이 다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⁶⁹⁾ 다른 작가들의 작품 속 주인공과 달리 「영여인간」 속 서만기의 모습은 그 시대 정신을 대표했다기 보다는 그 시대가 필요로 하는 정신의 이상형을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이 점은 춘향전을 비롯한 고소설의 주인공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서만기에게서 개성적인 인물로서의 자질들을 읽어 내기는 쉽지 않다. 그런가 하면 성격의 변화가 없는 평면적인 인물이라는 점에 있어서도 고전 소설 속 주인공과 같다. 작가 입장에서 서만기가 입체적인 인물이 되기에는 소설 속 다른 비중 있는 인물들이 많아 단편소설 상 한계가 있었을 것이다. 성격 묘사에 있어서도 고전 소설의 특징인 직접제시(direct presentation)방식을 취하고 있다. 사실 서만기에 대해 고전 소설 주인공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데에는 작중 인물의 특성뿐 아니라 이러한 묘사 방식에 기인하는 바도 크다. 즉 화자가 사실상 신적인 위치에서 작중 인물의 행위나 생각뿐 아니라 그의 성격 및 그러한 성격 형성에 관계된 요인들까지 독자에게 직접 얘기하거나 소설 속 다른 인물의 입을 빌어 얘기한다. 현대 소설은 대부분 소설 미학적으로도 직접적인 말하기 보다 간접적인 드러내기를 선호하는데⁷⁰⁾ 반해, 서만기는 화자가 그의 인품이나 외양을 친절하게 특징을 잡아서 분석하고 요약해주며 종합적으로 판단 내리기까지 한다. 물론 대화와 그의 행위를 자세히 설명함으로써 독자가 유추하게 하는 간접제시(indirect presentation) 부분도 있으나 그 비중이 작가의 다른 소설 속 주인공들에 비하면 훨씬 작다.

69) 이국환, “한국전후소설 인물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70)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184-185.

하지만 다른 한편으로 서만기는 고전소설의 주인공이 가지는 일반적인 성격, 즉 모험적이고 진취적인 외향적 경향성과⁷¹⁾ 구분되는 침착하고 인내하는 내향적 경향성을 보여준다. 그런가 하면 고전 소설 속 주인공들처럼 전통적인 유교적, 가부장적 사고 관습을 직접적으로 드러내거나, 혹은 그로부터 일탈을 시도하고 있지도 않다.⁷²⁾ 이러한 점들에 있어서는 고전 소설의 주인공들과 어느 정도 거리를 둔다. 더 나아가 치의학과 치과 의사라는 그의 직업과 관계된 부분들을 통해 당시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친 서구 근대적 사상과의 관련성을 읽을 수 있다.⁷³⁾ 본 연구에서는 고전소설 속 주인공들에게서 볼 수 있는 전형적 특징이나 기존의 전통적, 관습적 가치관을 표상하는 부분들과는 구별되는, 1950년대의 시대적 특성과 작가 정신이 드러나면서도 다른 소설의 주인공들과는 이질적인 특성들에 보다 주목하고자 한다. 즉 서만기라는 인물형이 가지는 1950년대 사회적 배경 속의 독특성에 초점을 맞추어 치과 의사로서 독특하게 형상화된 서만기를 분석해보고자 한다.

71) 홍길동전의 홍길동이나 구운몽의 양소유가 이런 경우에 해당한다.

72) 김경미, “고소설 남성인물의 형상화: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 (1999): 75-91.

73) 의사의 경우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한국 근대 소설에서 그다지 긍정적인 모습으로 비춰지지 못했다. 이기주의, 상업주의, 귀족주의와 같은 이미지로 형상화되는 경우가 많았다.

조남현, **한국현대작가의 시야** (과주: 문학수첩, 2005), 207-248.

제2절 서구 근대의학의 틀로 바라본 서만기

1950년대의 사회적 배경 속에서 소설 잉여인간의 주인공 서만기는 작중 다른 인물과 달리 서구 근대성을 비교적 충실히 체현하고 있는 인물이다. 이를 드러내는 방식도 단순히 근대적 학식에 관한 주인공 인물의 직접 설명이나 화자를 통한 계몽적 의견 제시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보다는 서만기가 그러한 인간상으로 창조된 배경은 상당부분 치과의사가 되기까지 그가 공부했던 치의학의 근대의학적 성격과도 관련이 깊으리라 유추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단순한 근대성의 이식이 아닌 이를 넘어서는 성찰의 깊이 또한 보여주는 인물형이기도 하다. 이는 기본적으로 그가 매우 내향적인 그리고 신중한 인물로서 묘사되고 있는 것과 관계가 깊다.

서구근대의학은 당시 제국주의의 침략적 지배를 받았던 한국인의 정서 속에서 제국주의의 권력과 권위를 상징했던 잔상이자⁷⁴⁾ 동시에 일본에 의한 식민지 역사를 넘어설 수 있게 해주는 서구의 문화적 선진성을⁷⁵⁾

74) 서양의학은 전통의학보다 과학적으로 특별히 우수한 점을 갖추었다기 보다는 제국주의적 침략의 과정에서 수용 또는 이식되었으며 이후 식민지배의 도구로써 활용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자면 피식민지인들은 몸과 정신을 이원론적으로 파악하는 서구인들에 의해 자신의 몸으로부터 자신이 타자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종찬, “전통의학을 보는 오늘의 시각: 동아시아 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학 새로운 삶**, 전세일, 전홍준, 오홍근 엮음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82-88.

이영아는 구한말 역사를 배경으로 하는 서구근대의학의 유입에 대해 자신의 책에 자세히 묘사한 바 있다. 저자는 조선을 상징하는 병든 육체가 문명을 상징하는 서양 의학에 의해 치료받는다는 식의 식민주의 담론의 오리엔탈리즘이 당시 개화기 신소설 속에 내면화 되어갔음을 지적한다. 즉, 구한말 이래로 한국 지식인들의 사고 속에서도 서구 근대의학이 조선의 전근대적 구습을 혁파하기 위한 하나의 치료 도구로 수긍되어왔다는 것이다.

이영아, **육체의 탄생: 몸, 그 안에 새겨진 근대의 자국** (서울: 민음사, 2008), 49-70. 이에 반해 신동원은 서양의학으로 인해 한국 의학사의 흐름이 전근대와 근대로 선명하게 분절되어 인식되는 것에 회의적인 의견을 주장한 바 있다. 구한말 서양의학은 단순히 이식되었다기 보다는 대한제국 정부 시기 주체적인 의료체계 확립 노력이 시도되었던 바와 같이 능동적으로 수용되었던 측면이 강했음을 지적하였다.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437-440.

상징하는 지식이기도 했다. 가령 식민지 시기 경성제국대학 의학부를 둘러싼 일제와 식민지 사회 사이의 지적 대결 구도는⁷⁶⁾ 그러한 양상을 반영하는 것이기도 했다. 민족사학의 도식으로 설명하자면 식민지 시기 민족주의 인사들은 애국계몽 운동의 일환으로 의학 지식의 연마와 보급을 중요하게 인식하였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의사 집단이 가지고 있던 학문적 권위는 다분히 그러한 서구근대 의학의 이중적 이미지에 힘입은 바 컸다. 이는 국민국가 건설 이후에도 의료시장에 대한 효과적인 지배와 높은 사회적 지위로 이어지게 된다. 치과 의사 역시 마찬가지여서, 이는 소설 속 서만기가 다양하고 고상한 교양을 갖추고 있는 데 대한 자연스런 합리화이자, 소설 속에 함께 등장하는 남자 주인공들과의 선명한 대조를 이루게 하는 소설적 장치로 작용한다.

작가의 다소 과잉된 전지적 서술방식이 소설 전반을 지배하고 작가의 서구지향성이 부분부분 노골적으로 드러나긴 하지만, 서만기는 매우 침착하고 신중하게 자신이 처한 상황에서 일정한 거리 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 특징적이다. 서만기의 이러한 모습은 보다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접근하는 동시에 상황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을 때까지 자신의 판단을 유

75) 19세기 후반 청일 전쟁 직후 충격에 빠진 중국의 지식인들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에 심취한 바 있었다. Kang유웨이(康有爲)는 일본과 중국의 의료를 비교하면서 메이지 정부가 일본의 전통의학을 폐기하고 독일식 서양 의학을 모델로 받아들임으로써 일본이 근대로 나아가게 되었음을 주장하였는데, 이는 서구 근대 의학이 국가의 자강 개혁을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인식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종찬, 근대 중국에서 의학의 문화적 헤게모니: 근대화론자와 신정통주의사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1900년대~1930년대, 『의사학』 12, 1 (2003. 6.): 13-33.

이후 중국과 반일 정서 및 경험을 공유하는 한국에서도 서구근대 의학을 바라보는 이러한 인식의 영향은 강하게 나타난다. 박윤재는 일제 강점기에도 한국의료는 그 전후 시기와의 연속성에 입각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는데, 조선총독부의 식민 통치 하에서 한국 의료의 자발적인 발전 가능성이 억압되고 굴절되었던 상황을 감안 하더라도 서구 근대 의학이 식민지 시기 한국인들에 의해 지속적으로 수용된 과정으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의사학』 19, 1 (2010. 6.): 59.

76) 정준영, “식민지의학교육과 헤게모니 경쟁: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5 (2010): 197-237.

보하는 실증적인 근대적 지성의 태도를 보여준다.⁷⁷⁾ 소설 속에서 친구 채익준이 한국 사회의 부도덕성과 후진성을 개탄하는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온다. 사회적 부조리와 모순에 온몸으로 저항하는, 마치 현대사의 굴곡을 자신의 성장 과정 속에 온몸으로 체험한 작가 자신의 항변과도 같은 이야기였다. 바로 그 부분에서, 즉 소설 속 익준이 극히 흥분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늘어놓았을 때 서만기가 했던 다음의 행동이 그런 것이었다.

그래서 만기는 몇 마디 반대 의견을 말해 본 일이 있었다. 어쨌든 그 외국 기자가 한국에 대해서 호감을 갖고 보지 않았다는 것만은 사실인 이상, 국교상의 우호 관계로 보아서도 경솔한 태도였다는 비난을 면할 수는 없었다는 점과 어느 나라 치고 도둑이 없는 나라란 있을 수 없을 터인데, 정도가 좀 심하다고 해서 왜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없었는가 하는 객관적인 원인과 이유를 밝히는 일이 없이 일언지하에 대뜸 도둑의 나라라고 단정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 피상적 관찰에만 치우친 편견이 아닐 수 없다는 점을 들어서 만기는 은근히 익준의 소견을 반박해 보았던 것이다. 그랬더니 익준은 대번에 안색이 달라져 가지고 만기에게 대들 듯 덤비었다.⁷⁸⁾

하지만 서만기의 경우 그러한 서구근대의학의 학문적 권위에 사회경제적으로 편하게 의존해 품위 있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데 만족하는 의사상으로 묘사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고 체 게바라(Ernesto Che Guevara)처럼 혁명적으로 근대적 저항정신을 불태우거나 하는 모습과도 거리가 멀다.

77) 조르쥬 캉귀엠(Georges Canguilhem, 1904~1995)의 경우 단순 임상 경험에 의존한 환자 치료 수준에 머물렀던 근대 이전 의학과 달리 과학적 접근방식을 핵심적인 요소로 차용한 서구 근대의학의 특징을 ‘의학적 합리성’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Georges Canguilhem, **생명과학의 역사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합리성**, 여인석 옮김 (서울: 아카넷, 2010), 39-54.

78) 김동리 외 3인 엮음, **한국단편문학전집 10** (서울: 문성당, 1976), 131.

이하 본 논문에서 인용되는 소설 「잉여인간」의 발췌 부분은 분량이 많지 않은 단편 소설인 점을 고려하여 페이지 별로 각주를 따로 달지 아니하며, 위 책에서 모두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그보다는 근대성의 지적 수준을 선취한 모습이면서도 그러한 중심적 권력의 위계성에서 철저하게 소외돼있는 현실적 조건과 그 속에서 드러나는 그의 진중한 태도는 서구근대성의 권위나 진보성과는 다른, 그 근대성 자체에 대한 성찰을 상징하는 모습에 가깝다. 이는 치과의사로서 묘사된 서만기의 생각과 행동 양식에서 간접적인 방식으로 형상화되어 나타난다.

편지를 읽고 난 만기는 언제나 다름없이 침착한 태도로 알맹이를 도로 접어서 봉투 안에 집어넣었다. 그의 손끝이 가늘게 떨리었다. 인숙이만이 재빨리 그것을 눈치 챌 수 있었다. 만기는 편지를 서랍 속에 간직하고 나서 그 편지를 갖고 온 남자에게 친절한 태도로 시 설을 보여 주었다. 남자는 의료 기구상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도 기계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것 같았다. 그 남자가 돌아간 뒤 만기는 자기 자리에 앉아서 담배를 피워 물었다. 몹시 피로해 보였다.

작가가 그런 의도나 그런 지식과 정보를 가지고 서술했을리 없는 이 문단 부분은 서만기의 상황과 그의 생각의 행로를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는 치과의사라는 전문직업성 이전에 치의학이라는 서양의학을 통해 서만기를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즉 서만기라는 인물에는 서구 근대의학의 역사가 가지는 근대성에 대한 성찰이 투영되어 있다.

프랑스 시민혁명 이후 근대의료는 공중보건의 개념을 통해 국민적 권리로서 인식되어지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는 국민국가 시대의 새로운 사회적 요구사항이 반영된 모습이기도 했다⁷⁹⁾. 하지만 서만기의

79) 18, 19세기 치열한 유럽의 정치사적 국면 속에서 근대의학은 보건위생과 함께 부국강병책의 일환으로 인구관리를 위한 국가체계 안으로 포섭된다. 그럼으로써 국가권력과 모종의 상관 관계를 맺게 된다. 로젠(G. Rosen)이 언급했던 경찰적 의료(*medical police*)는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개념에 해당한다.

이중찬 편저, **서양의학의 두 얼굴** (서울: 한울, 1992), 113-185.

황상익의 경우 “의술의 근대성”이 확보되기 위해서는 근대 국민국가의 성립과 같은 배경, 즉 “좁게는 보건의료 체계, 넓게는 한 사회의 성격이 근대적인 모습으로”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이 전제되어야 함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가치관에는 이러한 집단적 권리의 신장 등 취득적이고 공격적인 선언들 또한 내면에서 유보된 모습이다. 그는 가족 안에서 자발적으로 희생하며, 이를 힘들다고 인식하기 보다는 그 안에서 사랑을 확인한다. 어떤 의미에서는 공동체적 화합과 사회 전체적 질서를 중시하는 농경사회의 전통적 사고방식이 느껴지기도 한다.

서만기는 치의학의 서구근대성을 1950년대 한국적 상황에서 충실히 체현하면서도 그 근대성에 대한 성찰적 사고를 행하는 인물형으로 간접적으로 제시되고 있다. 다른 과학 분야와 달리 의학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인간성의 영역과 관련하여 서구 근대성의 한계를 고민하는 성찰의 자세가 서만기라는, 작가가 창조한 극히 진중한 인물형에 조심스럽게 투영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인물형의 창조에는 역사성의 관점에서 검토될 만한 어떤 의미 요소가 담겨져 있다고 볼 수도 있다. 역사적 관점에서 서구 근대성을 대표하는 과학인 의학은 여러 상충하는 의미들이 그 내부에서 경합을 벌였던 서구근대성의 의미 경연장으로서의 경험을 내포하고 있다.

서양의학의 근대성은 18, 19세기를 거치면서 서구 근대의 과학적 발견과 사회적 변화를 배경으로 구축되었으며, 실제로 현대에 와서 유럽의 정치적, 사회적, 철학적 근대성에 대한 담론의 논의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영역 중 하나이기도 하다⁸⁰⁾. 그리고 이러한 근대성과⁸¹⁾

황상익, **근대 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16-18.

80) 특히 이러한 의학의 근대성 담론에 가장 기여한 사람 중 한 명이 푸코(Michel Foucault : 1926 - 1984)이다. 그는 근대의학이 형성되게 된 토대로서 임상의학에서의 실증성의 기원을 탐색하였다. 푸코에게 의학의 실증성은 임상해부학에서 신체와 질병, 언어와의 관련성에 대한 분석 및 확립에서 비롯된다.

이종찬,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의사학** 3, 2 (1994): 202-217.

81) 이와는 달리 인류학자 찰스 레슬리(Charles Leslie) 등 서양의학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학자들은 '근대의학'이라는 명칭이 근대성과 전통주의라는 이분법적 혼란을 야

관련하여 서양의학의 역사 속에서 질병과 인간에 대한 성찰의 문제는 꾸준히 제기 되어 왔다.

가령 근대성이 서서히 도래한 18, 19세기에 앞서 뉴턴과 데카르트 등으로 대표되는 16, 17세기의 이성은 크리스도교적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인간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그 주변의 자연 환경에 대해서 철저한 사유와 관찰로서 그 구조의 본질 내지 작동의 원리를 정립하고자 했는데 이는 기계론적 우주관 내지 생명관으로 비판받기도 하였다. 물론 이러한 과학적 이성으로의 편향은 신적인 세계관으로부터 인간 자신을 탈출시키기 위한 몸부림의 일환이기도 했다. 그럼에도 근대 이전의 의학적 사유는 아직 종교적 영성의 울타리를 완전히 벗어나진 못했다.⁸²⁾

인간에 대한 또 다른 성찰의 문제는 이후 의학의 발전과 궤를 함께 하며 계속 이어진다. 가령 18, 19세기 유럽에선 인간의 질병에 대해 크게 두 가지의 이전과는 다른 관점이 차례대로 나타났다. 첫 번째로는 의학적 발견을 통해 확립된 신체의 구조와 기능을 기준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분 지음으로써 질병을 접근하는 질병분류학적 관점이다.⁸³⁾ 이는 다양한 증상과 징후의 면밀한 관찰로서 질병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려 한 18세기 계몽주의시대 고전주의적 의학의⁸⁴⁾ 성과였다. 두 번째로는 원인을 가시적

기한다고 보았다.

이종찬, **동아시아의학의 전통과 근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61.

82) 베살리우스(Andreas Vesalius)는 결국 교회의 적대감 속에 그의 책이 불태워지고 강당에서 내쫓겨 에스파냐 궁정에서 의사생활을 하며 말년을 보냈다. 결국 그는 젊은 날의 해부학 연구로 다시 돌아갈 수 없었다.

예병일, **내 몸을 찾아 떠나는 의학사 여행** (파주: 효형출판, 2007), 59.

83) 권복규, “근대의학의 의학론,” **의사학** 13, 1 (2004. 6.): 146-154.

84) 푸코에 따르면, 서양의학사에서 근대가 시작된 시기는 18세기말에서 19세기 초이며 그 전 18세기 중엽까지가 고전의학 시기라 할 수 있는데, 근대의학인 임상의학은 고전의학과의 상호작용 및 투쟁을 거쳐 구성된 것으로 본다. 푸코는 고전의학에서의 질병은 “일반적 특성의 집합에 의해 규정되는 추상적 본질”을 갖는 것으로서 “특정 개인과는 무관한 것으로 바라본다.” 이러한 고전 의학의 대표적 학문적 관점은 질병분

으로 밝혀내려는 시도로서 해부병리학의 성립으로 귀결된 질병에 대한 실증적 관점이다. 근대적인 사립탐정으로 탁월하게 형상화된 설록 흠즈의 모습처럼 19세기 의학은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는 단서 찾기에 매달렸다. 18세기에 들어오면서부터 나타난 이러한 의학의 변화는 의학이 이전의 단순 치료술 내지 사변적 개념체계로서가 아닌, 경험론적 철학 기반 위에 실증적 방법론을 차용한 지식 체계로서의 면모를 띠게끔 만들었다. 특히 그 이전까지 의학지식을 구조화 하고 규정지위는 관념적인 형이상학으로부터 이탈하여 의학이 사실상 자연과학의⁸⁵⁾ 성격을 띠기 시작한 점은 중요한 변화였다.

하지만 의학이 질병에 대한 태도에 있어서 관찰에 기반한 실증적인 인식으로 경도되는 현상에 대해 당시 기존의 의사들은 비판적인 시선을 가지고 있었다.⁸⁶⁾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학의 과학화는 19세기 후반 전염병

류학으로 구체화된다고 할 수 있다.

허경, “근대 임상의학 및 생명 담론의 변화: 미셸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23 (2012): 50.

85) 이는 과학을 자연과학(natural sciences)과 사회과학(social sciences)으로 나누는 경우에 의학이 전자에 해당함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자와 후자는 경험과학(empirical sciences)을 구성함으로써 형식과학(formal sciences)과 구분된다.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167.

엄밀하게 이야기 하면 19세기 의학의 과학화 내지 과학적 의학의 확립은 18세기말부터 나타난 프랑스 파리를 중심으로 한 임상의학, 즉 병원의학과 19세기 중엽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한 실험의학으로 대별할 수 있다. 전자는 시체부검과 증상, 증후의 조사를 시행하긴 했지만 질병에 대한 규정의 기준을 논하고 증상, 증후에 대한 통계에 역점을 두었던, 말하자면 그 이전 고전의학이 가지고 있던 철학적, 형식과학적 성격이 미약하게 남아있는 것이었다. 반면 후자는 생리학적 실험을 바탕으로 한 전형적인 경험과학적 성격을 바탕으로 한 것이었으며 19세기 말 독일의 대학 및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한 임상과학으로 발전해나가게 되며 오늘에 이르게 된다.

Roy Porter 책임 편집,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여인석 옮김 (서울: 네모북스, 2010), 126-127.

86) 가령 19세기 전반 “파리의 대규모 병원에서 행해지는 과학적 의학이란 미국 의사들이 보기에는 적절한 치료를 거의 해 주지 않으면서 환자들을 지식을 추구하는 대상으로 취급하는 것이었다”

김옥주, “서양 근대 이후의 의사의 정체성,” **의사학** 14, 1 (2005. 6.): 55.

관리와 외과수술의 비약적인 발전을 초래함으로써 사회적 권력을 획득하게 만들었으며⁸⁷⁾ 이로써 서구에서의 의학의 지위는 이른바 근대 정신을 상징하는 위치에 올라서게 되었다. 하지만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민족주의 등이 각각 배타적인 아성을 구축하고 기승을 부렸던 산업화 초기 19세기의 어두운 면인 미성숙한 야만성은 의학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드러나게 되었다.⁸⁸⁾ 그로 인해 인간을 살리는 것이 아닌 질병의 색출 처단을 목표로 하는 근대의학의 미숙함은⁸⁹⁾ 환자에 대한 전신적인 관리나 돌봄을 상대적으로 소홀히 하게 되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기 시작했다.⁹⁰⁾ 의학의 근대성에 대한 비판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⁹¹⁾

87) 전문직으로 인정받음으로써 이러한 권력에 편승하고자 “19세기말과 20세기 초 서구의 대부분의 의사들은 과학이라는 수사학을 기꺼이 사용”하기에 이른다.
위의 논문: 63.

88) 이미 과학적 의학은 “그것이 섬기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의 산물”이며, 의사들은 특히 중산층 시민들의 죽음과 질병에 점점 깊이 관여하고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구 의과학은 그 정신적 차원에서 17세기 과학혁명의 시대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시기는 종교전쟁이 일단락되면서 청교도주의에 영향을 받은 자본주의의 진전이 일어나고 있던 시기에 해당한다.
Roy Porter, 89-97.

89) 결국 이러한 질병관은 환자로 하여금 자신의 “몸에 대한 주체성을 상실하고 의사의 권위에 복종”하는 관계를 초래하는데 일조했다고 볼 수도 있다.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과주: 집문당, 2006), 3-4.

90) 의사 사회 내부에서 의학을 art(기예)로 볼 것이냐 science(과학)로 볼 것이냐는 의학의 근대성에 관한 논의는 의사의 자율성에 관한 논쟁으로 진화하여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핵심 쟁점이 되기도 한다.
Matthew K. Wynia, “The Short History and Tenuous Future of Medical Professionalism : the erosion of medicine's social contract,”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51, no. 4 (2008): 565-578.

하지만 전반적으로 20세기 중반까지 의학의 권력과 지위는 나날이 높아졌기에 “한참 잘 나가고 있는 의료계의 귀에 이런 충고가” 들어올리 없었고 그 영향이 미미하였다. 물론 환자의 질병을 심신적 현상으로 간주하는 주체의학을 주장한 빅토르 폰 바이츠제커(Viktor von Weizsäcker)와 같은 의학적 인간학의 시도가 20세기 전반기 유럽에서도 나타나기는 하였으나 이러한 비판을 의학 내부에서 진지하게 검토하는 분위기는 크게 주목을 끄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다.
권상욱, “철학은 의학에 얼마나 필요한가,” **서강대학원신문**, 2013년 6월 12일, 7.

91) 이에 대해서 프랑스의 마르크 퓨마롤리(Marc Fumaroli : 1932 -)와 같은 학자는 “생물학과 의학의 발전으로 야기된 기술적 문제들이 윤리적이고 감정적인 분야에서 초래한 결과들은 본질적으로 생물학이나 의학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다른 한편으로 근대의학의 영향으로 서구인들은 자신의 몸과 자아에 대한 인식도 새로이 해나가게 되었다.⁹²⁾ 그리고 생물학과 의학에 있어서 다윈(Charles Darwin)의 진화론이나 갈바니(Luigi Aloisio Galvani)의 전기생리학은 인간의 정신을 신경해부학적 결과물로 상당부분 환원시킴으로써 인간의 자유의지의 절대성을 위협했다.⁹³⁾ 이러한 환원론과 비결정론의 대립은 인문학(humanities)과 과학(science) 간의 깊은 골을 드러내 보여주기에도 하였으며, 과학 내부에서도 환원결정론과 사회적 구성주의 등의 논리적 대립을 첨예화시켰다.⁹⁴⁾ 그러한 깊은 골짜기의 현현은 다음 세기 자유주의와 전체주의의 대립,⁹⁵⁾ 그리고 문화적으로는 사실주의로부터 실존

주장한다.

Yves Michaud 등, 489.

92) 전통사회의 공동체 속에서 개인의 몸은 자연과 우주의 일부분으로 공동체의식 속에서 존재했으나 해부생리학을 통해 변화된 신체관이 반영된 근대의학의 영향으로 개인의 몸은 타인과 구분되었다. 이는 개인주의의 시각을 바탕으로 한 자아에 대한 성찰적 태도의 반영이기도 했다.

David Le Breton,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홍성민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39.

93) 현대의 생물학적 성과에 기반을 두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결정론적 관점에 직면하여 많은 현대 철학자들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관한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지속적인 논의를 해왔다. 가령 노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는 1920년대에 유기체메커니즘 이론을 통해 자유의지의 가능성을 대변한 바 있지만 이후 현대의 분자생물학적 발견(가령 고정기능성 개념의 확립 등)에 의거하여 인정될 수 없는 가설이 되어버렸다. S. Jonathan Singer, **자연과학자의 인문학적 이성 죽이기(The Splendid Feast of Reason)**, 임지원 옮김 (서울: 다른세상, 2004), 161-171.

하지만 철학 분야에선 자유의지와 관련하여 비결정론적 입장의 학문적 논박과 주장이 이어져왔는데, 가령 행위자 원인론(agent causation theory) 등의 논리가 그것이다. T. O'Connor, *Agents, Causes, and Events: Essays on Indeterminism and Free W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참조.

94) 강신익, “의학의 두 문화: 환원인가 구성인가?” **의사학** 11, 1 (2002): 1-19.

95) 사회과학적 측면에서 사회적 조건에 대한 인위적 통제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다양한 정부 주도형 정치 이념과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에 의거한 전체적인 창발성을 기대하는 자유주의적 정치 이념 사이의 갈등은 그 근본에 환원론과 자유의지 사이의 인식론적 상충이 놓여있다고 볼 수 있다. 이 논쟁은 일찍이 중세적 철학의 안개가 걷히면서 칸트를 위시한 자유주의의 원조 철학자들이 논점 선취한 영역이었지만, 산업화가 초래한 불만 위에서 자칭 사회주의자들이 새로이 자유주의자들과의 논쟁에 뛰어들었다. 그리고 전 세계엔 지금도 그 논쟁이 수많은 결가지들을 통하여 계속되어 오고 있다.

주의로의 전환을⁹⁶⁾ 예기하는 상황을 가져왔다. 철학적 측면에서 근대의학은 보다 근본적인 성찰의 시대가 도래하는 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20세기에 들어와서 임상의학은 과학의 이론적 바탕(특히 세포생물학 내지 분자생물학)과 연계되어 비약적인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이어졌다. 반면 상대적으로 의학 자체에 대한 철학적 비판, 가령 현대의학에 대한 독일 실존철학이나 해석학적 문제제기⁹⁷⁾ 등은 그다지 주목을 끌지 못함으로써 현대의학은 사실상 철학의 견제를 받지 않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다. 이는 근대의학의 형성 과정에서 인간의 신체와 질병에 대한 보다 객관적 이해 노력이 그에 대한 부정적이고 회의적인 시각과 맞서 싸우면서도 철학적 성찰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사실과 대조를 이루었다.

삶의 주체성 탐구와 같은 실존주의적 고민은 손창섭 소설의 주된 주제이기도 했다. 또한 소설 잉여인간의 경우 치과의사 서만기는 서구근대의학에 대한 내면적 성찰을 느껴지게 하는, 지나치리만큼 진지한 인물형으로 묘사되어 있다. 그는 서구의 근대성에 1950년대 온 한국 사회가 열광할 때 거기에 편승해가기 보다는, 그 중심에서 벗어나 스스로 타자의 시선으로 당시 사회를 바라보던 존재로 (마치 20세기 현대의학에 대해 현대의 의철학이 그러했던 것처럼) 그려졌다.

96) 사실주의가 기본적으로 현실의 객관적 반영에 충실하는 입장에 있는데 반하여 실존주의는 본질적으로 내면의 의지 표출과 주관적 사고의 확대를 추구하는 입장에 있었다. 하지만 전자가 후자보다 선행된 사실은 크게 중요하지 않다. 어차피 사실주의 이전에는 실존주의보다 더 주관적인 낭만주의가, 낭만주의 이전에는 사실주의보다 더 객관적인 계몽주의 시대가 존재했다고 볼 수 있다. 인문학자와 예술가들은 과학자와 달리 변덕스럽게 환원론과 자유의지의 두 극단을 넘나들며 방황해온 이력을 갖고 있다.

97) Karl Jaspers, **기술 시대의 의사: 야스퍼스의 의철학과 심리치료 비판**, 김정현 옮김 (서울: 책세상, 2010) ; Hans-Georg Gadamer, (**철학자 가다머**) **현대 의학을 말한다**, 이유선 옮김 (서울: 몸과마음, 2002) 참조.
의학을 그 휘하에 품고 거느렸던 고대 그리스 철학의 시대와 달리 이러한 20세기의 의철학은 과학화를 선언하는 (그 학문적 기반은 여전히 철학적임에도 불구하고) 현대 의학을 견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니만큼 주위 사람들도 다 함께 괴로웠고 당사자인 만기는 더할 수밖에 없었다. 거기에 봉우 처마저 노골적인 추태로써 만기를 위협해 왔고 봉우와 미스 홍의 어쩔 수 없는 문제, 외면해 버릴 수 없는 익준의 암담한 가정 내막, 나날이 더 심해가는 경제적인 고통, 이런 복잡한 관계들이 뒤얽히어 만기의 마음속을 더욱 어둡고 무겁게만 해 주었다. 그러나 만기는 역시 외면의 잔잔함만은 잃지 않았다. 한결같이 부드럽고 품 있는 미소로써 누구에게나 친절히 대하기를 잊지 않는 것이다

그는 과학자적인 질병 진단 전문가로서의 면모보다는 가난한 치과 의사로서 주변 인물들의 생활적 고통을 자신의 온몸으로 감싸 안으려는 인물형으로 창조되었다. 문학비평가의 안목에서 본 소설 주인공으로는 실격이었지만, 자의식 과잉으로 나가지 않으면서도 치과 의사 서만기는 사회적 모순, 부조리 속에서 상실된 인간성을 되찾고 삶의 주체성을 확보하려 한, 말하자면 여느 실존주의 철학자보다도 더 실존주의적 면모를⁹⁸⁾ 보여준다.

제3절 전형적인 이상화된 인물형으로서의 서만기

잉여인간의 주인공 서만기에 대한 지금까지 평론가들의 일반적인 견해는 그가 이상적 인물형이라는 점이었다. 여기서는 그 이상화된 특성을 크게 두 가지로 고찰해보고자 한다. 하나는 물질적 곤란 속에서도 정신적 가치를 지향해 나간 점, 그리고 다른 한 가지는 성적 유혹에 대항해 가족적 가치를 지향해 나간 점이다. 그리고 이 두 요소는 부도덕한 성적 유혹을 경제적 협박을 통해 가해온 봉우처에 대해서 서만기가 보여준 태도에

98) 평론가 김상선은 서만기를 카뮈(Albert Camus)의 「페스트(La Peste)」속 주인공 베르나르 류와 비교한 바 있다. 김상선, 138.

서 일정하게 연결 고리를 갖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소설이 쓰여진 1950년대는 서구의 소비문화가 한국에 본격적으로 유입되기 시작한 시기에 해당한다⁹⁹⁾. 이러한 소비문화는 개인들의 자아개념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¹⁰⁰⁾ 사람들은 물질적 가치에 경도되어 갔으며 신분사회였던 조선 시대의 정신적 가치는¹⁰¹⁾ 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그 의미를 상실해 가고 있었다. 그러면서도 농촌 사람들은 아직도 “그들이 원래 속했던 신분을 예민하게 의식하며” 살아갔을 정도로¹⁰²⁾ 전통적이었다. 이러한 가치의 혼란기에 서만기라는 인물은 잉여인간 소설에서 비현실적일 정도로 강한 정신적 가치의 지향성을 보여준다.¹⁰³⁾ 그러한 이상적 면모는 소설 속에서의 그의 언행을 통해 드러나기도 하며, 작중 다른 인물의 입을 통해 간접적이지만 노골적으로 서술되어 있다.

지극히 인격이 고상하신 도학자 님의 웅졸한 취미를 저는 구태여 방해하고 싶지는 않으니깐요. 한편 저 같은 계집에게도 선생님 같이

99) 정영희, “195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여성지 ‘여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 3 (2009): 468-509.

100) 소비 문화 속에서 소비를 위한 개인의 선택은 단순한 행동 결정의 의미를 넘어서 자신이 어떤 존재가 될 지를 결정하는, 개인의 자아의 반영으로서 의미를 가지게 된다. 근대적 자아정체성이 주로 정신적 자질 및 태도 등으로 구성되었다면 소비문화의 자아정체성은 외적으로 드러나는 소비행위를 통해 형성되게 된다.

임인숙, “몸-자아의 소비문화적 연결방식과 불안정성” **한국사회** 8, 1(2007): 96.

101) 한국사회 지배계층은 전통적으로 정신적인 가치를 중시 여겼으며 이는 유교 사상에 바탕한 신분 구조와 맞물려 있었다. 이른바 선비정신이 그것이다.

송재소 등, **(선비정신에서 찾는) 교사의 길**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퇴계학연구원, 2011), 182-200.

102) 일례로 1958년 사회학자 고헥경 등이 실시했던 농촌주민 가족생활에 대한 설문 연구 결과를 보면, 농촌 주민의 결혼 상대 선택에 있어서 여전히 양반과 상민의 신분을 중요시 여겼던 것을 알 수 있다. 교과서포럼, **한국근현대사** (서울: 기파랑, 2008), 172.

103) 여기서 언급된 '정신적 가치'의 의미는 육체에 대비하여 개념화된 철학적 차원에서가 아닌, 당시 50년대의 물질중심적 한국 사회 분위기 속에서 그에 저항했던 소설 속 인물의 인격과 관련하여 사회적인 차원에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점잖은 분을 비웃을 권리나 자격이 어찌면 아주 없지도 않을 거예요. 삶을 대담하게 엔조이할 줄 아는 현대인 가운데 먼지 낀 샘플처럼 거의 폐품에 가까운 도금한 인간이 자기 만족에 도취하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꼴을 아시겠습니까? 선생님 자신이 바로 그러한 인간의 표본이야요.

또 서남기가 부인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 대목이 소설에 나오기도 한다. 로맹 롤랑(Romain Rolland)에게 1915년 노벨 문학상을 안겨준 소설인 「장 크리스토프(Jean Christophe)」의 한 대목을 인용한 것이 그것이다. 서남기는 "사람이란 행복하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자기의 정해진 길을 가기 위해서 살고 있는 것이다."라고 정확하게 소설의 문장과 소설 제목까지 부인에게 말해준다. 작가는 다소 인위적으로 읽히는, 이 부부간의 대화 부분을 통해 서남기의 인간상을 보다 뚜렷하게 독자에게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다. 이는 서남기가 힘든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려고 하고 있는지를 잘 보여주기도 한다.

서남기가 처해있던 힘든 상황이란 가장 중요하게는 그의 치과의원 운영으로 벌어들이는 수익에 비해 너무나 막중한 가족 부양의 부담이었다. 작품에서 그는 처가 식구들까지 포함해 총 열명이 넘는 대가족을 혼자서 부양하는 모습으로 나온다. 소설 속에서 그는 "대합실과 진찰실을 합쳐도 다섯 평이 될까 말까 한" "시설이 빈약한 변두리의" 초라할 정도로 영세한 작은 규모의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게다가 "남의 시설을 빌려서나마 개업을 하고" 있는, 시설 및 기구 일체를 봉우 처가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치과의사이다.

거의 불구자와 병자 등으로 점철된 손창섭의 작품 속 공통적 소설공간을 감안해 볼 때, 서남기 치과의원의 경우 역시 질병이 관련되어 있는 소설 공간이라는 점에선 유사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겠다. 물론 병원 공간

은 질병이 치료되는 곳으로서 방치와 소외 속에 죽음과 절망의 공간으로 귀결되는 작가의 다른 작품 속 공간의 성격과는 일정 부분 차이가 난다. 또한 일반적으로 볼 때 그 당시 치과의원에 내원할 수 있는 환자들은 결코 사회의 어려운 계층이라 볼 수 없었다. 특히 소설 속에서처럼 젊은 여자들이 주고객층이었다면 가정 형편이 힘든 환자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서만기 치과의원은 사회적 가치 체계로부터 소외된 병적이고 결여된 공간으로 볼 수도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서만기 치과의원은 그리 안정적인 치과 운영 상황은 못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소설 속 서만기 부부는 열명이 넘는 대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여기저기 돈을 빌리기도 하는 것으로 그려져 있다. 이는 전후 1950년대 치과의사의 실태를 고려해볼 때 매우 열악한 상황의 치과의사의 모습에 가깝다. 그리고 바로 이 점에서 손창섭 소설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공간의 특징을 서만기 치과의원 역시 공유하고 있는 셈이다. 즉 불안정한 삶의 근거지로서 생존의 근거가 위태로운 상태에 놓여진 모습이다. 이러한 열악하고 비참한 물질적 현실 속에서 정신적인 이상을 추구하며 힘든 상황을 이겨내려고 애쓰는 인물의 모습은 서만기를 통해 형상화된 작가의 주된 인물 모티브로 보인다.

1950년대의 한국 사회에서 치과의사는 전반적으로 사회의 상류층이자 지식 계층에 해당하는 직업군에 속했다¹⁰⁴⁾. 물론 그 내부에 치과의사 간

104) 1956년 4월 20일자 경향신문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24살의 박명희란 여인을 종로경찰서 수사계에서 사기혐의로 구속 취조 중인데 그녀의 죄상이 시내 충무로 모치과의원을 찾아가 의사의 부인을 보고 자기 남편도 '청량리에서 국도치과를 경영하고 있으니 친하게 지내자'고 말한 다음 감언이설로 잇가 육만환짜리 외투를 편취해주하였다는 것. 물론 이 여인의 남편이 의사란 것은 멀쩡한 거짓말이고 허영에 들떠 범죄를 했다는 것이 밝혀지자 담당형사는 사기도 가지가지라고 한숨쉬었다고 한다." 또한 같은 해인 1956년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정비석 원작 한형모 감독의 영화 「자유부인」에서 대학교수로 분한 연기자 박암은 1948년 서울대학교 치과대학을 졸업한 치과의사 출신의 배우였다. 그는 1950년대 후반 자유부인 외에도 다수의 영화에 집중적으로 출연했는데 당시 그의 인기는 그의 학벌에 기인한 지적인 이미지에 힘입은 바 컸다.

의 격차도 물론 존재했다. 소설 속의 서만기는 연령대를 30대 중후반으로 잡고 그가 현실의 치과의사라고 가정해본다면 "치의전을 나온 이래 십여년의 의사 생활을 통해서"라는 표현으로 미루어 보건데, 1940년대 초반에 경성치전을 졸업한 가장 보편적인 경로를 밟은 경우라고 볼 수 있다¹⁰⁵). 서만기에 대해 "크레졸 냄새만을 인생의 유일한 권위로 믿고 있는 그런 부류의 의사와는 달리" 다양한 문화 예술에 대한 "깊은 이해와 고급한 감상 안을 갖추고" 있고 "같은 치과의사들 가운데서도 기술이 출중한 편"이라고 전지적 작가 시점답게 치과의사로서의 실력과 인품을 작가가 판단내리는 서술이 나온다. 이러한 정황을 보면 서만기는 일반적인 그 당시 의사들보다 더 높은 수준의 지성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서만기가 운영하는 치과의원은 그 규모나 시설의 수준이 당시 일반적인 개원의들의 개인 의원 수준보다 훨씬 열악한 상황이었다. 즉 서만기는 정신적인 차원에서는 당시 일반적인 의사보다 높은 수준의 지성과 도덕을 갖추고 있었지만 물질적인 차원에서는 당시 일반적인 의사에 훨씬 못미치는 조건 속에서 살아가던 치과의사였다. 이는 작가가 의도한 인물의 모습이기도 했다. 즉 손창섭은 정신적인 가치를 물질적인 가치보다 우위에 놓고 전후 물질적으로 피폐한 사회적 현실 속에서 중금주의적인 사고가 널리 확산되고 있던 1950년대 사회에 하나의 이상적인 인간상을 제시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⁰⁶

105) 당시 4년제였던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는 일제 시대 유일한 치의학 교육기관이었다. 해방 직후 경성치과대학으로 이어졌고 1946년엔 국립 서울대학교의 단과대학으로 편입되었다.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106) 이는 게오르그 루카치(György Lukács)가 주장하는 문학 속 인물형의 본질에 합치되는 측면을 가진다. 루카치는 변증법적 유물론에 바탕을 두고 모순과 갈등에 의해 분열된 세계로서의 전체성을 회복하는 것이 문학의 핵심적 의미라고 얘기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설은 한 개인이 갈구하는 전체성을 실현하기 위한 긴 여정을 나타낸다. 그와 동시에 소설 주인공의 영혼과 물질적 가치관에 의해 지배되는 현대 세계 사이에는 합일을 이룰 수 없는 장벽이 가로놓여 있다. 루카치는 우리가 소설 속에서 보게 되는 것은 본질적으로는 구체적인 현실과 가치관의 추구 사이에 있는 피

그런데 이 소설에서 서만기의 이상적 면모를 언급하면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 한 가지 더 있다면 그것은 성적 유혹에 대한 그의 대응 방식이다. 그것은 서만기 자신이 처해 있는 힘든 상황의 또 다른 한 원인이기도 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논의했던 경제적인 측면보다 덜 절박할지 몰라도 지나칠 수 없는 부분이다. 소설 속에서 서만기는 “노골적인 추태”로 묘사된, 봉우치의 부도덕한 성적 유혹에 대하여 곳곳이 이를 극복해 나간다. 또한 처제 은주를 포함한 서만기를 둘러싼 여인들의 시선이 하나 같이 그에 대한 연모와 애정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철저히 아내 만을 생각하고 아내의 마음을 헤아리려고 애쓰는 전통적인 가부장적 이상형의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다.

그러한 여성들 가운데는 외모로나 교양으로나 펍 매력적인 상대가 없지도 않아서 만기의 맑고 잔잔한 마음 속에 뜻하지 않았던 잔물결을 일으키는 경우도 간혹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저 그것 뿐이었다. 사랑하는 주위 사람들에게 깊은 상처를 주고 싶지 않았다. ... 그러기 아름다운 여성 환자의 지나친 호의를 물리친 날이면 만기는 으레 아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무엇이고 사들고 돌아가는 것이었다.

당연히 서만기를 둘러싼 여성들의 연모와 애정은 그의 가족적 가치 지향성을 두드러지게 부각시키는 소설적 장치가 되는 셈이다¹⁰⁷⁾. 그리고 서만기의 가족적 가치를 지향하는 모습은 다시 그의 이상적 인간형으로서의 모습을 분명하게 형상화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소설 속 그의 매력을 구체화시킨다. 특히 아내의 그에 대한 신뢰와 지지, 이해와 존경 및 아내와 만기 사이에 흐르는 깊은 애정은 소설 속 다른 어떤 묘사보다 강렬하고 인

리의 상태라고 말한다.

이형식 등, **현대문학비평의 방법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3), 131-132.

107) 1950년대 중반은 개방된 성의식이 확산되면서 남녀 및 가족 관계에 대한 가부장적 위기의식이 사회적으로 고조되었던 시기였음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3, 2 (2009): 277-299.

상적으로 서만기가 가진 가족적 가치 및 매력적인 인물형으로서의 이상적 면모를 응축해서 반영하게 된다.

아내는 세상의 어떤 아내보다도 만기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동정하고 있었다.

다소 평면적 인물형을 제시하고 있는 소설의 성격 상 서만기는 이러한 확고한 인격적 내면을 바탕으로 봉우치의 전방위적인 유혹에 저항해 나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잉여인간은 가족의 위기와 그 극복이라는 서사에 바탕하여, 혹은 공동체의 와해 위기와 재조직이라는 심층의 서사구조에 바탕하여 서술된 작품으로 읽힐 수 있다.¹⁰⁸⁾ 더욱이 주변의 다양한 유혹에 맞서 가족적 가치를 지켜나가려고 하는 서만기의 모습은 처참하게 가족이 형해화 되어 나가는 다른 두 남자의 모습과 대조되기도 한다. 특히 봉우의 경우 그의 처의 문란한 성적 처신이 그 자신의 무능력한 처지와 극명한 대비를 보여준다. 익준의 경우 역시 자신의 무능력과 결벽적인 정의감으로 인해 결국 병든 아내는 죽고 자신은 임종을 보지도 못한 채 공사판을 헤매다 돌아온다. 물론 만기의 친구로 나오는 두 남자의 이러한 공통된 무능력은 전후 1950년대의 삶의 모습에 대한 가감없는 반영이자, 붕괴된 경제적, 가족적 상황의 근본 요인이다. 잉여인간에는 이러한 당시 사회에 드리워진 어두운 시대적 그림자로서의 생산력이 결여된 경제적 풍경이 파괴된 가족의 형태로 형상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상적인 인간상을 황량한 현실 세상 속에 창조해내려는 작가의 시도는 거슬러 올라가면 19세기 유럽의 사실주의에 맞닿아 있다.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나 톨스토이의 작품 속에 등장하는 고뇌하는 주인공의 모습도 그러한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소설의 제목인 '잉여인간'이라는 표현도 19

108) 박재석, “1950년대 손창섭 소설 연구: 한국전쟁 직후 경험의 서사적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세기 러시아 문학에 나타난 현상과 관계가 있다.¹⁰⁹⁾ 당시 귀족 지주 가문의 젊은이들을 사회 문화적인 비유로 잉여인간으로 묘사했던 것은, 봉건적인 귀족의 특권과 강력한 황제 권력을 바탕으로 한 전제정치가 행해지고 있던 러시아에서 그들의 정신적 지향성과 사회적 현실 사이의 괴리가 그만큼 컸기 때문이다. 즉 영국이나 미국에서 실현되었던 자유주의적 정치 개혁이 요원해 보였던, 보수적인 농노제 사회에서 살아가기에 그들은 너무나 근대적이었다. 하지만 그러한 그들의 정신적 지향성과 달리 러시아의 전근대성은 그들의 물질적 조건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요인이기도 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는 그들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다.¹¹⁰⁾

잉여인간의 서만기의 모습 역시도 정신적인 지향성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괴리가 무척 커 보인다. 건국 10년 남짓한 신생 공화국 대한민국의 현실, 즉 전 인구의 90% 가까이가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국가이자 경제 원조 속에 전후 복구를 해 나가던 사회의 물리적 조건과 비교해 볼 때 서만기의 교양은 상당히 귀족적이고 서구적이다. 그는 전통적인 조선 시대 양반의 기본 소양인 "미술, 음악, 문학을 비롯해서" 유럽 상류층의 취미에 가까운 "무용, 스포츠, 영화에 이르기까지" 두루두루 교양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작자는 묘사했다. 이는 서구에서 형성된 근대적 지식과 기술인 치의학을 전공하고 개원하여 환자를 진료하던 대한민국 치과의사들의 실제 모습과 가까웠을 수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주인공이 활동하는 공간의 사회적 배경, 즉 당시 한국 사회의 열악한 상황을 대

109) 1850년에 발표된 푸르게네프(Ivan Turgenev)의 단편소설 「잉여인간의 일기」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잉여인간(영어로는 주로 the superfluous man으로 번역되었음)이라는 단어가 쓰이기 시작했다.

110) 당시 이러한 무기력한 존재로서의 특징이 가장 뚜렷하게 형상화된 작품 중 하나인 푸쉬킨(Alexander Pushkin)의 「예브게니 오네긴」에서 오네긴은 아무런 실질적인 생산적 일에 전념할 줄 모르는 나태함과 우울증, 자기 자신과 사회에 대한 환멸 등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인호, “예브게니 오네긴과 그 선조들: 잉여인간에 대한 역사적 해명,” **세계의 문학** (1977. 겨울): 77.

조적으로 부각시킬 수 있었던 장치이기도 하다. 물론 서만기 치과의원은 현실적인 경제적 조건에 있어서는 너무나 영세하고 열악하며 불안정하다. 바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작중 다른 인물들과 상호작용을 해나간다.

당시 대한민국 사회에서 손창섭의 소설 제목 잉여인간을 보고 떠올릴 수 있는 이미지와 19세기 러시아 문학에서 널리 유행했던 잉여인간이라는 표현은 의미 상에서 많은 차이가 남에도 불구하고, 작중 인물인 서만기가 가난한 치과의사라는 점은 19세기 러시아 사실주의 소설과도 일정하게 연관성을 가진다고 할 수있다. 이는 작가의 의도와 관계 없이 19세기 농노사회 러시아 속의 자유주의적인 귀족 지주 청년의 이미지와 1950년대 농업사회 대한민국 속의 가난한 치과의사의 이미지가 정신적 지향성과 현실적 조건 사이의 분명한 괴리감을 공유하는 것에서 기인한다. 두 경우 모두 유사하게, 그 괴리성의 근본적 배경이 되는 정치사회적 후진성이나 경제적 후진성이 그러한 이미지를 창조해 내는데 일조한 측면도 가진다. 하지만 서만기의 경우는 대중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당시 치과의사들의 삶의 모습이 매우 긍정적으로 투영된 모습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제5장 서만기의 전문직업성 분석

제1절 사회적 인식의 측면에서

1950년대 치과 의사로 형상화된 소설 속 서만기의 분석 작업은 그가 치과 의사라는 사실에 기반을 두고 전문직업성을 중심으로 이루어 질 수 있다. 소설 속 그의 인격성이나 생활적인 특성, 그리고 그의 가치관 등은 그가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지켜나가려고 했는지와 더불어 치과 의사로서 소설 속에 드러나 있는 직업적인 측면에서도 면밀히 이해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작중 치과 의사 서만기가 살았던 시대적 배경은 1950년대 중 후반으로 짐작할 수 있는데, 1950년대는 미국에서 의사의 권위가 최고로 인정받았던 시대에 해당된다.¹¹¹⁾ 일반적인 관점에서 의사들에 대한 전문직업성 탐구는 1940년대부터 주로 사회학에서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1960년대에 들어와 사회학자들이 갈등론의 시각에서 사회적 현상을 바라보기 전에는 주로 기능론적 관점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탐구되었다고 볼 수 있다. 법조인이나 의사를 포함한 전문직업성의 보편적인 특징으로 사회학자들이 지금까지 거론한 요소들은 구조기능론, 갈등론, 상호작용론의 여러 측면들을 종합해 볼 때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분명한 사회적 요구의 존재 (사회적 기능), 체계화된 지식과 기술의 획득 및 경험의 축적, 엄격한 교육과정과 자격 심사를 통한 집단 내부의 자기 통제성¹¹²⁾,

111) 이는 의사의 의료시장 및 의료체제에 대한 통제력이 가장 강력하게 작용했음을 의미한다. 많은 의사와 대중의 인식 속에서 정부와 시장과 의사 단체 3자 사이의 힘의 관계로 볼 때 전반적으로 19세기 초 이래로 의사 단체의 권력은 지속적으로 강화되어 20세기 중반에 절정에 달했다고 보여진다.

Harold C. Sox, "The ethical foundations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 history," *Chest* 131, no. 5 (2007): 1532-40.

112) 의사 집단의 자기 통제성 (self-dominance)은 의사가 가지는 개인적 자율성과 구분하여 의사의 집단적 자율성(organized autonomy)과 같은 의미라 할 수 있다. Freidson의 경우 집단이 구성원 개인의 업무를 통제하는 이러한 집단적 자율성을 전문직업성의 핵심적인 특징으로 보았다.

높은 수준의 윤리성의 추구 및 자율성의 확보, 사회적 인정 (사회적 지위) 등이다¹¹³⁾.

그 중에서 윤리성과 자율성은 전문직업인이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직면하게 되는 여러가지 문제 상황이나 갈등 상황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들이다. 이들 두 특성은 상호 긴밀한 연관성을 가지면서 전문직으로서의 태도와 가치관에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위에서 전술한 전문직업성을 규정하는 여러 요인들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1847년 미국의사협회에서 만든 의사윤리 규범이나 1949년 세계의사회 (World Medical Assembly)에서 발표한 국제의료윤리장전 (International Code of Medical Ethics) 등은 의사들이 전문직업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에서 나타난 결과로 해석해볼 수 있겠다.

20세기 전반에는 유럽과 미국에서 과학적 의학 기반이 확립되고 의사의 인력 공급 체계가 충분히 확보되는 시대에 접어든다. 그 후 유럽에서는 국가가 의료시장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결과 의료의 공공화 현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난다. 1948년 실시되기 시작한 영국의 국가보건서비스 (NHS: National Health Service)가 그 가장 대표적인 예이다. 이로 인해 유럽에서의 의사는 국가 권력의 통제와 간섭에 노출됨으로써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관련하여 진지한 고민에 직면하게 된다. 많은 의사들은 유럽이 전통적으로 강한 분야였던 기초의학 연구의 활성화를 통한 의학전문직업

Eliot Freidson, *Profession of Medicine: A Study of the Sociology of Applied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71-84.

113) 황기우, “교직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9 (1997. 2.): 79-100.

이미 전문직업성으로서 확실히 인식되고 있는 의사에 비해 교사에 대한 연구의 경우 그 직업성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직업성의 논의에 보다 철저함을 기하는 측면이 있다.

성 제고에 전념하거나 공공의료의 틀 안에서 자율성을 유지해나가기 위한 의사 단체를 통한 권위 확립에 주력해 나갔다¹¹⁴⁾. 반면 미국에서는 강력한 의사 단체의 힘을 바탕으로 의료시장에 정부의 개입이 차단됨으로써 민간 주도의 의료시장의 성격이 두드러졌다¹¹⁵⁾. 그 결과 유럽과 비교하면 임상 의사의 자율성과 경제적 조건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지가 있었고 고가의 진료비를 감당하는 시장의 구매력을 기반으로 고급진료가 발전할 수 있었다. 그 과정에서 첨단 의료 지식과 기술이 급속도로 연구 개발됨으로써 의사의 학문적 권위와 경제적 여건을 상승시킨 측면이 있다. 반면 의료자본의 영향을 강하게 받게 됨으로써 오히려 전문직업성이 도전 받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¹¹⁶⁾.

유럽과 미국, 일본을 막론하고 1960년대 후반 사회적으로 거세게 일어났던 기성 권위에 대한 도전은, 그 시기를 전후해 학문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사회학의 갈등론적 관점과 맞물려 의사의 권위에 대한 근본적 회의론을 초래하였다. 미국에서는 1970, 80년대 이후 대자본의 투자를 통한

114) 역사적으로 유럽은 미국에 앞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의거한 의료시장 구조가 형성되었다. 가령 유럽에선 독립된 협회 (independent chamber)에의 회원 등록이 정부가 관장하는 면허제도와 대등하게 의사로 일하기 위한 기본 조건을 구성한다. 영국이나 프랑스, 오스트리아 등에선 그러한 독립된 협회가 아예 면허제도까지도 관리함으로써 사실상 의사 단체가 의료공급 인력을 자체적으로 통제 한다. 물론 최근에는 변화의 조짐이 일어나고 있으나, 고전적인 전문직업성의 인식은 유럽에서 먼저 전형적인 모습으로 확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

Alan Rowe and Mila García-Barbero, *Regulation and licensing of physicians in the WHO European Region*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5), 15-19, EUR/05/5051794c.

115) 미국의 경우 의사의 면허를 발급하는 각 주별 면허원은 주 보건부에 속하거나 독립된 기관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의료시장의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는데 일차적인 목적을 가진다. 미국에서는 의료행위에 대한 면허가 “해당 주의 소비자들이 일정한 능력을 갖춘 의사들에게 부여한 특권”이라는 관념에 바탕을 두고 있다.

김정곤,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55-59, 연구자료 06-01.

116) 이기효,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 **병원경영학회지** 9, 1 (2004): 1-21.

보다 심화된 의료계 상업화 속에서 의사의 자율성이 도전 받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는데¹¹⁷⁾, 이를 계기로 하여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은 의학교육 분야를 포함한 의사 사회 내부에 하나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게 된다¹¹⁸⁾. 즉 돌이켜보면 1950년대는 일반적인 관점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대중의 인식 속에서 향후 중요하게 변화되어 나가는 분수령을 이루는 시기에 해당했다.

사정은 미국뿐 아니라 한국에서도 비슷한 양상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사뿐 아니라 치과의사 역시 어느 정도는 그런 인식을 공유하는 부분이 있었다. 기본적으로 1950년대의 국내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일제 식민지 시기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측면도 있겠지만, 건국 후 새로운 치과의료 전달체계가 세워져 나가면서 색다른 국면을 맞이하게 된다. 이전 시기 식민지 기간 동안 경성치과의사회와 한성치과의사회의 관계를 통해 알 수 있듯이¹¹⁹⁾일본의 의료체계에 종속되어 한국의료가 그 독자적

117) S. J. O'Connor and J. A. Lanning, "The end of autonomy: Reflections on the postprofessional physician,"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17, no. 1 (Winter 1992): 63-72.

118) 의사 사회 내부에서 의학교육 차원에서 의학전문직업성(medical professionalism)에 대한 논의는 20세기 후반 1984년 미국 의과대학 협회 (American Association of Medical Colleges)의 GPEP(General Professional Education of the Physician)보고서의 발표와 더불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지식 위주의 주입식 의학 교육을 비판한 이 보고서 이후 의사로서의 자질과 태도에 관한 의학전문직업성 논의가 활성화되어 나갔으며 미국 의과대학협회에서는 의과대학 목표계획서를 발표하였다. 한편 영국 GMC(General Medical Council)에서는 1993년 이래 미래의 의사상(Tomorrow's doctors)이라는 제목의 의학교육지침서를 발표해왔다. 한국에서는 2000년 의과대학장 협의회에서 '21세기 한국의학교육계획 : 21세기 한국의사상'을 발표하였다. 이러한 의학전문직업성에서 논의되고 있는 의사의 기본자질들은 주로 윤리성에 관한 모호한 공통분모를 가질 뿐 실제로 '의학전문직업성'에 대한 개념과 교육 내용은 나라마다 또 의과대학마다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맹광호,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한국의학교육** 20, 1 (2008): 4.

119) 일본 치과의사들은 1912년 서울에서 경성치과의사회를 설립한 이래 각 지역에 치과의사회를 발족시키면서 전국적인 연합체인 조선연합치과의사회를 조직하게 된다. 여기에 한국인 치과의사들은 참석은 했지만 소외되는 것이 당시의

권위를 자주적으로 확립해나가기가 매우 어려울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을 감안한다면,¹²⁰⁾ 1950년대의 한국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식민지 시기와의 연장선에서 살펴볼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 즉 식민지 시기 한국 치과의사의 지위는 의료인력 공급 체계 자체가 제국주의 본국에 종속되어 있었던 만큼 그 성격이 주체적이지 못했으며, 일본인에 비해 열등한 위치를 전제로 함으로써 자율적인 활동의 범위와 전문직업성의 전략이 제한 받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런 가운데서도 해방을 맞이하고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빠르게 의료체계의 주체적 확립과 사회적 권위 형성에 주력하였다. 1948년 건국 후 1951년 국민의료법이 제정됨으로써 이전의 조선의료령을 대체하여 새로운 치과의료 체계의 확립과 더불어 치과 면허제도도 새로이 시작되었다.¹²¹⁾

물론 한국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확립 과정은 서구 유럽에서 이루어진 오랜 기간에 걸친 시행착오를 통한 점진적 발전과는 달랐다고 볼 수 있다. 그 결과 독자성 혹은 철저함의 차원에서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해 보자면 많이 미흡할 수 밖에 없었다. 또한 당시 상황에서 치과의료 체계 및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의 확립 과정은 극소수에 불과했던 일제 식민지 시기에 근대적 의학 교육을 받았던 기존의 치과의사 집단에 의해 주도되어¹²²⁾

현실이었다고 한다. 한국인만으로 조직된 치과사회가 1925년 설립된 한성치과사회이며 1935년 조선연합치과사회에 가맹하게 된다. 이후 서울에서는 경성치과사회와 한성치과사회가 같이 존재하면서 활동을 전개해 나갔다. 하지만 한성치과사회는 1942년 경성치과사회에 내선일체의 명목으로 강제로 통합을 당하게 된다.

신재의, 70-76.

120) 식민지 기간에 한국치과의사들은 “민족차별과 치과진료에서의 독점권을 가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전문직으로서의 성장에 제한을 받고 있었다.

이주연, “한국 치과의사 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74.

121) 그 당시 국회에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에 대한 면허제도를 입법화 하는 과정에서 의사와 치과의사에 대한 면허제도 수용에는 의원들 간에 별 이견이 없었다.

정기용, 이충열,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정에서 한의사 제도를 둘러싼 논쟁: 국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6, 5 (2012): 595.

나간 측면이 있다. 그리고 그러한 확립 과정에서 자연스레 불협화음과 내부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지만¹²³⁾, 1950년대에 들어와 일반 대중의 지식과 교양 수준에서 어설피게나마 치과의사의 전문성이 인식되어 가기 시작했다. 신문에 칼럼을 쓰던 어느 치과의사의 “입치에 대한 상식”이라는 제목의 글을 보면 당시의 치과의사와 치과진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정도와 그 한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 우리는 교양인으로서 서로 서로 대할 때 충치가 그대로 보인다든가 혹은 금니가 누렇게 보인다는 것이 그다지 좋은 일은 아니겠다. 교양있는 현대인은 누구나 틀림없이 희고도 깨끗한 입치를 하고 있다. 입치할 때 의사의 선택이란 가장 중요할 것이다. 입치의 방법, 입치에 사용되는 재료란 의복 만드는 방법이라든가 혹은 약품들이 나날이 변천되는 그것과 똑같이 급격히 진보되고 있는 까닭에 언제나 신시대의 호흡과 감각을 충분히 이해하는 모던 덴티스트를 택할 것이다. 의사의 지시 혹은 권유를 존중할 것이다. 일반적으로 볼 때 최근에는 사회적 풍조로 인하여 의사를 반신반의하는 경향이 농후하나 되도록 신뢰할 수 있을 의사를 택한 후 전적으로 그의 지시와 권유에 따를 것이다. 입치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학식과 고도

122) 실제로는 이들 중에서도 미국유학파에 의해 주도되었으며 이는 향후 한국 치의학 및 치과치료체계의 성격을 규정짓는 데 큰 영향을 끼쳤다. 가령 식민지 시기 “세브란스병원 치과는 조선인 치과의사들에게 수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일부에게 미국 유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이들이 해방 후 한국 치과계의 흐름을 주도”하게 되었다는 주장도 그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조영수, “일제하 조선의 근대적 치과의업과 식민지배”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50.

123) 이러한 갈등 사례의 대표적인 예가 서울치과의사회와 경성치과의사회의 갈등이었다. 이는 경성치과대학전문학교를 국립대학에 편입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는 과정에서 초래되었다. 그런가 하면 1947년 의치일원화 운동이 전개되기도 하여 전의료계의 관심사가 되기도 했지만 결국 미국처럼 치과학(dentistry)이 의학과 양립하여 대등한 체계를 구축하고 전문성을 키워나가는 방향으로 일이 매듭지어졌다. 하지만 이는 장기적인 시각에 입각한 심층적 분석이나 치과계 내부의 전체적인 합의 도출로 인한 결과라기 보다 6.25 전쟁으로 인해 논쟁이 흐지부지된 탓에 기인했다.

신재의, 298-301.

의 기술을 요하는 까닭이다..... 124)

국내 치과의사들은 아직 전문직으로서 제대로 인식되어지기에 충분하진 못했지만, 의료시장에 대한 중앙회 차원의 집단적 대응을 통해¹²⁵⁾ 사회 경제적 지위를 점차 확보해 나갔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 결과적으로는 1950년대를 거치면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서서히 확립되어 갔다고 볼 수 있다. “변두리에” 영세한 소규모 치과의원을 운영하는 서만기였지만, 소설 속에서도 당시 치과의사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대한 일반인의 인식 정도를 가늠하게 해주는 언급이 나온다. 작가는 이를 주인공 서만기와 갈등구조를 이루는 정반대의 인물형인 봉우처의 입을 통해 서술하고 있다.

"선생님이 독립하실 수 있을 때까지 오년이구 십년이구 그냥 빌려드려두 좋아요!"

만기는 대답할 말이 없었다. 상대방에서 이렇게 자꾸 엉뚱하게만 나오니 더욱 조심해질 뿐이었다.

"이상하게 생각하실 건 없어요. 이왕 놓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제가 존경하고 있는 선생님에게 조금이라도 편리를 봐 드리구 싶은 것 뿐예요!"

봉우처가 서만기에게 노골적으로 사심을 드러내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사교 수완이 좋고 유휴자금으로 사채업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특유의 현실적 직관력이 잘 드러나 있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바로 이러한 사회적 배경 속에서 그리고 그 이전 일제 강점기 이래로 이어져 온 치과

124) 이한수, "입치에 대한 상식," 경향신문, 1956년 1월 11일, 4

125) 1952년에 대한치과의사회라는 법정단체를 세웠고(이후 1959년에 대한치과의사협회가 됨), 이후 치과의사들은 이를 통해 행정부처에 치과의사들의 의도를 관철시켜 나갔다. 입치사에 대한 한지면허교부 반대운동 등을 통한 치과의사의 법적 진료독점권 확보, 치과대학의 교육연한 연장(6년제 확정) 및 추가적인 치과대학 설립 거부 등이 그 예이다.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의료체계, 347-350.

의사들의 전문직업성 확립 과정을 배경으로 하여 1950년대를 살았던 치과 의사의 형상화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제2절 의료시장의 측면에서

이러한 전문직업성의 맥락에서 소설의 주인공 서만기가 어떤 모습의 치과 의원을 운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기 치과의원(萬基齒科醫院)에는 원장인 서만기 씨와 간호원 홍인숙 양 외에도 거의 날마다 출근하다시피 하는 사람 둘이 있다.

소설이 시작하는 첫 문장이기도 한 이 내용을 보면 자신의 이름을 딴 치과 의원에 치과 의사를 제외하면 직원은 간호사 한 명뿐임을 보여준다. 일제 식민지 시기부터 한국의 치과 의사는 전통적으로 개인이 홀로 개원하는 모습이 일반적이었다. 진료 보조 및 치과 운영을 위해 직원을 2명 가량 채용한 형태의 개인의원 형태가 가장 보편적인 치과 의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었다. 치과 의사는 그러한 자신의 병원에서 진료 및 병원 운영의 주체가 되어 여러 가지 난관과 보람을 직원들과 함께 겪게 되는 처지라 할 수 있다. 이는 1950년대에도 마찬가지였고 오히려 그 당시엔 이러한 전통적 치과 의원의 형태가 자리를 잡아가는 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후반 전국에 등록 치과 의사수는 1,000-1,200 여명 남짓한 수준이었는데,¹²⁶⁾ 치과 병의원 수는 600여개 남짓했다. 실제로 시, 도 치과 의사 회원으로 활동하거나 직접 개원을 하는 치과 의사 수는 등록된 치과 의사

126) 가령 전국에 무의면 해소책의 일환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한지의사제도의 입법화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1956년 당시 전국에 등록된 치과 의사수는 1,040명에 불과했다.

김주환, “한국의 치무행정: 5차 아태회의 보고서에서,” **치원** 2 (1968): 27.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 의료 체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해안, 2006)에서 재인용.

수에 훨씬 못미칠 수 밖에 없음을 감안한다면 개원한 치과의원은 거의 모두 치과의사 한 명에 의한 개인의원 형태였음을 알 수 있다.

면허증을 획득한 치과의사들은 그 시기에 독립적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개인 치과의원을 주로 개설하게 됨으로써 민간 의료 시장을 형성하게 되었다. 정부가 치무행정이나 공적 의료체계를 이끌고 나갈 재정적 여유가 없었던 것에 기인한 상황이기도 했다.¹²⁷⁾ 과도한 민간의료시장에의 이러한 편중 현상은 대한민국 초기 보건의료의 특징이기도 했다. 당시 민간의료 시장에는 지금과 달리 치과전문학교나 치과대학을 나온 치과의사 외에도 면허도 없이 공공연히 치과의사 행세를 하는 사람이 많이 존재했다. 그 중엔 조수와 간호사까지 두고 버젓이 치과 이름까지 내걸고 활동하는 부정의료업자도 있었고 도심지를 벗어난 변두리에선 무면허 뜨내기 치과의사들이 주로 활동하기도 하였다. 당시는 부정의료업자들의 행태도 다양했다 할 수 있겠는데 단속에 적발되는 경우는 전체의 일부에 지나지 않았다. 물론 치과의료시장이 치과의사에 의해 독점화되어 나가는 과도기였던 1950년대를 지나면서 빠르게 자취를 감추게 되었지만, 1950년대 말까지도 심심치 않게 부정의료업자들은 신문 사회면에 등장하곤 했다. 이들 가운데엔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범죄사건에 뜻하지 않게 휘말리는 경우도 있었다.¹²⁸⁾

127) 이는 그 이전 미군정 역시 정도의 차이는 있을 뿐 크게 다르지 않았다. 미군정은 치과의사 공급을 늘리고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면 구강보건문제가 점차 해결되리라는 입장에 있었고 국민전체를 대상으로 치과의료자원을 분배하려는 별도의 구강보건정책과 행정이 없었기에 이때부터 치과의사의 도시집중은 막을 수 없었다.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의료체계, 287.

128) 1950년대 후반 가장 유명한 사건으로는 흥은동 노파살해 사건이 있다. 1958년 가을 흥은동에 살던 21세의 여자가 남편이 사준 금가락지를 잃어버리고 시어머니에게 타박을 맞은 후 그만 같은 동네의 노파가 남편이 사준 금가락지를 자랑하는 모습을 보고 금가락지를 노리고 충동적으로 살인을 저지른 후 도피했다. 그 후 억울하게도 그 동네를 왕래하던 곱슬머리의 뜨내기 치과의사가 인상착의가 비슷했다는 이유로 용의자로 몰려 세간의 신문지상을 장식하게 되었다. 나중에 사건의 전모가 밝혀지긴 했지만 1950년대 후반 사회적 소외자이자 동시에 암암리에 의료체계를 교란시키며

당시의 치과계는 6.25 전쟁으로 인한 영향도 많이 받았다. 직접적으로 전쟁 중에 사망 및 행방불명된 치과의사도 많았다. 피난을 갔다가 돌아온 많은 치과의사가 전쟁이 끝나고 서울 등지에서 다시 새롭게 삶을 이어나 갔다.¹²⁹⁾ 치과의원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한 도시 지역에 집중적으로 개설되었다. 하지만 치과의사 1인당 인구수가 매우 높았던 당시에는 치과의원 간의 경쟁은 미약했다. 그 대신 경제적 상황이 극빈하여 치과의원을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자체가 극히 제한되었다.¹³⁰⁾ 이러한 사정으로 인해 당시는 치과의원 간의 경쟁보다 부정의료업의 성행이 보다 큰 사회 문제일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었다. 보건 당국에 수시로 적발, 고발되던 부정의료 행위의 상당수가 등록된 의사와 일정하게 관련된 사안인 무면허 대진이나 면허 대여였던 것도 이러한 상황을 잘 설명해준다.¹³¹⁾ 당시 개원의들은 치과용 금 확보도 쉽지 않았으며, 사실상 치과 진료 자체가 고급진료에 속했다. 치과진료를 받는 사람은 초기 한국사회에서 도시의 유산계급에 제한되어 있었다.¹³²⁾ 농촌에서는 상당수의 사람들이 치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던 뜨내기 치과의사들의 실체에 대해 전국에 유명세를 타게 한 사건이었다.

동아일보, 1958년 9월 14일, 5. 등 참조.

129) 하지만 전쟁 직후에는 병원을 개업해도 내원하는 환자 수가 극히 적었기 때문에 많은 치과의사가 실제로는 개업을 하지 못하고 있었다.

충북치과의사회, **충북치과의사 70년사** (청주: 뒷북출판사, 2002), 123.

130) 1950년대 1인당 국민소득은 70 달러 정도에서 담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 정부는 경제 자립을 위한 수입대체 공업화에 목매고 있었지만 60년대 수출주도 경제정책이 추진되기 전까지 한국 경제는 좀처럼 성장을 이끌어낼 원동력을 찾기 힘든 상황이었다. 이런 가운데 50년대 후반은 미국의 경제 원조도 차관으로 바뀌고 액수도 감소하여 가히 경제적 시련의 시대라 할 만했다.

박복영 등,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147-157, 연구보고서 07-13.

131)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 통제: 1950~60년대 무면허 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의사학** 19, 2 (2010): 398.

132) 국민소득이 증가하는 60년대에 가서도 지방에는 치과의원에 찾아오는 환자 수가 평균 하루 10명이 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가령 모리슨 크라운 한 개당 가격은 거의 쌀 한 가마 값에 가까웠으므로 지방 농민들에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그렇다고 치과의사가 지방에 많은 것도 아니어서, 치과의사의 1/3은 서울에, 나머지는 부산에 집중되어 있었다. 물론 서울과 부산 등지에 위치한

과의사를 평생 만나지 못하고 살아가기도 하였다. 소설이 쓰인 직후인 1959년에 실린 무면허 유랑(뜨네기) 치과의사에 대한 신문기사는 왜 당시 그런 부정의료업자들이 많을 수 밖에 없었는지를 시사해준다.

…… 그 중에도 별로 일반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이 뜨네기 칫과선생님이다 …… 자그만한 가방 하나만 가지고 다니면 된다. 물론 요즘 말썽이 되고 있는 입치영업자도 아니다. 손을 다치면 병원에 갈 줄 알고 배가 아프면 의사를 부르는 것 짚은 이곳 주민들도 이미 잘 알고 있지만 아이들의 “잇발”에 대하여는 “칫과”에 간다는 것은 잘 납득이 안가는 정도다. 그래서 이와 같은 문화수준을 이용하여 생긴 것이 “뜨네기칫과”다. 칫과 조수를 하다 만 사람, 기공으로 있던 사람, 군에서 칫과 기술을 배운 사람 등등. …… 정말 싸기는 싸 것이다. 한번만 나타나면 4-5명의 환자가 몰려온다. “칫과선생님”이 왔다고 운동네에 사람통문이 돌게 되기 때문이다. 이 마을에서는 확실히 선생님인 것이다. 서울 시내만 해도 약 3백명 정도가 있다. 이들은 잘하면 한달에 20만원 정도의 수입이 있다는 것으로 …… 133)

무자격 치과의사와 의사의 불법진료는 당시 사회문제로 인식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국민들 사이엔 무자격의사에게 오히려 동병상련을 느끼고 의사를 경원시하는 분위기도 존재하였다.¹³⁴⁾ 이는 본질적으로는 한국 사회에 의사 면허제를 바탕으로 하는 민간 의료 시장 자체가 제대로 확립되지 못한 측면에 기인한다고 보겠다. 시장에서 공급도 부족했고 실수요자도 부족한 상황에서 잠재적 수요자들은 시장을 부정하는 해결책에 호소할 수 밖에 없었다. 개원의들의 경제적 상황은 안정적인 환자 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으므로 결코 좋은 편은 못되었으나 치과의사 수

치과의원의 환자수 역시도 많지는 않았다.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의료체계, 363

133) 동아일보, 1959년 8월 19일, 3.

134) 정순웅, “강원도 의사회 보고,” **대한의학협회지** 3, 3 (1960): 46-48.

역시도 극소수에 불과하였으므로 치열한 경쟁과 광고에 시간적 경제적 에너지를 낭비할 필요는 없었다. 그 당시 한국인들 대부분이 그랬듯이 혼란한 사회 속에서 자신의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해 나간다는 것은 그 자체가 큰 도전이었을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서만기 치과의원은 영세한 모습 그대로 그 시대 치과의사의 삶의 모습 중 어두운 면을 집중적으로 부각시켜 보여주기도 한다. 더 나아가 소설 속에서 화자는 당시 치과의원들의 일반적인 상황을 배경 삼아 서만기 치과의원의 영세성을 한층 더 부각시키고자 하였다.

그는 한편, 같은 치과의사들 가운데서도 기술이 출중한 편이었다. 그러면서도 현재는 근방에 있는 탄 치과에게 많은 손님을 뺏기고 있는 형편이었다. 그것은 단지 시설이 빈약하고 병원 건물이 초라한 까닭이었다. 그렇지만 지금의 만기로서는 탄 도리가 없었다. 좀더 많은 손님을 끌기 위해서는 목 좋은 곳에 아담한 건물을 얻어 최신식 시설을 갖추는 길밖에 없는데, 현재의 경제 실정으로는 요원한 꿈이 아닐 수 없었다.

최신식 시설로 손님을 끄다는 문장은 부분적으로 작가의 일관성 없는 서술의 문제로 보아 넘길 수도 있겠지만, 당시 국내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제대로 확립되어 있지 못한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고 하겠다. 1950년대 중후반의 치과의사로서 설정된 서만기가 개인의원을 운영하면서 직면한 현실적 곤란의 성격을 파악하게 해주는데 일조하는 묘사라 할 수 있다. 또 한편으로 서만기가 겪었던 이러한 현실적 곤경은 이후의 한국 사회에서 치과의사로서의 삶을 살아간 많은 치과의사들이 비슷하게 겪게 되는 고민의 공통분모를 이루기도 한다. 전문직업성의 측면에서 볼 때 치과의사로서의 직무 윤리성의 요구는 그의 이러한 경제적 상황과 갈등을 빚을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치과의사들이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가장 한계를 가지는 부분은 아마도 병원을 소유하고 직접 경영하는 개원의로서 영리 지향성에 저당 잡힐 수 밖에 없는 본질적인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조병희가 개업주의라는 단어로 표현하기도 했던 한국 개원의사들의 현실적 삶의 양상이었다.¹³⁵⁾ 소설 속에서도 간호사 홍인숙이 서만기에게 개업을 권유하는 부분이 나온다.¹³⁶⁾

“선생님, 제게 오십만원이 있어요. 그걸 선생님께 드리겠어요. 그리구 오빠에게 부탁해서 삼십만원은 어디서 썬 이자루 빌려오도록 하겠어요. 선생님 병원을 내세요!”

당시 치과의사들은 의료보험제도가 실시되고 의료수가를 통한 의료서비스의 공적 통제가 실시되기 이전, 특히 국민의료법 제정으로 인해 의료기관 개설 ‘신고제’가 실시되었던 1950년대의 순수한(자유로운) 민간의료시장의 조건 속에서 이러한 영리성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치과 분야에 있어서 당시는 공급 경쟁은 없었으나 수요의 절대량이 적었던 것이 지금과 다른 성격의 고민을 제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한 상황에서 개업한 국내 치과의사들은 의료시장에의 ‘적응’에 우선적으로 매진하게 된다. 한마디로 보다 많은 환자로부터 선택 받기 위한 전략을 대부분의 치과의사가 공통적으로 취하게 된 셈이다.

135)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 (서울: 명경, 1994), 72-82.

이 책에서 entrepreneurship을 개업주의로 번역하여 전문직업성이 시장의 논리에 잠식당한 한국 의료체계를 구조적으로 분석한 바 있다.

136) 조병희는 “결사체적 전통도 약하고 국가의 보호막도 약화된 상황에서” 시장 경쟁에 나서게 된 한국의 의사들이 정부에 의한 공공의료 차원의 지원이나 간섭 없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자신 소유의 병원을 마련하는 개업이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조병희, “국가의 의료통제와 의료의 전문화: 한국의료체계의 갈등구조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회학** 24 (1992): 150.

이는 의료시장에서 의료 서비스라는 상품의 과학적, 철학적 의미가 보존되기 보다는 상품의 경제성이 부각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공공의료의 길로 접어들었던 유럽이든 민간의료시장을 중심으로 발전해간 미국이든 공통적으로 서구에서는 의사들이 사적 이윤 추구의 측면을 가급적 축소시키거나 경제적 보상을 단지 결과적인 부산물로 여기면서 과학적 합리성의 담지자 및 재판가로서의 정신적 위상을 고수해나가려 했던 전략적인 역사 과정을¹³⁷⁾ 감안해볼 때, 전체적인 통제성이 발휘될 필요가 없었고 발휘되지도 못한 상태의 자연스런 결과였다. 즉 서양에서는 의료의 사회적 의미 및 의사의 사회적 지위가 시민 계급 및 자본주의가 성립하고 산업화 되는 과정에서 의료시장에서의 치열한 지배권 확보 경쟁 속에서 신장되어 나갔다. 가령 같은 의료공급업자인 유사 의료업자들을 시장에서 배제 및 소외시키기 위해 자신들의 지식에 권위를 부여하고,¹³⁸⁾ 자신들의 의도를 이데올로기화 하는¹³⁹⁾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 시장 구조의 통제권을 장악하고자 노력했다. 반면 한국의 치과의사들은 식민지 시기부터 총독부 및 제국 정부에 의해 학문적 권위와 의료시장의 주도권이 보장되어 있었던 셈이다. 국민국가 수립 후에도 이러한 주도권은 입법부에 의한 면허제 수립과 행정부에 의한 무면허업자 단속 등의 조치들로 독점적으로 보장되어져 나감으로써 서양에서와 같은 의료시장에서의 경쟁, 권위의 수립과 내적 단결

137) 깡귀엠(Georges Canguilhem)이 지적한 바 있듯 의학적 합리성은 서구에서는 이데올로기화 하여 의사의 의료시장 장악의 중요한 무기가 된다.

138) 스타(P. Starr)는 문화적 권위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의사들이 의료지식의 생산과 검증을 독점할 수 있게 되면 의료 시장 구조 자체를 통제할 수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사회적 권위는 명령을 통해 행위를 통제하는 반면에 문화적 권위는 사실과 가치를 정의함으로써 현실을 창조해낸다”고 말한다.

Paul Starr, **미국의료의 사회사**, 이종찬 옮김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24.

139) 라슨(M. S. Larson)의 경우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의료시장의 독점 과정과 관련하여 설명하였다. 그는 의사의 의료시장 독점 과정을 의료의 사회봉사적 성격을 내세운 의사들에 의한 직업윤리의 이데올로기화로 설명한 바 있다.

Magali Sarfatti Larson,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19-39.

의 필요성 등을 절박하게 경험하지 못하게 된 성격을 가진다.¹⁴⁰⁾

개업을 선택한 한국 치과의사들의 딜레마는 이후 의료시장 속에서 서서히 윤곽을 드러낸다. 체계화되고 깊이 있는 내용의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은 전문직업성의 가장 기본적인 전제이자, 이는 의료시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소수정예 공급자로서의 속성을 의사에게 부여하고 더 나아가 의사로 하여금 의료시장의 구조에 집단적으로 대응해나갈 수 있게 해주는 권력의 원천이기도 하다. 소셜 속에서도 봉우치가 서만기의 치과의사로서의 술기에 대하여 언급하는 부분이 나온다.

“냅아빠진 그 시설을 쓰기에는 선생님의 탁월한 기술이 아까워요. 그래서 작자가 나선 김에 팔아치우고 선생님에게는 현대적인 최신식 시설을 갖춰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게 그 정도의 자금은 마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러한 치과의사의 지식과 기술은 이후 점차 과중한 경쟁과 혼란을 요하게 되었다. 현실적으로도 한국의 많은 치과의사들은 이 전문직업성의 기본적인 부분을 달성하기 위해 상당한 인생의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럼에도 모든 직업 분야가 전문화된 지식을 추구하는 현대의 지식 기반 사회에 와선 그러한 투자는 간단하고도 소홀하게 취급 받게 된 측면도 있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제 지식과 기술 습득에 투자된 노력의 가치가 시설 투자에 소요되는 자본의 가치에 점점 못미치게 되어 의료시장에서의 의료서비스 공급자로서의 치과의사의 위치를 더욱 종속적으로 만들게 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지적 재산의 자본가치에 의존하는 오늘날 첨단기업의 사정과 대조되며 모방에 의존하는 영세 자영업자들의 시장전략과 유사한 것으로, 의사에게 불리한 상황이다. 애벗이 지적한 대로¹⁴¹⁾ 의

140)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 참조.

141) 의사가 가진 지식과 기술 등의 전문지식은 그 자체가 가지는 효용성에 입각한 가치

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이 그 자체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강화시키는 결정적 요인이 아니므로, 전문지식에 투자된 노력의 가치는 현실적으로 의료시장에서의 실질 자본 가치를 따라잡지 못한다. 지금에 와서는 개업 위주의 한국적 상황에서 치과의사가 사실상 봉우처와 같은 자본 투자자의 존재를 더욱 필요로 하게 된 관계의 역전에 와있다고 말할 수 있다.

의료시장의 환경 변화와 맞물려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지금에 와서는 1950년대와 사뭇 다른 문제에 직면해 있는 셈이다. 지식과 기술을 위한 의사의 투자는 갈수록 늘어난다. 실제 개원의들 간의 경쟁 속에서 투자 행위는 주로 고가의 의료장비 등 자본 투자로 형상화된다.¹⁴²⁾ 하지만 그럼에도 한국에서는 투자하고 싶어 하는 잠재적 의료시장의 공급원이 의료시장 밖에서 줄을 서서 기다리는 상황이기도 하다.¹⁴³⁾ 치과의사로서의 입장은 명확해졌다. 개업을 하는 경우 자신의 사회적 지위를 높이거나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급 자체가 줄어들기를 기다리거나, 자신의 가치에 더

보다도 과학적 배경 속에 문화적 권위를 지니게 됨으로서 지니는 상징적 가치에 의존한다. 가령 환자를 잘 진료하기 위해서 독학으로 연수를 받으며 지식을 아무리 축적해도 실제 의료시장에서는 면허, 학력, 경력 등의 사항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

A. Abbott, *The System of Profess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52-58.

142) 한국에서도 1970년대 이후엔 경제 발전의 여파로 의료시장에서 충분한 실수요층이 형성되게 되고 치과의사의 의료서비스 공급 또한 충분히 가동된다. 의사의 충분한 공급 하에서 의료시장은 당연히 수요자 중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은혜로서의 의술을 베푸는 개념은 의료 공급이 희소할 때에나 해당되는 이야기이다. 조병희는 “의사에 의한 병원의 사적 소유나 그 규모의 확대는 의료 체계에 대한 조직적 통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사들이 안정적 지위 확립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취할 수 있는 전략이었다”라고 말한다.

조병희, 국가의 의료통제, 131-152.

143) 매년 중고등학생들에 대한 의과대학의 높은 인기는 이를 입증한다. 학생들은 가급적이면 공부에 ‘최소 투자’하면서 가장 확실한 경제적 보장, 즉 ‘최대 성과’를 낼 수 있는 길을 경제적으로 선택하는데, 이는 학력 시장의 본질이라고도 볼 수 있다.

배민, **우리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서울: 책과나무, 2013), 183.

육 투자하고 보다 많은 시설 투자를 가능케할 자본의 대여처를 모색하는 방법 외엔 없다. 환자의 입지가 강화되고 봉우처의 입지가 상승했으나 서만기의 지위는 하락한 셈이다. 이는 단순히 보다 많은 수요자로부터 선택 받는 전략을 택했던 치과의사 개인의 총합이 직면한 결과이다. 반면 치과의사 집단이 주도적으로 의료시장의 구조 자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력을 확보하고 정부와 협상을 수월히 해나갈 수 있는¹⁴⁴⁾ 상황에서라는 치과의사들이 현재의 의료시장에서 취하는 선택과 다른 선택을 취하게 될 것이다.¹⁴⁵⁾

서만기는 그 당시 1950년대에 일반적인 치과의사가 취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선택안이었던 개원의의 길을 택하고 있었다. 하지만 1950년대 후반 한국의 의료시장은 잘 작동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치과의사 단체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한 상황 속에서 치과의사들은 각자 영리성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리고 다음 시대에 이르면 새로운 현실적 조건들 가령 과잉공급과 국가 개입, 과중한 경쟁과 훈련의 요구 등에 직면하게 되는 한국 치과의사들은 의료시장에서의 주도권을 획득하지 못한 채 자율성이 침해 당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소설 속 서

144) 하지만 이와 반대로 한국의 의료계 상황은 “의료보험의 진료 기준, 진료수가의 결정 등 의사 업무와 관련된 보험 행정의 장관에게 포괄 위임”되어 “한국에서 의학 지식의 권위는 관(官)의 권위에 예속”된 상황이다.

박호진, “한국의사의 탈전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86.

145)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 민주주의를 본질로 하는 정부와 자유주의를 본질로 하는 시장 사이에서, 즉 케인즈나 하이에크나 해묵은 경제학적 갈등의 파도에 휩쓸리지 않으면서(이미 한국의 의사들은 멀미가 나서 쓰러져가는 상황이다) 동시에 성채와 같이 견고한 수직적 계서제에 구속받지 않을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의 일환으로 길드 체제와 같은 강력한 내적 동맹 형태의 전문직업성을 추구하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겠다. 이러한 자율적 통제를 핵심으로 하는 전문직업성 형태가 새로운 사회적 조직으로서의 대안이 되리라고 주장한 Freidson의 연구는 전문직업성이 정부나 시장으로부터 개인의 직업 활동에 자율성과 윤리성을 부여해줄 원동력이 될 수 있음을 암시한다.

Eliot Freidson,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박호진 옮김 (서울: 아카넷, 2007) 참조.

만기가 운영하는 영세한 구식 치과의원 역시 당시의 의료시장 및 사회 배경적 조건에서 일정하게 직업윤리성을 추구하는데 제한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으며, 이는 소설 잉여인간의 극적 갈등을 유발하는 주된 장치이기도 하다. 하지만 서만기의 모습은 의료시장에의 피동적인 순응이 아닌 의사로서의 과학적 합리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근대의학에 대한 성찰의 자세로 적극적인 전문직업성에 입각한 삶의 모습이었다고 할 수 있다. 바로 이러한 서만기의 모습에서 소설 「잉여인간」은 1950년대 치과의사의 형상화뿐 아니라 전문직업성 연구의 텍스트로도 읽을 수 있는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

제3절 윤리성의¹⁴⁶⁾ 측면에서

소설 속에서 서만기의 직무 윤리성에 대하여 자세하게 분석할 단서는 많지 않지만 몇가지 점에서 논해 보고자 한다. 소설 첫 부분에 그의 친구 채익준이 신문에 난 어느 제약회사의 사기 범죄사건에 대해 격노하는 대목이 나온다. 그 회사는 인체에 유해한 위조품을 외국제 포장갑을 통해 고급 외국약으로 둔갑시켜 부당 이득을 취했다는 것이었다.

“……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사는지 알우?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렇게 피폐해가는지 알우? 모두가 이 따위 악당들 때문이요. 이 거봐요. 그런 놈들은 말야 이완용이나 마찬가지로 역적이요! 나라야 망하든 말든 동포들이야 가짜 약을 사 쓰고 죽든 말든 내 배때기만

146) 강신익,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철학: 치과의사의 윤리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지** 11, 2 (2002. 12.): 127-28. 강신익의 경우 의사의 윤리적 측면에 대해 검토하면서 의료윤리, 생명윤리를 전문직윤리와 구별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의료윤리, 전문직 윤리 등을 따로 구별하지 않고, 전문직으로서의 의사가 자각하는 그리고 그에게 요구되어지는 윤리라고 보고 이를 '의사의' 윤리성, 직무윤리 혹은 직업윤리 등으로 구별 없이 기술하였다.

불리면 그만이라구 생각하는 그만 놈들은 살인 강도 이상의 악질범
이요. 그런 놈들을 극형에 처하지 않으니까 유사한 사건이 꼬리를
물구 발생한단 말요. 난 그놈들의 뼈를 갈아 마셔두 시원치 않게소
....."

하지만 이 기사 내용에 대한 서만기의 자세는 그저 담담하기만 하다.
자신의 분노와 정의심에 동조를 바라는 익준의 호소에 그는 담배를 권하
며 이렇게 대응할 뿐이다.

“아니지. 남달리 정의감과 의분이 강한 자네니까 남보다 몇 배 격분
하지 않을 수 없으리란 말일세. 그렇지만 혼자 흥분해서 필필 뛰면
될 하나!” 만기도 탄식하듯 하였다. 둘이는 담배에 불을 붙여 물었
다.

서만기의 성격과 사회의식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드러나는 대목이면서,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그의 윤리의식의 일면이 엿보이는 부분이기도 하다.
50년대 후반 의료업계에선 부정의료업자들에 대한 단속과 고발, 폐쇄 조
치가 끊이지 않은 시기였다. 신문에서 생계형 범죄에 대해 고발하는 기사
는 너무도 흔했고 도로의 맨홀 뚜껑을 훔쳐가는 사람들 때문에 밤 중에
변사사고가 빈번했던¹⁴⁷⁾ 시기였을 만큼 당시 일반 시민들의 도덕 감정은
지금과 같을 수는 없었으며 도덕적 기대수준도 낮은 상황이었다. 더욱이
지금도 그렇지만 칸트적인 정언명령의 윤리의식은 그 당시 일상의 현실적
조건에서 기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다.

서만기의 윤리의식은 당시의 현실적 상황뿐 아니라 그가 치과의사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되어야 한다. 그가 체념적인 어조로 내뱉은 말의 근거

147) 1957년 서울시장에 취임하면서 허정(許政)이 언급한 시의 당면 문제에는 맨홀에
뚜껑을 만들어 덮고 시민들에게 도난 방지에 협력할 것을 주문하는 내용이 나온다.
경향신문, 1957년 12월 28일, 3.

에 흐르는 부도덕한 현실과의 거리 두기 자세는 익준의 성토와 대비되어 전문직업성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는 윤리성의 한 측면을 시사한다. 전문직업성으로서의 의료 윤리 혹은 전문직 윤리는 이상(理想) 추구적인 성격을 가지는 의무론적 윤리와는 다르기에 선악의 판단에는 입장을 유보한다. 동시에 변호사가 고객의 송사 사건에 대해서 가지는 의무처럼, 자신의 전문 분야 외의 비의학적 측면을 배제함으로써 그것이 환자의 건강과 관련된 특정 조건적 상황에서 기능하는 제한성을 가진다.¹⁴⁸⁾

직업윤리성은 전문직업성에 있어 자율성과 함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¹⁴⁹⁾ 또한 실제로는 의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된다는 측면에서 의사의 전 인격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하는 문제이기도 하다.¹⁵⁰⁾ 소설 속에서 서만기가 환자와 의사 관계에 대한 자신의 사회의학적 성찰을 직접적으로 내보이지는 않지만, 가난한 치과의사로서 경제적인 문제에 있어 자신의 가치관을 지켜나가려는 모습 속에서도 그의 직업윤리성이 간

148) 의무론적 윤리의 방식대로라면 결과 자체보다는 행동을 결정하게된 과정 혹은 선택에 의미를 중요하게 부여하여 선과 악의 의지에 민감하지만, 목적론적 윤리로 볼 때는 나쁜 결과가 예견되는 행동은 그것이 좋은 의도라 할지라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의지의 선악과는 별개의 차원에서 논의된다.

엄정식, **지혜의 윤리학** (서울: 벽호, 1994) 참조.

149) 2006년 제정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치과의사 윤리헌장 전문의 첫 문장은 다음과 같이 시작된다. “치과의사는 사회 속에서 직업전문주의(professionalism)를 기본적 가치로 신봉한다. 직업전문주의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진료업무 수행에 있어 최고의 지식과 기술 수준을 유지해야 하며, 구강건강 문제에 관해 전문가적 충고를 제공해야 한다”

150) 마이크 마르틴(Mike W. Martin)은 전문직 구성원 전체에 의한 윤리규범의 일률적 준수와 딜레마 상황에 대한 협의를 핵심으로 하는 기존의 "합의 모형"에 대하여, 이와는 다른 접근 방식으로 전문직 구성원 개인의 차원에서 윤리 문제에 접근할 것을 주장하였다.

Mike W. Martin, *meaningful work : rethinking professional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참조. 그는 특히 전문가 개인의 도덕적 신념과 이상(personal moral commitments and ideals)의 역할을 강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의사의 전문직업적 윤리는 환자를 돌보는 의료행위 자체 즉 목적론적 차원의 윤리 범위를 넘어서, 그 동기(motives)와 태도(attitudes)까지를 포함하는 의무론적 윤리의 차원으로 범위가 확장 된다고 볼 수 있다.

접적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경제적 어려움을 굳은 의지로 버텨내는 강인한 매력으로 소설 속에 형상화된 서만기의 인격성은 작가가 그것을 의도한 바도 있었겠지만 젊고도 성숙한 치과의사를 대하는 1950년대 일반인 환자들의 사회적 인식 혹은 기대가 반영된 것이라 볼 수도 있다.

소설 속 서만기의 직업윤리성은 앞에서 얘기한 의료시장의 상황을 비롯한 사회경제적 조건과의 맥락 속에서도 분석될 수 있다. 그는 도덕적 이상을 추구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그가 의료시장의 공급자로서 가지는 성격은 의료시장 자체에 완전히 예속 당해 있는 모습이다.

“병원 시설을 사겠다는 사람이 있어요. 헐값이지만 고물이라서 차라리 팔아 치울까 생각해요!” 여자는 만기를 빠끔히 쳐다보며 엉뚱한 소리를 했다. 만기는 속으로 놀랐다. 여자의 마음을 얼른 파악하기 힘들었다. 진담인가, 그렇지 않으면 야비한 복선인가. 어느 쪽이든 만기에게는 타격이었다. 그 시설은 지금의 만기에게 있어서 생명이 나 다름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물론이고 당시 치과의사 단체 역시 그러한 의료시장 체계를 (국가 권력을 상대로 혹은 자본의 힘에 맞서) 구조적으로 통제해 나갈 수 있는 집단적 힘이나 전략이 미숙한 상태였음은 전술한 바와 같다. 그러한 상황에서 치과의사로서 서만기는 개인의 물질적인 성공을 위한 전략적 사고보다는 주어진 상황 속에서 윤리성을 실천하기 위한 고민과 함께 정신적인 가치를 지향해 나가는 인간형으로 그려져 있다. 1950년대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하는 개인주의 소비사회로서의 한국 사회 내부에서, 치과의사의 전문직 윤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은 소설 「영여인간」 속에서도 간접적으로 제시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서만기의 직업윤리성은 가족적 가치를 지향했던 그가 봉우처와의 관계

에 대처해 나가는 방식을 통해서도 드러난다. 그가 봉우치의 노골적인 성적 유혹에 대하여 보여주는 태도는 단순히 그의 이상적 면모로서의 가족적 가치를 지향하는 측면에서뿐 아니라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의 또 다른 면모로서, 즉 전문직윤리의 측면에서 고찰해볼 부분이 있다. 먼저 봉우치의 성적 유혹을 거부하는 순간 경제적 파국을 맞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로 내면의 결단을 내리는 그의 신념은 어떤 의미에서는 의사로서 불의와 타협에 굴하지 않는 직업윤리성의 중요한 면모이다. 또한 이는 그 자신과 타인에 대해 상반된 윤리를 대입하는 자세로 볼 수 있다. 타인에 대해서는 그 사람의 의도를 개인주의적 합리성의 관점에서 냉철하게 판단내리기 보다 그의 현실적 상황을 이해하려고 애쓰는 (의무론적 윤리를 경계하는) 모습이면서 동시에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칸트적인 의무론적 윤리를 대입하는 모습이다.

그런가 하면 소설 속에서 서만기는 치과의사로서 지나치게 여성들의 호감을 많이 사고 있다. 이러한 화자의 과장된 서술은 이 소설에서 서만기의 매력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가 되기도 하지만 의사의 직무 윤리성과도 관련하여 의미 심장한 소설적 서사 요소이다. 즉 그 자신은 아내 외의 여자들에게 관심이 없고 자신의 매력을 의식하거나 가꾸거나 하는 행동을 전혀 하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병원은 사심을 품은 여자 환자들로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보면 병원을 찾아오는 젊은 환자의 거개가 젊은 여자들이라는 사실도 무심히 보아 넘길 일만은 아니었다. 많은 여자 환자 가운데는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만기에게 호감을 보이려 드는 사람도 있었다. 한 주일이면 끝날 치료를 자진해서 열흘 내지 보름씩 받으러 다닌다거나 완치된 다음에도 사례라고 하며 와이샤쓰나 양복지 같은 것을 사 들고 일부러 찾아오는 여자가 결코 한둘에 그치지 않았다.

물론 그런 여자들 중에 병원이 세 들어 있는 건물 주인이라는 지위를 앞세워 저돌적이고 노골적으로 행동하는 봉우처와 같은 사람은 많지 않겠지만, 이러한 상황은 치과의사로서의 직업윤리성에 심각한 도전이 될 수도 있다. 예부터 의사의 직업 윤리에서 환자와의 관계를 적절하게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해 왔다. 가령 히포크라테스 선서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그가 자유민이든 노예든 관계 없이 나의 지위를 사용하여 남자나 여자와 성적 접촉을 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¹⁵¹⁾ 미국과 유럽의 내과학회가 주도한 1999년 의학 전문직업성 사업(Medical Professionalism Project)의¹⁵²⁾ '의료전문주의 헌장'에도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Commitment to maintaining appropriate relations with patients)는 전문인으로서의 책임(a set of professional responsibilities) 중 한 항목으로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2006년 '치과의사 윤리헌장'과 함께 마련된 '윤리 지침'의 내용에서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치과의사의 의무로 환자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에 대한 내용이¹⁵³⁾ 명시되어 있다. 2012년 대한의사협회에선 자체적으로 의사의 비윤리적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의협 자정 선언문’을 채택하기도 하였는데 그 안에도 환자와 합의하에 성적 관계를 갖는 것을 대표적인 비윤리적 의사 유형에 포함시켰다.

얼굴을 짓히게 하고 만기가 열심히 잇사이를 굶어내고 있노라니까
 눈을 감고 가만하고 있던 봉우 처가 슬며시 만기의 가운 자락을 잡

151) G. E. R. Lloyd, *Hippocratic Writing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7), 67.

152) European Federation of Internal Medicine, the American College of Physicians-American Society of Internal Medicine (ACP-ASIM), American Board of Internal Medicine(ABIM) 이 함께 발족한 사업이었다.

153) “치과의사는 자신의 전문가적 판단을 손상시키거나 환자와의 관계에서 형성된 신뢰를 부당하게 이용할 가능성이 있는 대인관계를 피해야 한다(신뢰성 손상가능성이 있는 관계 금지)”, “치과의사는 진료과정에서 환자에게 성추행, 성희롱, 성적 유혹 등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불필요한 신체 접촉 금지)” 등의 조항이 있다.

아당기였다. 그러면서 눈을 감은 채 배시시 웃었다. 만기는 내심 적지 않아 당황하여 얼른 봉우 아내의 손을 뿌리치려 했지만 여인은 손에 더욱 힘을 주어서 끌어 당기었다.

위 내용은 소설 속에서 봉우처를 치료하던 서만기가 겪게 된 갑작스런 사건이었다. 의사의 의료행위의 대부분은 환자의 몸을 직간접적으로 상대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를 극단적으로 해석하자면, 한편으로는 그로 인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성추행 등의 죄목으로 고발당할 가능성에 노출되어 있는 셈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환자와 특별하고 은밀한 관계로 이어질 수 있는 높은 가능성이 상존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후자의 가능성이 높는데 이와 유사한 직업적 상황의 보편적 성격에 견주어 볼 때,¹⁵⁴⁾ 남성 의사의 성적 매력이 가지는 영향력 혹은 유혹하는 여성 환자의 영향력이 상호 높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기 때문이다.¹⁵⁵⁾ 특히 치과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사회적 인지도와 경제적 지위, 치료환경에서의

154) 신뢰가 전제되고 관계의 양상에서 특징적으로 어느 한편이 더 우월한 힘을 갖는 불균형적 관계에서 일을 하게 되는 직업, 가령 의사, 교사, 목사 등의 직업적 상황들이 가지는 유사성에 주목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직업적 윤리성이 예민하게 요구되어지는 상황에서 전문직업인은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성적으로 비윤리적인 관계를 가지게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환자들은 의사에게 자신의 고통 혹은 불편을 치료받기 위해 의사에 의지 또는 신뢰해야 하는 형편이며 부득이 자신의 치부를 노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다. 목회학의 관점에서 팀 라헤이는 남성 목사가 여성 신도와 성적인 부적절한 관계에 놓이게 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으로 남성 목사가 가지는 성적매력의 영향력, 유혹하는 여성의 영향력, 감정 결합의 영향력 등 세가지 요인을 지적한 바 있다. 이 중에서 성적 매력의 영향력, 즉 목회자는 신자를 상담하고 돌보고 이해해주는 자애로운 역할을 맡음으로 인해 여신도들이 쉽게 남성 목회자에게 매료되고 따라서 목회자는 유혹받기 쉽고 타락하기 쉬운 위치에 있다는 것과 유혹하는 여성의 영향력, 즉 목회자와 상담을 하는 여성 중 극히 일부는 순수하지 못한 동기로 목회자에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

Tim LaHaye, **목회자가 타락하면**, 황승균 옮김 (서울: 생명의샘, 1992), 43-50.

155) 한국 근대 소설로는 1925년 『조선문단』에 발표된 나도향의 「J 의사의 고백」에 나오는 주인공 J가 아마도 이러한 관점에서 성적 방종의 대표적인 인물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J는 자신의 개인의원에 찾아온 환자 S와 불륜을 저지른다. 그는 늑막염으로 찾아온 그녀와 좀더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병원 입원을 권유하는 행동을 한다. 또한 그는 자신의 의원에서 일하는 간호사 O와도 이미 과거에 사랑했던 옛 연인의 관계이다.

환자와 매우 가까운 물리적 거리 및 누워서 진료받는 자세에서 오는 환자의 정서적 의존성, 신체적 본능의 관점에서 치아 삭제와 관련된 공포감, 비일회성 내원 혹은 정기적 검진의 필요성에 기인하는 친밀감과 유대감의 형성 등을 특징으로 하여 환자에 대한 육체적 혹은 정신적 매력의 영향력이 발생하거나 작용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소설 속 서만기의 모습은 이를 테면 나도향의 소설 속 의사 J와 대조되는 또 하나의 극단적인 인물형으로서, 전문직업성에서 요구되는 윤리성의 거의 교과서적인 표본이다.¹⁵⁶⁾ 하지만 이러한 도덕적으로 확고부동한 서만기의 모습은 화자에 의해 지나치게 직접적으로 강조된 측면이 있다. 그와 같은 이유에서 많은 손창섭 연구자들은 이러한 주인공 서만기의 인물 성격을 문학적으로는 그다지 후하게 평가하지 않았다.¹⁵⁷⁾

서만기는 치의전을 나온 학력과 풍부한 교양, 탁월한 전문지식을 갖춘 치과의사이다. 하지만 소설 속 그의 모습은 결코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대우받기는 커녕 몰이해와 조소, 경제적 수모를 당하며 절박한 처지로 내몰린다. 하지만 그러한 조건에 좌절하지 않고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역할에 대해 끊임 없이 고민하고 있다. 사실상 이는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핵심에 위치하는 윤리성의 본질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는 더 나아가 현실

156) 이른바 전문직업적 거리두기(professional detachment or professional distance)에 대해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포스트모던과 페미니즘의 흐름 속에 보다 융통성 있는 방식의 새로운 접근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J. Fook, *Radical Casework: A Theory of Practice* (Sydney: Allen & Unwin, 1993) 참조. 하지만 의사와 환자 관계에 대한 성 관련 윤리에 있어서는 그러한 상대론적 모색은 지지를 받은 바 없다.

157) “타자로서의 잉여인간이 산출해내는 소설적 긴장을 버텨 내지 못한 채 생동감을 잃고 만 서만기..”

박재석, 25.

“인물과 환경과의 대응 관계를 통해 고찰해본 많은 전후소설의 인물 중에서 드물게 나타나는 내적 통제자로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인물인 서만기는 작가의 지나친 개입으로 인해 단정적 인물로 생동감을 잃게 되면서 사회학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 인물일지 모르지만, 소설 미학적인 관점에서는 아쉬움을 남기는 인물.. “

이국환, 82.

속의 치과의사들에게 직업윤리성의 측면에서 이 소설이 제공하는 가장 중요한 시사점이 될 수 있다. 물론 소설 속에서 그가 자신의 진료 행위 자체를 두고 고민하는 모습이 직접적으로 나오지는 않는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처한 복잡하게 얽힌 상황들 속에서 어떤 판단을 내려야 할지 고민하고 있으며, 특히 그 갈등의 본질에는 치과의사로서의 개인의원 운영과 관계된 경제적인 문제 및 그와 연관되어 있는, 봉우처로 상징되는 성윤리적 문제 등이 자리를 잡고 있다. 이는 근대의학을 통한 성찰성과는 또 다른 측면에서 전문직업성의 본질, 즉 도덕주의와 상업주의 사이에서 있는 치과의사 서만기의 직업적 고민과 가치관을 형상화하고 있는 셈이다.

제4절 자율성의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가지는 역사성은 1950년대 한국의 치과의사에겐 생소했을 서구적 맥락의 구성물을 내포하고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형성하게 된 과정에 대한 고찰은 한국 치과의사의 자율성과 관련한 쟁점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한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이야기할 때 의례 나오는 사명감, 봉사, 헌신 등 직업윤리성을 구성하는 여러 덕목들은 역사적인 측면에서 의학 지식의 과학화가 17, 18세기 자본주의 발전 및 시민의 정치적 성장과 동시에 일어나면서¹⁵⁸⁾ 당시 청교도(puritan)나 젠트리(gentry) 등의 새로운 사회 집단의 생활양식 즉 직업소명설이나¹⁵⁹⁾ 신사문화(gentleman culture)¹⁶⁰⁾ 등을

158) 이재담, **서양의학의 역사** (파주: 살림, 2012), 48.

159) 직업소명설은 칼뱅에 의해 제안된 신학적 이론이다. 당시 청교도 등의 칼뱅파 신교도들은 자본주의 발달을 주도하던 시민 상공업자계층이 주를 이루었는데, 이들의 신앙의 기반이자 삶의 지침이었던 사상이기도 했다.

160) 신사(紳士)는 원래 중국 명(明), 청(淸) 시대의 사회 지배 집단을 지칭하는 역사 용어이다. 중앙집권화된 동아시아 사회의 역사적 경험이 축적되어 나타난 현상으로서 이들 집단의 특징은 국가 권력과 과거 시험을 통해 일정한 연관성을 맺고 있었다는 점이다. 물론 메이지 시대 일본에서 신사로 번역했던 영국 단어

흡수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윤리성은 의사 전문직이 자신들의 지식과 결합시켜 대중을 상대로 자신들의 상을 긍정적으로 형상화하는데 가장 필요한 기반이었다. 그리고 이를 귀족이 왕과 타협을 보았던 마그나 카르타(Magna Carta)의 연장선에서 19세기에 전문직들은 국가 권력과 타협을 본다. 이 타협은 윤리성과 집단 내적 통제를 직업적 행위의 자율성 및 사회적 권위와 교환하는 거래였다. 윤리성을 위해선 히포크라테스를 고대로부터 모셔온다. 내적 통제를 위해선 법정 단체를 구성한다. 하지만 무엇보다 민주적인 시민 권력과 협상 테이블에서 거래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의사 단체가 모종의 권력을 가져야 했고, 그 결과로 도출된 사회 계약을 유지시켜 나가기 위해서도 권력은 요구되어질 수 밖에 없었다. 예나 지금이나 협상 테이블은 정치가 개입하는 힘겨루기 장이며 협상력을 전제로 한다. 테이블 위에서는 (자신의 레토릭을 관철시킴으로써 프레임을 장악하기 위한) 주도권 다툼을 하게 되며, 그 결과 이 다툼에서 이긴 쪽은 선한 자가 되며, 진 쪽은 악한 자로 전락하여 승자의 프레임에 끌려갈 수 밖에 없게 된다. 이 경우 의사가 어떤 성격의 권력 혹은 권위를 어떠한 전략으로 발전시켜 나갔는가에 대해서는 사회학과 보건학 분야에서 다양한 설명이 시도되었으며 앞에서도 언급하였다.¹⁶¹⁾ 그리고 의사집단을 주인공으로 하여 전개한 전문직업성에 대한 이러한 역사적 고찰 역시도 많은 연구자에 의해 다양한 방식으로 이론화되었다.¹⁶²⁾

gentleman은 이와는 전혀 그 성격이 틀렸다. 컨트리 하우스와 런던의 타운 하우스를 오가며 삶을 향락하던 하급 귀족인 젠트리들이 추구하는 인격성은 신사도(gentlemanship) 혹은 신사문화로 미화, 가공되어 영국 시민사회의 이상적 인간상을 대표하게 되었다. 즉 신사문화는 영국의 경우 “역사적으로 귀족이 시민계층에 흡수되면서 나타나게 되었는데, 그 행동의 표준은 귀족적이며 자아절제를 특징으로 하였다”.

Dietrich Schwanitz,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인성기 등 옮김 (서울: 들녘 2004) 참조.

161) 의사의 권력 내지 의학의 권위를 설명해 주는 이론으로는 대표적으로 깡귀엠, 푸코, 라슨, 스타 등의 이론을 들 수 있다.

162) 가령 자율성을 전문직업성의 핵심으로 본 프라이드슨의 경우 두 단계로 이를 설명하는 데, 첫 번째로는 자신들의 지식과 기술의 효용성을 입증해 보임으로써 사회적

결국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결코 그 역사성과 정치성을 배제하고는 충분히 이해될 수 없다는 점이 중요하다.¹⁶³⁾ 그리고 역사적으로 특정한 목적의 정치적 실현을 위해 도모되었던 전략적 성격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역사적인 측면에서 내포하는 중요한 요소라 할 수 있다. 가령 1950년대와 달라진 지금의 상황에선 추상적인 사회적 정의에 호소하는 피상적 도덕 감정과¹⁶⁴⁾ 표를 의식한 비체계적인 의료복지 관련 입법 등에서 볼 수 있는 근시안적 국가권력 앞에 협상력을 거세당한 채 테이블에 앉아 있는 것이 한국 의사의 모습이기도 하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보다 장기적이고 거시적인 안목의 전략이 절실한 상황이라 할 수 있다.

1950년대 치과의사였던 서만기의 전문직업성을 사회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데 있어서, 그 시대의 사회경제적 조건으로서의 의료시장, 그리고 그 속에서 추구되었던 의사 개인 및 집단의 전략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특히 직업 윤리성과 함께 자율성은 의사의 전문직업성의 속성들 중에서 가장 전략적 측면이 중요하게 결부되어 있는 요소이다. 의사의 자율성에 대해 이를 집단적 자율성, 즉 집단의 내적 통제와 개인적 자율성으로¹⁶⁵⁾ 대별해볼 수 있음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¹⁶⁶⁾ 이런 관점에서 의

인 신뢰를 획득하는 단계이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정치적 권력과 공조를 이루어 내는 것이다.

Eliot Freidson, *Profession of Medicine*. 참조.

163) 이러한 역사성을 바탕으로 향후 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어떤 판도를 보일 것인가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자들의 다양한 전망이 제시되고 있다. Mcdonald처럼 낙관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으며 McKinlay처럼 비관적으로 보는 학자도 있다.

K. M. Mcdonald, **전문직의 사회학**, 권오훈 옮김 (서울: 일신사, 1999) ; J. B. McKinlay, "Corporatization and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Docto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8. no. 2(1988): 191-205.

164) 마이클 샌델(Michael J. Sandel)의 책 『정의란 무엇인가?』는 사회과학 서적이 고전을 면치 못하는 한국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었고, 이후 그의 책들이 줄줄이 서점가 베스트셀러를 장식한 바 있다. 다른 한 편에선 그의 책에 대해 "공리주의와 신자유주의를 공격하는데 바쳐진 책"이라는 혹평도 존재한다.

정규제, "마이클샌델과 구제역과...", **한국경제신문**, 2011월 2월 22일.

165) 사실상 이 역시도 개인의 내적 통제성이라고 볼 수 있다. 후술하겠지만 자율성이 실

료시장에서 의사들이 취하는 전략의 성격도 집단 전략과 개인전략으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서만기를 잠시 보내고 일반 치과의사의 사고 경향을 바탕으로 전문직업성과 관련하여 치과의사 개인이 취하게 되는 전략적 태도에 대해서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¹⁶⁷⁾ 이를 통해 서만기의 인물 특성을 상대적으로 보다 분명히 파악할 수도 있을 것이다.

치과의사 개인은 결국 전문직으로서의 진로 선택에 있어서 전략적 결정을 행한다. 전문가 개인이 개업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좌우하는 데에는 여러 요소가 작용한다.¹⁶⁸⁾ 가령 법조 전문가의 예를 들어보자. 사범연수

제 의료 행위 혹은 환자와의 관계 속에서 구체화 되는 양상은 의학적, 도덕적 소신의 행사 여부 내지 행사 가능성에 달려 있다. 이는 기본적으로 의학지식의 권위와 직업윤리성을 전제로, 의사가 자신의 소신에 따라 행위하는 것이 철저히 보장되어야 한다는 전략에 입각한 관념이라고 할 수 있다. 의사가 자기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인격체로 상정하는 경우 의사의 자율성은 논의 대상조차 될 수 없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자율성(autonomy)은 스스로 통제(regulation)할 수 있는 인격성을 전제로 한다.

- 166) 집단적 자율성은 집단적 전략에 따라 집단 전체가 외부적인 직간접적인 압력으로부터 자유로이 선택 및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조건에 있음을 의미한다면, 개인적 자율성은 개인적 전략에 따라 개인이 직간접적인 압력에 대항하는 선택 및 결정의 자율성을 의미한다.
- 167) 이는 앞서 사회적 측면에서 의료시장 및 의료체계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의사집단의 전략적 성격과 혼동하지 말아야 한다. 굳이 구별하자면 전문직업성과 관련된 전략은 집단적 전략의 개념과 개인적 전략의 개념으로, 즉 서로 다른 층위의 개념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집단적 전략은 사회적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얘기할 때 갈등론적 관점에서 전문직업성을 인식하는 개념이다. 반면 개인적 전략은 개인적 측면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생각해볼 때 의사 개인이 전문직업성을 어떤 식으로 자신의 인생과 관련시킬 것인가를 의미하는, 가치관과 직결된 개념이라 할 수 있다.
- 168) 본 연구의 대상인 치과의사는 의사에 비해 개인의원 형태의 개원을 통해 의료행위를 해나가는 모습이 보다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종합병원 안에서와 같은 조직사회 구성원으로서 가지는 전문직업성의 측면에 대해서는 본 연구에서 크게 비중을 두지 않는다. 본 논문에서 의사와 치과의사 두 직업에 대해 때로 용어의 구분 없이 혹은 불분명하게 포괄되어 사용되기도 하나 본 연구의 구체적 목표는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에 초점을 두고 있는 바, 논의의 방향과 성격은 치과의사의 직무 환경과 직업적 특성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의사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기술된 부분이 사실상 의사, 치과의사 모두에게 해당되는 내용에 해당되거나 의사에게만 해당되는 내용일 수 있으나 이는 해당 부분 내용의 맥락에 따라 읽혀질 필요가 있다.

원을 마친 후 판사나 검사로 남을 것이냐.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차리느냐. 로펌에 들어갈 것이냐가 그것이다. 이는 마치 의사가 대학병원 교수로 남을 것이냐. 개인 의원을 개업할 것이냐. 종합병원에 들어갈 것이냐를 결정하는 것과 비슷하다. 이 두 가지 상황은 상이한 조건 상에서도 특징적인 성격들을 공유하게 되는데, 두 가지 상황에서 모두 첫 번째 선택안은 수익 창출과 관계 없이 경제적 보장이 된다는 측면에서 윤리성이 가장 요구되며 자율성도 가장 크게 부여된다. 반대로 세 번째 선택안은 자신이 아닌 조직의 수익 창출에 개인의 경제적 보장이 연동된다는 의미에서 윤리성이 가장 위협받고 자율성도 가장 제한 받을 가능성이 크다.¹⁶⁹⁾ 두 번째 선택안은 개인의 수익 창출 노력에 따라 자신의 경제적 보장이 좌우된다는 의미에서 윤리성과 자율성의 개인별 상황에 따른 가변성이 매우 크다. 물론 이는 실증성이 완전하지 못한 논리적 유추에 불과하지만, 윤리성과 자율성이라는 두 관점에서 각 선택안의 결과가 의료 시장에서 가지는 위상을 고려하여 예상해 볼 수 있는 사항이다. 이 경우 전문직업성의 핵심요소를 이루는 윤리성과 자율성 중에서 여기에선 윤리성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의미에서¹⁷⁰⁾ 자율성의 측면이 특히 중요한 의미를 띠게 된다. 물론 이 경우는 개인적 자율성을 의미한다. 경력 선택에 있어 윤리성과 자율성의 두 측면에 관한 논의를 시도해 본 이유는 세 경우를 비교하려는 데 있지 않다. 이 경우 치과의사 개인은 전략적으로 자신의 가치관과 자신의 성향에 따라서 선택을 해나가게 된다는 사실이 중요하다.¹⁷¹⁾ 그리고 이러한 과정 속에서 그는 자신의 독특한 전문직업성을

169) 종합병원에 속한 의사(고용된 의사)가 일반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주로 개업의)보다 자율성을 낮게 인식한다고 주장하는 사회학적 설문조사 연구에 의하면, 조직의 규모와 의사의 자율성이 반비례적 상호관계에 있음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손호정, “한국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의 특징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참조.

170) 현실적으로 의사가 자신이 위치한 상황에서 자율성을 행사할 수 없으면 윤리성도 실현되기 힘들어진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71) 가령 병원 봉직의들은 개업의들 보다 경제적 안정성을 더 중시 여기는 경향을 보이는 점은 이러한 개인의 가치관이 반영된 경력 선택의 단면을 보여준다.

구현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볼 때 치과의사 개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직업성은 자신의 일에 있어서의 직무만족도를 좌우하는 매우 중요한 요인이다.¹⁷²⁾ 의사의 자율성과 직무만족도는 긴밀한 상관 관계에 놓여 있을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¹⁷³⁾ 또한 치과의사 개인이 몸담고 있는 자신의 직업적 환경은 그것이 대학이든, 개인의원이든, 종합병원이든, 자신의 전략적 결정이 구체화된 결과로서의 의미를 띠게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자신의 가치관과 성향에 따른 전략적 결정은 치과의사의 개인적인 삶을 상황에 따라 특정한 방식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규정 지을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삶의 방식은 사회적 측면에서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의료 시장 및 의료체계 속에서 그리고 이에 대응해 나가는 의사 개인의 전문직업성의 형태를 몇 가지로 유형화해 보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에서의 의사의 전문직업성 유형화를 위해서는 의사의 직업적 울타리를 벗어난 시각에서 접근해 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가령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유형을 교직관의 유형과 비교해보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볼 때 교사의 교직관 유형과 유사한 측면을 가지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전통적으로 교사의 교직관의 경우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유형화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¹⁷⁴⁾ 성

김원진,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참조.

172) 의사의 경우 전문직업성의 여러 측면들 중 소명의식과 공적 봉사심이 직무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이영현 등,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실태(2008): 전문직의 전문직업성과 직업윤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201, 연구보고서 2008-12-2.

이 연구 보고서의 내용은 전문직업성이 “직무만족도에 중요한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있다.

173) 가령 미국의 경우 managed care로 상징되는 민간의료보험 체제 속에서 의사의 자율성 하락은 수익 감소보다도 직무만족도 감소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보고가 있다.

J. J. Stoddard et al., “Managed care, professional autonomy, and income: effects on physician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 no. 10 (2001): 675-84.

직관의 경우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일종의 직업적 소명의식에 비유될 수 있으며 고도의 윤리성이 요구되는 근거이기도 하며 역사성의 흔적을 간직한 개념이지만, 그런 이유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에도 이미 내포되어 있는 관념이기도 하다. 노동직관의 경우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직무 속성과 거리가 있으며, 전문직관의 경우 지식과 기술, 경험이 강조된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긴 하나 치과의사에 있어서는 당연한 전제에 해당하는 부분이자 전문직업성과는 동어 반복에 가까우므로 유형화의 항목이 될 수는 없다. 방송매체에 형상화된 의사 인물 유형에 관한 연구도 참고할 만한 데 황영미의 경우¹⁷⁵⁾ 의학적 가치관에 따라 인본주의적 의사형과 현실주의적 의사형으로, 환자 대응 방식에 따라 온정적 의사형, 냉정한 의사형, 원칙주의적 의사형, 현실타협적 의사형으로, 개인적 결핍의 유형에 따라 가족관계의 결핍을 가진 의사형, 신체적 결핍을 가진 의사형, 경제적 결핍을 가진 의사형으로 나누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의사인 최보문은¹⁷⁶⁾ 의사들이 전문가로 살아가는 방식이 다양해지고 있음을 지적하며 현대를 사는 의사들의 삶의 실천 유형에 대한 분류를 세 가지, 즉 전통적 의사, 사업적 의사, 라이프 스타일 의사로¹⁷⁷⁾ 제시한 바 있다.

174) 교사의 교직관에 대해서는 표본으로 비교적 최근의 다음 두 개의 논문을 참조했다. 고효상, “담임교사의 교직관이 교사-학생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박영숙, “초등교사의 교직관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175) 황영미, “한국 TV 의학 드라마에 나타난 의사 캐릭터 유형 변화 양상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vol. 5 (2011): 247-80. 참조.

이 연구의 특성 상 종합병원을 배경으로 한 의학드라마를 주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직무 환경 성격과 거리가 있으므로 주로 의사의 성격 측면과 관계된 내용만을 참고하였다.

176) 최보문,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역사적 배경, 개념변화, 선언문 비판,” **대한의사협회지** 54, 11 (2011. 11.): 1130-31.

177) 여기서 라이프 스타일 의사형은 앤서니 기든스의 이론 중 “성찰적 현대성” 대목을 연상시키는 측면이 있다. 앤서니 기든스는 자아의 성찰성에 기반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이슈화하는 ‘라이프 스타일 정치’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한 바 있다.

Anthony Giddens,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박노일, 임영일 옮김 (과주: 한길사,

일반적으로 사회적 측면, 즉 의료시장과 의료 체계를 배경으로 한 치과 의사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치과 의사의 전문직업성과 관련한 유형화는 도덕주의와 상업주의의 이분법을 바탕으로 하여 봉사자적 의사상과 사업가적 의사상으로 도식화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는 고전적, 전통적¹⁷⁸⁾ 의사상으로 인식되기도 하는데 이타성과 환자를 위한 사명감, 그리고 의사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는 헌신을 지향하는 의사상으로서 이러한 의사의 진료행위는 의료서비스의 개념이 아닌 봉사나 의무의 의미를 가진다. 후자의 경우는 이와 반대로 의료 행위를 하나의 사업의 일환으로 생각할 뿐 헌신과 봉사로 보지 않는다. 친절함과 고객과의 신뢰 형성을 중시하지만 이는 직업적 성공을 위한 자본주의적 합리성의 표현으로 나타난다는 점이 전자와 구별된다.

소설 속 서만기의 경우 이러한 도식을 대입하여 보자면 환자를 위한 봉사자적 성격이 특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으며 사업가적 의사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나 뚜렷이 드러나진 않는다. 분명 그가 상업주의에 적극적으로 충실하려는 인물이었다면 병원의 사활이 달려있는 상황에서 봉우치의 유혹에 것처럼 저항하기 보다 편하게 굴복하거나 반대로 여자의 유혹을 적절히 이용하거나 했을지 모른다. 하지만 그가 결국 파산의 지경에 내몰리게 된 것은 기업가적 정신이 부족해서라기 보다는 궁핍을 강요하는 극단적인 부양 의무 및 그의 가치관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도덕주의와 상업주의로 대별되는 의사의 윤리성과 시장의 경제적 상황은 상호 침투적인 영향 관계에 놓여있다. 소설이 아닌 현실 속에서 치과 의사가 서만기처럼 자신이 처한 경제적 상황과 독립적으로 움직이기는 쉽지 않다. 즉 치과 의사 개인 안에도 사업가적인 측면과 봉사자적인 측면은 공존한다.

2008) 참조.

178) 전통적, 고전적이라는 인식은 전문직업성의 역사성을 고려했을 때 의사 집단이 대중을 상대로 히포크라테스 선언과 같은 윤리성을 강조한 측면과 연관하여 이해될 수 있다.

그런데 여기서 유념할 점은 사업가적 의사 상이 윤리에 반하는 행위를 합리화하는 모습은 아니며(즉 법에 처벌 받을 수 있는, 환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진료 등의 명백한 비윤리성은 기본적으로 배제), 윤리성을 소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령 의사의 자율성을 악용하여 환자에게 도움되지 않는 불필요한 진료를 의도적으로 하는 경우 만을 문제 삼음), 적극적으로 해석할 것인지(가령 의사의 도덕적 소신 즉 자율성을 행사하지 못하고 환자의 요구나 병원의 요구에 따르는 경우도 문제 삼음)의 문제의 소지가 남는다는 사실이다.

이타성이나 헌신, 봉사와 같은 도덕성 요소들은 사실상 철학적으로 애매모호한 개념이기도 하거니와 의사가 개인의원에 찾아오는 환자와 마주하는 일상의 현실에서 진료적인 측면에서나 관계적인 측면에서 선명하게 규정짓기도 힘든 측면을 가진다. 안철수와 같이 의사에서 아예 사업가가 되었던 사람이라 해도 그가 의사로 있을 때 봉사 정신이나 도덕성을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았으리라고 주장할 근거는 없다. 특히 현대에 와서는 의사를 포함해 사회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민주화된 현대사회의 대부분의 직업에서 윤리성은 마땅히 추구되어야 할 자질이자¹⁷⁹⁾ 일종의 경쟁력 혹은 권력을 제공하는 자질이기도 하다. 마치 대기업의 기업 이미지 광고에 서처럼 혹은 지하철공사 노조의 지하철 광고처럼 고객을 위해 헌신하는 모습은 사업가적 의사상에서도 얼마든지 중시될 수 있다.¹⁸⁰⁾

179) 실제로 19세기 영국 의사 사회에서도 의사의 직업윤리성을 특별히 규정하는 것에 거부감을 보였던 적이 있었는데, 그들은 귀족적 신사도에 입각해 환자를 정당하게 대하는 것의 중요성이 시민적 전문성에 입각해 환자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가치에 잠식당하는 것을 우려하는 입장이었다.

R. Baker, et al., *The American medical ethics revolution: how the AMA's code of ethics has transformed physicians' relationships to patients, professionals, and societ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참조.

180) 대중에게 인식되는 의사 이미지, 즉 의사상은 역사적으로 늘 그래왔지만 특히 최근에 와서 현실적으로 의사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의사에 대한 대중의 인식 변화는 탈전문화와 관련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쟁점 중 하나이다. 따라서 어떤 식으로 대중에게 의사의 이미지를 긍정화 해나갈 수 있을지에 대한 장

소설 「성채(The Citadel)」의 앤드류 멘슨이 소설 후반부 순수함을 잃고 부와 명성을 쫓아 성공 가도를 달리다가도 결국 자신의 내면 깊이에 있는 도덕성을 망각할 순 없었기에 각성에 이르게 된다는 서사구조는 (작가 자신이 의사였기에) 1930년대 영국 의사 사회의 보편적인 정서에 기초해 있었다고 볼 수 있다.¹⁸¹⁾ 사실상 도덕주의 이데올로기가 강하게 지배하는 의료 시장 속에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도덕성과 대비되는 다른 가치로써 구체화, 유형화하고자 하는 시도는 사회적인 오해를 불러일으킬 것이다.

자유주의적 윤리, 특히 공리주의를 둘러싼 현대 철학의 고민이 정의(justice) 문제와 맞물려 사회학과 정치학에서 제기하는 문제들은 의철학에서도 재현될 수 있는 상황이다.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는 사업가적 의사상에 맞서서 의사의 직업윤리성을 헌신과 봉사 등의 단순한 도덕성 관념으로 엮는 시도는¹⁸²⁾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구체화 하려는 작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 즉 공리주의 등을 포함한 현대의 윤리학적 논쟁(ethical controversies)에 대한 인식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상업주의 대 도덕주의의 구도에서와 같이 직업윤리성을 일차원적으로 단순화하는 이러한 시도는 그 결과로 필수적인 윤리성을 구현해내기 위한 최소한의 구체적인 행위 기준 내지 지침을 결정짓는 방향으로 논리가 전개될

기적인 전략적 접근이 필요할 때라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의사들은 대중과의 갈등적 관계에 놓여 있을 때 자율성의 감소를 느끼기 쉽다고 연구된 바 있다.
손호정, 23.

181) 소설 「성채」가 영국 NHS 시스템의 창립을 초래하였다는 기존의 영국 인문의학계의 주장을 반박하는 연구가 나오기도 했다. 즉 크로닌(A. J. Cronin)은 오히려 국가의 의료 통제에 반대하는 영국 의사들과 입장을 같이 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S. O'Mahoney, "AJ Cronin and The Citadel: did a work of fiction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the NHS?" *The journal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Edinburgh* 42, No. 2 (2012): 172-78.

182) 이는 편하게 윤리성이 강조되거나 (극단적으로는 의사 자신의 희생) 아니면 희박하게 인식되거나 (극단적으로는 환자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희생시킴) 하는 양 극단 사이의 논리 구도에 결박되어 결과적으로는 윤리성을 얼마나 중요하게 인식할 것인가 하는 수준에 논의가 머무르게 된다.

수밖에 없는 논의 구조를 가진다.¹⁸³⁾ 따라서 도덕주의와 상업주의에 기반한 전문직업성 구분은 의사의 삶의 두 양식을 비교 논의하는데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직업성에 입각한 직업적 윤리의 당위성을 환기시키는데 의미를 가질 뿐이다. 그 결과 의사 집단 전체적으로 전문직업성에 있어서 문제는 윤리성이 아닌, 자율성에 있음을 간과하게 된다.

위의 전문직업성의 유형 분류에서 두 번째 유형인 사업가적 의사상을 이기주의나 비도덕성과 같은 윤리적 잣대로 재단하지 않고 상대성의 관점에서 접근해본다면, 또 이를 병의원의 소유자로서의 한국의 개업의의 실정에 대입해 설명해 보자면, 이론적으로 이런 유형의 의사라면 전문직업성 중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 같은 요소들 이외의 어떠한 특성도 전문직의 권리나 책무로서 내세우길 꺼려할 것이다. 즉 두 번째 유형의 의사에게서는 의학지식 정보가 이미 다 노출된 의료시장에서 그리고 소비자인 환자들의 의료서비스 구매라는 엄연한 환경 속에서 의사의 자율성과 의료윤리가 환자 이탈 가능성이라는 비용(cost)을 전제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이 수긍된다. 그 결과 경제적 현실 앞에 혹은 환자의 요구 앞에 의사의 자율성 혹은 적극적 윤리성추구는 포기될 수도 있음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¹⁸⁴⁾ 또한 집단의 자기통제 방식에 순순히 응할 순 있겠지만 자신의 의사 면허를 유지시키기 위한 목적 외에 별 의미를 두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대우 혹은 전문직이 갖는 권력도 주어진다면 기꺼이 누리겠지만 사라진다고 해도 상관하지 않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유형은 보다 높은

183) 실제로도 (치과의사) 협회 차원에서 관심이 있는 주제는 아마도 윤리 지침의 세목과 수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 될 것이다. 하지만 개인의원 단위의 의료활동을 주로 하는 치과의사의 직업 특성 상 병원 내의 위계 관계를 중시하는 의사에 비하면, 개인의 독자성을 감안한 전문직업성에 관한 논의가 치의학 학문 영역에서는 (인문학과 관련하여 그것을 인문치의학이라고 이름 붙이든 인문의학의 영역을 공유하든 상관없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다.

184) 즉 환자가 요구하는 비윤리적인 진료를 의사가 거부하는 데 있어서 사업가적 의사상은 환자 이탈의 가능성을 크게 고려할 것이고, 봉사자적 의사상은 순수하게 환자에게 무엇이 도움되는가에 따라 행위하도록 지시할 것이다.

효용을 안겨줄 수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함으로써 직업적 보람과 함께 개인적인 자아실현을 추구할 뿐이다.

결국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사회적인 측면에서 봉사자적, 사업가적 의사상으로 나누는 유형 분류는 이항대립적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힘들다. 결과적으로 사업가적 의사상은 전문직업성(그 핵심 윤리가 상업주의에 대항하는 도덕주의로 단순화 된다 해도)의 또 다른 유형이라기 보다는 전문직업성의 속성이 희박해진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에 해당하는 의사의 삶의 방식임을 알 수 있다.¹⁸⁵⁾ 그리고 이를 결정짓는 기준은 직업윤리성 그 자체보다는 자율성으로부터 연역된다. 도덕적, 학문적 소신의 관철 여부 혹은 관철 가능성이 그것인데, 즉 소신을 가지고 자율성을 행사하려는 의사상이 다름 아닌 봉사자적 의사상이며 자유주의적 시장 논리 즉 환자의 진료 선택권과 자율성을 맞바꾸는 의사상이 기업가적 의사상이라 볼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의사의 탈전문화는 의사가 자신의 자율성을 (집단의 자율적 통제 포함) 포기하게 되는 혹은 포기할 수밖에 없게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다. 이는 의료의 질 관리를 명목으로 한 외부 집단(그것이 정부가 되든 소비자 단체가 되든)의 개입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는데, 비유하자면 교사들에 대한 교육부의 교원 평가와 같이 정부에 의한 적극적인 의료행위 감독(진료의 기준 마련부터 면허박탈 제재까지)이 의사집단의 자율적 통제를 완전히 대체하게 되는 상황으로서,¹⁸⁶⁾ 전문화

185) 주지하다시피 기업가 정신은 경영학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단어로 쓰여지고 있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의료의 공공성이 강한 유럽에서는 1990년대 이래로 전통적인 전문직업성의 논리를 기업가 정신으로 보완 내지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W. T. Koelesijn, "Intra-organizational dynamics as drivers of entrepreneurship among physicians and managers in hospitals of western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5, no. 5 (2012): 795-800. 참조.

186) 이 경우 전문직업성의 자율성을 집단적 자율성과 개인적 자율성으로 구분하여 집단적 자율성이 어떤 식으로 외부요인에 의해 제한 받게 되는지를 개인적 자율성에 관한 차원과 구별하여 이해할 필요가 있다.

가령 최근 정부에서는 창조경제 정책 일환으로 정규직 시간제 일자리 사업을 추진

는 이 경우 공식적으로 종료된다고 봐야 한다.¹⁸⁷⁾

또한 전문직업성의 양상을 사회적 측면에서 상업주의와 도덕주의에 근거해 형상화하는 이러한 방식의 유형분류는 다양성과 개방성을 특징으로 하는 현대 사회적 조건을 고려해 볼 때 전문직업성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의 제기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유형화 자체 보다는 전문직업성 자체에 대한 역사성과 관련된 문제로서, 가령 극단적인 갈등론의 입장에서

중인데, 국공립학교 교사에 있어서도 정규직 시간제로 3600여명 가량을 신규 채용하겠다는 발표가 나온 상황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정부에선 일반교사와 다른 별도의 임용 절차와 연금 수급 규정을 두겠다는 구체적인 내용까지 마련하고 있다. 이는 교사의 집단적 자율성이 완전히 정부 정책에 의해 대치되는 상황을 보여주는데, 사실상 교사 집단 보다 정부가 보다 치밀하고 정교한 전략에 입각하여 행동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정부는 교사 개인들의 반발을 우려하여 연금이나 신분 보장 등의 민감한 사안에 있어서는 교사 개인의 자율성이 침해받지 않도록 만드는 대신 교사 직업 전체적인 자율성을 정책적으로 삭제, 폐기하는 전략을 채택한 셈이다. 이는 의사의 전문직업성에서 있어서도 쉽게 확인된다. 세계적으로 가장 정부 주도권이 강한 한국의 의료시장의 구조는 사실상 의사 개인의 자율성을 정부가 직접적으로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의사 집단 전체의 자율성을 반감시키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결과라고 볼 수도 있다. 가령 보건복지부는 최근 불법 사무장 치과의원 영업으로 기소당한 모 치과 네트워크에 대한 사안에서는 치과의사들의 여론을 감안해 치협의 편을 들어주면서도, 치과의사 과잉공급 문제에 대한 개원의들의 문제 제기에 대해서는 (치과대학 및 교육부와 보조를 맞추며) 방관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상 의료시장의 주도권을 정부가 내어놓지 않으려는 전략에 입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성철, “교총, 시간제 정규직교사 ‘철회하라,’” **한국교육신문**, 2013년 11월 25일, 1-2.

강은정, “치협정책토론회: 치과의사 인력, 이대로 괜찮은가?” **치의신보**, 2013년 11월 21일, 9.

- 187) 이러한 의사의 탈전문화에 대한 한국적 상황에서의 본질적 원인에 대해서는 박호진은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한국의 의료시장의 주도권이 의사들로부터 “국가자율성 혹은 국가조합주의”로 넘어가게 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반면 반자유주의적인 관점에서 강신익은 의사를 바라보는 대중 의식의 성장과 의료 산업화를 통한 자본의 잠식을 탈전문화의 주된 요인으로 언급한 바 있다. 조병희는 갈등론적 관점에서 의사 사회 자체의 전략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고자 했다.

박호진, 20.

강신익, “치과전문직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23 (1989. 겨울): 294-315.

조병희, “개업의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 (1994): 37-64.

보면 전문직 집단 자체의 논리에 토대를 둔 의학전문직업성이라는 개념은 애당초 전문적 지식이나 윤리성, 자율성 등의 실체적 의미로서 기능하는 현실이 아닌, 단지 이익 집단의 레토릭에 지나지 않을 것이며, 마르크시즘적 관점에서 보면 자본주의 사회구조의 외적 현상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¹⁸⁸⁾

다시 돌아가서 치과의사 서만기를 불러오도록 해본다. 사회적 차원에서 그에 대한 치과의사로서의 이미지를 봉사자형으로 볼 것인가, 사업가형으로 볼 것인가의 물음은 얼핏 명확해 보이면서도 사실상 그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총체적인 질문이 될 것이다. 그가 전문직업성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다면, 그의 성품과 인격을 감안하여 봉사자적 의사상에 가까웠다고 할 수 있겠으나, 그가 그런 인식을 이미 어렴풋하게나마 가지고 있었다면(아마도 그러했을 것이다) 치과의사로서 주어진 봉사자적 의사상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스스로 노력했다고 볼 수 있겠다. 그가 사업가적 의사상을 추구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며 이는 그가 기업가 정신을 멀리 했다고 보다는 미약하게나마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인식에 구속되었던 탓이라고 볼 수 있다. 그는 자신의 윤리적 소신을 지키기 위해 틀림 없이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했을 것이며 화자에 의해 묘사된 데로 출중한 지식과 기술을 소유하고 있었던 만큼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성에 충실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었다. 하지만 도덕주의와 상업주의의 의료시장에서의 동시적 구현성에 주목해 볼 때, 그리고 애매모호한 의미론적 한계를 가지고 이데올로기화하여 의료시장을 지배하면서 지나치게 단순화되어 현실적 의미를 상실한 도덕주의의 속성을 감안해볼 때 이러한 유형 분

188) 가령 나바로(Vicente Navarro)의 경우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의료를 탈정치화하는 기제일 뿐이라고 본다. 의료전문직은 그들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 없이 즉 그 계급적 기원과 구성, 위계, 지위, 수입에 의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적 의료가 요구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사실상 의료 관리직일 뿐이며 자본가 계급의 이익에 복무하는 집단인 것이다.

Vicente Navarro, **현대 자본주의와 보건의료**, 보건과사회연구회 옮김 (서울: 한울, 1989) 참조.

류는 전문직업성을 스스로 부인하고 전문직업성 자체에 대한 회의론을 가져올 뿐이다.

개인의원 내에서 일상적인 진료행위를 해나가는 치과의사 개인의 성향과 가치관은 이러한 사회적인 측면에서의 윤리성과 자율성 등으로는 결코 유형화될 수 없는, 예컨대 문화적 측면에서의 특성들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회적 측면의 전문직업성은 문화적 측면의 전문직업성 요인들과 상호작용하여 전체적인 치과의사로서의 그의 상, 즉 궁극적으로는 그의 인격적 특성을 형성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볼 때 치과의사라는 직업은 이렇듯 1950년대의 그리 다양하지 않았던 직업 구조 속에서 전문직으로서의 직업성 고찰의 대상이 되는 사회적으로 축복받은 직업이자, 서구 근대의학의 한 켠에 자리잡은 인간과 질병에 대한 성찰을 내면화한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는, 인격적인 측면에서 매력 있는 직업이기도 했다. 소설 속 서만기의 모습에 독자로서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요인에는 1950년대 치과의사로서 그가 가지고 있는 혹은 가져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전문직업성의 속성, 즉 윤리성과 자율성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다면적 복잡성, 그리고 그에 기인하는 잠재된 긴장 요소가 주인공 치과의사의 인물형 창조에 일정하게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제5절 직업문화적 측면에서

의료체계 및 의료시장과 긴밀한 관련성을 맺고 있는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자신의 삶의 현실적 조건인 치과의원 속에서 일상적 삶의 형태를 통해 드러나게 된다. 개별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이 구체적인 진료 행위로 드러나는 공간이라는 의미에서 개인 치과의원은 치과의사 개인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사회학적 연구의 중요한 대상이자 문화적

분석의 대상이 되기도 한다. 개인의원 내에서의 치과의사 개인의 전문직업성은 치과의사 자신의 진료 철학 내지는 인간에 대한 가치관 및 자신의 성향과 일정부분 관련을 맺는다. 치과의사들은 치과의원 공간 내에서의 일상적 진료행위를 통해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토대로 한 전문직업성을 구현해 나가는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의료인으로서의 자신의 상(像)을 내면에 구축하게 된다. 이는 치과의사로 개원을 하여 살아가는 자신의 자아에 얼마나 만족을 하는지는 실증적인 치과의사 직무만족도 연구 결과로는 가늠하기 힘든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치과의사로 형상화된 서만기에 대한 전문직업성 논의는 필연적으로 치과의사로서의 그의 윤리성과 자율성에 더하여 그의 개인적 성향과 가치관을 함께 결부시켜 살펴보는 과정이 필요하다. 앞서 서만기의 인물 특성을 살펴봤던 이유도 여기에 있다.

또한 개인적인 차원에서 치과의사가 전문직업성을 구현해 나가는 과정은 자신의 특성을 고려한 선택과 함께, 그가 몸 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 요소에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는 의료시장이나 의료체계와 같은 사회적 측면의 의료 환경 조건과는 다른 성격을 가진다. 실제로 전문가가 자신의 전문직업성을 구현하기 위한 현실적 직업 조건을 선택할 때 사회적 측면과 문화적 측면은 대등하게 매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질 것이다.

본 연구에서처럼 문학적 형상화 연구의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문화적인 측면에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 유형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도 필요하리라 본다. 즉 치과의사 개인의 의사상을 구체화 시키기 위한 시도로서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의 양상을 개인의 성향과 배경 문화적인 특성에 입각한 유형 분류를 통해 고찰해 보는 것이다. 실제로 이를 통해 소설 속 인물인 서만기의 인물형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이해를 시도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물론 이러한 도식화를 통한 논의는 위의 사회적 측면의 유형화와 마찬가지로 역시 일정한 한계를 가지긴 하지만,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관한 연구가 가지는 다소 추상적인 한계성을 감안해 볼 때 이러한 의사 개인의 삶의 현장에 대한 미시적인 접근은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의사상을 논의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는 의사의 직업문화적 차원의 논의이기도 하다. 여기서 직업 문화와 전문직업성의 차이를 짚고 넘어가는 것도 필요할 것 같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주로 의사가 전문직이라는 개념에 기초하여 집단적으로, 역사적으로 드러나는 여러 특질에 초점을 맞춘다. 반면 직업문화는 일종의 집단문화, 즉 전체사회 내의 하위 문화(subculture)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보통의 일 혹은 노동 (예: 아이들을 돌보는 일)이 사회적으로 하나의 직업 (예: 유아교육)으로 인정받게 되면서 일종의 직업문화가 생겨나게 되는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의사의 직업문화는 전문직업성을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직업문화는 직업에 따라서 다양할 수 있다. 역사적으로 조직을 바탕으로 한 노동 문화는 통제의 간접적인 형태로서 발달해온 측면이 있다.¹⁸⁹⁾ 사다리모형으로 서열화된 조직 속에서 피고용인들은 승진을 위한 경쟁 구도에 빠지게 되면서 부지 불식 간에 집단주의적 문화와 함께 뒷담화 문화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 반면 의사 등 조직 자체 내에서 기능하는 직업이 아닌 자체 완결적이고 상대적으로 많은 자율성을 누리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개인주의적 문화와 함께 사회적 무관심의 경향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서는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없기 때문에 단정 짓기 힘든 부분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전문직업성을 띠는 후자에 있어서는 조직에 고용된 경우에도 위계와 조정 등을 강요하는 조직 경영자층과 갈등에 빠지는 경향을 예상해 볼 수 있다. 이는 직업 문화의 상이성에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다른 직업들 가령 교사들의 직업문화, 이른바 교직문화를 예로 들자면 이에 대해 상당히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편이다. 다음은 어느 박사논문에서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면서

189) 유흥준,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2000), 34.

교직문화에 대한 정의를 보여주는 내용 중 일부이다.

교직문화는 교직활동을 이끄는 공유된 원리나 인지적 기준을 의미하는 것으로 교사집단에 속한 개인 교사가 교직활동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형성된다(이인효,1990). 교직문화는 교직 신념과 관련하여 교직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교사들이 공유하는 구체화된 지식으로(Feiman-Nemser& Floden,1986), 다른 직업 종사자들과 구별해주는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과 감정 및 사고방식이다(Lortie,1975).이러한 교사들의 독특한 성향과 사고방식은 교직에서 직업적 대응 전략(Woods,1986)으로 나타나며, Kardos(2004)는 교사들 간에 우세하게 만연되어, 교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결정하게 하는 가치와 제도,그리고 교사 간의 상호작용과 행동의 기준을 포함한다고 하였다.¹⁹⁰⁾

여기서 인상적인 부분은 교사들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성향과 감정 및 사고방식”을 언급한 부분이다. 의사들에게 있어서도 전문직업성은 개인 차원에서 개별 의사의 성향과 감정, 사고방식과 긴밀히 맞물리는 측면을 가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의사의 전문직업성을 의사 개인의 성향 혹은 문화적 배경에 결부시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두 특성을 기준으로 삼아보는 것도 효과적일 수 있다. 본질 상 도덕성의 문제와 연관될 수밖에 없는 사회학적 유형화와 달리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개인적, 문화적 측면을 기준으로 유형화하는 논리구조를 활용하면 특정한 사회문화적 조건 속에 살고 있는 의사 개인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190) 조혜선, “유치원 교직문화 분석: 경력교사 10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15. 이 논문에서 특기할 만한 내용은 유치원 교직문화의 내면기제로 집단주의 문화를 언급하고 있는 점이다. 그 부분도 함께 인용해본다. "..... 집단주의 성향이 짙은 유치원 교사들은 개인적인 목표를 억제하는 성향이 보였다. 그러나 유치원 교직에 도움이 되기 위해 교사집단 안에서 상호협력을 추구하면서도 주체적으로 교사 자신을 개선해 나가는 능동적 자기억제와 동시에 적어도 교직에 해가 되지는 않아야 된다는 수동적인 자기 억제를 하는 것이 유치원 교직문화의 내면기제로 나타났다."

유익한 측면이 있다.¹⁹¹⁾ 원래 집단주의와 개인주의는 개인심리학적 차원이 아닌 상이한 문화권의 특성과 차이에 초점을 두는 비교문화적 개념이다.¹⁹²⁾ 또한 이는 구조주의 인물 형상화에서 선호하는 이항대립(binary opposition)을 위한 효과적 도구가 될 수 있음과 동시에 이미 검증된 효과적인 문화심리학적 분석 구도이기도 하다.

1950년대는 의학지식 정보의 보급도 극히 미미하고 소비자주의도 약했으므로 의료시장 조건이 지금과는 달랐다. 지금과는 판이한 사회적 상황을 묘사한 1950년대 전후소설에 이러한 문화심리학적 유형화와 분석을 시도함으로써 시공간을 넘어선 그리고 시공간을 통한 전문직의 직업성 탐구를 보다 객관적으로 시도해볼 수 있다.¹⁹³⁾ 그리고 이를 통해 개인이나

191) 사회심리학에서는 기존의 인간의 사회적 행동을 하나의 보편 원리에 입각해 설명하려는 시도가 무의미 함을 많은 학자들이 지적하였다. 가령 지극히 미국적 환경에서의 심리학적 이론화 작업의 결과를 미국과는 상이한 문화권의 개인 혹은 집단에게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비교문화적 차원에서 가장 설명력 있는 틀로서 호프스테드(Hofstede)에 의해 제시된 것이 개인주의(collectivism)와 집단주의(individualism)이다.

G. Hofstede,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참조.

192) 개인주의, 집단주의를 문화적 성향이 서로 다른 문화권이 아닌, 하나의 문화권 내에서도 각 개인 혹은 각 집단 사이에 다양하게 표출될 수 있음에 착안하여 트리안디스(Triandis)는 개인중심성(idiocentricism)과 집단중심성(allocentricism)의 틀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Harry C. Triandis,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Press, 1995) 참조.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단순히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라는 개념의 본질만을 차용하기로 한다. 실제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에 대한 논의는 수직성과 수평성의 개념이 추가되기도 하는 등 더욱 발전하였지만 대부분의 연구들은 설문 통계를 통한 실증적 연구방법, 즉 설문지, 척도, 체크리스트 등을 이용한 양적 통계방법에 의존하는 데서 오는 한계를 가진다. 가령 Triandis가 주도하여 조사한 한 연구에서 한국의 대학생은 수평적 개인주의자가 가장 많고 수직적 집단주의자가 가장 적은 순으로 빈도가 나타났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와 표본집단의 특성을 감안한다고 하여도 한국 사회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의 체감 인식과는 거리가 먼 결과이다.

H. C. Triandis and M. J. Gelf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 (1998): 118-128.

193) 전문직업성의 유형 분류를 대입하여 오랜 예전의 소설 속 인물의 형상화를 분석해

사회가 가지는 전문직업성의 특징적 양상이 일정한 시간적 흐름 속에서 드러나는 변화의 추세를 보다 가시적으로 살펴볼 수도 있다. 1950년대 전후 사회의 상황을 배경으로 한 치과의사의 모습이지만 가치의 혼란과 부재, 물질중심의 가치에 전도된 사회적 분위기 등은 지금의 한국사회 모습과도 공유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한다. 또한 이를 단순한 도덕성의 차원에서 근대의학에 대한 성찰 측면으로 귀결시키기에는 현실의 복잡성과 다양성은 너무나 절박하다.¹⁹⁴⁾

특히 이러한 문화적 측면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접근은 의사-환자의 관계 및 치료 과정 안에서 의사가 절대적인 윤리원칙을 늘 적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는 않는다는 점을 감안할 때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관계의 상호성과 주관적인 인식으로 인해 환자와 의사 사이에 윤리성의 절대적 기준을 수립하기 보다는 의사 환자가 상호 호혜적인 영향을 끼치게 되는 전제 하에 공동으로 관계를 창조해 나가는 상황이 보다 바람직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 서서 지나친 문화적 상대주의를 견제하는 바탕 위에 환자와 의사, 의사와 의사 상호간의 주관적 일치를 이끌어 낼 수 있는 문화적 차이의 인식을 문화적 유사성의 인식과 연결시키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를 통해 의사는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가지면서도 차별성을 허용해주는 소위 기본적 심리학적 원리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다원화된 사회에서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이 현대적, 도덕적 가치와 규범에 적응되기 위해서는 수정되어야만 함을 시사하기도 한다.

보는 것은 결과적으로 소설 속 치과의사의 형상화라는 주제가 문학적 탐구의 관점을 넘어서 의학교육과 의사상 정립 등 현재적 관점을 지향하고 있는 것과도 관계된다. 인문치의학의 관점에서 볼 때, 또 치의학교육에 있어서의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보더라도 치과대학생들에 대한 역할 모델(role model)은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194) 이와 관련해 국내 치과위생학 교육의 활성화 방안을 다룬 연구에서 “탈근대적 역사 인식을 도입해 현재와 미래 사회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보이기도 한다.

이주연, “치과대학 치과위생학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13, 2(2010. 12.): 47.

결국 의사는 자신의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자각해야 한다. 자신의 가치관, 태도 등을 자각하고 있어야 하며 이러한 가치와 태도가 의사 환자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인식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의사는 자신이 인생의 어떤 목적으로 의료 전문직의 경로를 걷고 있는지, 현재 어떤 개인적 욕구에서 의료 행위를 하고 있는지, 자신의 욕구와 행동이 환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명히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의사 자신의 내면의 성향을 문화적인 관점에서 성찰해보고 성향에 따른 전문직업적 정체성을 구축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인 의사 환자 관계를 형성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집단주의는 개인 자신을 집단에 소속시켜 사고하려는 성향으로, 개인주의는 개인 자신이 집단으로부터 벗어나서 사고하려는 성향으로 개념 정의해볼 수 있다.¹⁹⁵⁾ 두 경우 모두에서 의사로서의 기본적인 윤리성 즉 환자의 건강 회복을 그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하는 도덕성은 공유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집단주의형 전문직업성은 의사 개인의 자율성도 중시하긴 하지만 자신이 속한 단체의 대세론적 행위유형을 따르거나¹⁹⁶⁾ 혹은 그보다 작은 자신이 속한 내집단(in-group)¹⁹⁷⁾ (지역사회 포함) 속에 자신을 확고히 위

195)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는 마치 자유주의나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 정의와도 같이 학문적인 의미 내용과 대중적으로 사용되는 의미 내용 사이에 괴리가 심하며 학문적으로도 그다지 개념 정립이 잘 되어 있지 않은 편이다. 본 연구는 심리학 연구는 아니므로 집단주의와 개인주의에 대한 국내 선행 연구 실적을 참조하기 보다는 호프스테드나 트리안디스를 통해 윤곽이 잡힌 기본 개념만을 차용하여 논의를 전개한다.

196)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전문직업성의 차원에서 개인적 자율성 보다 집단적 자율성에 더 의미부여를 하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197) 사회정체성이론(social identity theory)을 통해 만들어진 용어로 내집단은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는 집단, 외집단(out-group)은 개인이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는 집단이다.

치시키고자 한다. 무의식적으로라도 전문직으로서의 권력 혹은 권위에 자신을 일체화시켜 그에 편승하려는 경향을 가진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내 집단이나 전문직 단체의 논리나 주장에 (그것이 환자의 건강을 위한다는 명제 하에) 환자들이 당위적으로 복종 혹은 순응하도록 강요하기 쉽다. 그로 인해 환자와의 관계에서 갈등을 빚거나 같은 의료업에 종사하는 다른 전문직과 갈등을 겪기 쉽지만, 가족과 같은 정서적 유대를 형성함으로써 그러한 위험 가능성을 상쇄시킬 수 있다. 집단주의적 전문직 윤리성은 사회적 측면에서의 전문직업성의 역사성에 뿌리를 둔다.¹⁹⁸⁾ 전통적인 전문직업성에 관련해 언급되어지는 윤리 덕목들, 즉 히포크라테스적 헌신, 소명의식(은총을 받은 지위에서 은혜를 베풀), 신사도 (환자를 약자로 보아 배려) 등에 의미를 두게 될 것이다.

개인주의형 전문직업성은 자유주의적 직업태도를 추구하며 전문직으로서의 의사 개인의 자율성 확보를 무엇보다 중시한다. 따라서 외적 간섭과 규율의 구속을 꺼려한다. 자신이 몸담고 있는 전문직 단체의 주장에 심정적으로 동화하기 보다 논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조 내지 비판적인 입장을 취한다. 하지만 의사 단체의 중요성을 부정하지 않는데 이는 자신의 의료행위의 자율성은 단체의 권위에 일정부분 의존하기 때문이다. 집단의 가치와 거리를 두는 탓에 윤리관은 공리주의에 가까우며, 의무론적 규범 윤리학에 기대어 의사의 태도와 가치관을 판단하는 것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진다. 개인주의적 전문직 윤리성은 인문학적인 보편성에 기반을 둔다. 즉 실존주의, 사실주의등 다양한 사조를 통해 물질주의적 가치를 극복하고 의학이 걸어온 길을 성찰하는 것이 개인주의적 윤리성의 핵심일 것이다.

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사회학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2006) 참조.

198) 그 이유는 의사 단체가 전문직으로 발전한 역사 자체가 집단주의적 전략의 결과라는 사실에 기인한다.

위와 같은 구분은 문화심리학적인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개념에 근거하여 이론적으로 두 경향성에 대하여 이항대립적인 구도로 서술한 것이다. 본 논문에서 치과의사 형상화의 실험적 대상인물이라 할 수 있는 서만기는 위의 유형화된 전문직업성 분석의 틀을 대입해보았을 때 1950년대 사회적 환경의 영향을 투영하고 있는 측면도 있으며 일반적인 다른 치과의사들과 비교해서 독특한 특성도 가지는 것으로 설정되었음을 알 수 있다. 기본적으로 그는 전문직업성을 떠나서도 1950년대 당시의 가족 중심의 집단주의적 가치관을 내면화 하고 있는 전형적인 시대적 인물로 그려져 있다.¹⁹⁹⁾ 그리고 이는 서만기의 윤리관을 이해하기 위한 출발선이기도 하다.

친동생들을 학교에 보내면서 처제들이라고 모르는 체할 수는 없었다. 은주와 그 두 동생까지 모두 여섯명이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에 집어넣었다. 그들의 학비와 열네 식구의 생활비를 위해서 만기는 문자 그대로 고혈(膏血)을 짜 바쳤다.

이타주의나 헌신을 떠나 이는 자신과 관련을 맺고 있는 친족 집단의 구성원들을 모르는 채 하지 못하는 가족주의적 성향의 발로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서만기의 집단주의적 성향은 소설 곳곳에서 직접적으로뿐만 아니라 작중 다른 인물의 심경 표현을 통해 간접적으로도 묘사되어 있다. 이는 당시 한국 사회의 경제적 상황 및 정서적 분위기와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

199) 이는 개인주의, 집단주의 문화의 관점에서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이중성과 관련하여 이해될 필요가 있다. 미국으로부터 자유주의, 개인주의가 급속히 유입되고 도시화되는 가운데 개방적 사회로 변모해 갔지만, 전쟁의 극한 상황을 경험한 도시인들은 외지인에 대한 신뢰가 상당히 약화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족 이기주의나 연고주의가 강하게 뿌리내리게 되었다.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서울: 전통과현대 2001) 참조.

그러한 형부가 보잘것없는 가족들을 위해서 노예처럼 희생당하고 있다. 형부를 위해서는 이따위 가족들이 온통 사라져 버려도 좋지 않을까. 불공평한 현실 속에서 가족을 위해 죄인처럼 고민하는 형부를 생각할 때 은주는 속으로 혼자 울며 그렇게 중얼거리 보기도 했다.

노동분업에서의 직업적 관리측면에서 볼 때도 그는 집단주의형 전문직업성을 가지고 간호사 흥인숙을 대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치의전(齒醫專)을 나온 이래 십여 년간의 의사 생활을 통해서 수많은 간호사를 부러 보았지만 인숙이만큼 만족하게 의사를 돕는 솜씨도 드물었다. 가려운데 손 가듯이 빈 구석 없이 만기를 받들어 주었다.

그에게 있어 간호사와 치과의사의 관계는 개인주의형 전문직업성을 바탕으로 한 수평적 관계가 아닌 고용인과 피고용인의 수직적 관계구도이다.²⁰⁰⁾ 하지만 가족과도 같은 깊은 정서적 유대감으로 연결되어 있는 관

200) 1950년대의 치과의사들의 일반적인 인식도 그러했음은 간혹 신문에 기고하였던 치과의사들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 현재 일반독자와 의료인들이 그 누구나 통감하는 현상은 솔직히 말하여 각 병원의 대환자질서의 불확립이라는 문제이다. 한 사람의 환자를 중심으로 하여 의사, 간호원, 사무원, 각 조수들의 협력태세가 완전치 못한 것이다. 그러나 현재의 부질서는 그릇된 이해의 전후(戰後) 사조로서 조직으로서의 권한과 지휘명령감독의 계통이라는 것이 비민주적이라고 여기는 사람이 있는 까닭에 환자에게 필요 이상의 불편을 주는 것이다. 여기에 있어 직무상의 종속관계는 유기적 조직에 불가결 한 것이며 거기에는 예측의 주종의식을 깨끗이 떠난 조직운영에의 협력의식이 요구된다는 사실이 시급히 자각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근대적 사고태도란 새로운 의학을 민중에게 봉사하는 병원의 근본요건이라 하겠다."

이한수, “능동적인 민중의 봉사” 동아일보 1957년 2월 1일, 4.

반면 조병희는 이러한 의사, 간호사 관계를 사회적인 측면에서 전형적인 한국 의사들이 가지고 있는 개업 환경 안에서의 행동 전략으로 설명하였다. 즉 자신이 소유한 개인의원 안에서만 존재하는 의사의 권위는 상대적으로 진료실 내의 의사들로 하여금 “제왕과도 같은 권위”를 누리게 했고 이를 보조하는 간호사나 사무원들로 하여금 “의사들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하는 상황을 초래하게 만들었다고 주장한다.

계이기도 하다.

그러한 인숙에게 스스로 만족할 정도로 충분한 물질적 대우를 해주지 못하는 것이 만기에게는 늘 미안한 일이었다. 그러나 인숙은 삼년 이상이나 같이 있는 동안 단 한 번도 불만이나 불평을 말해 본 일이 없었다. 도리어 인숙은 자기 집의 생활이 자기의 수입을 필요로 할만큼 궁색한 형편이 아니라면서 미안해 하는 만기를 위로하듯 했다.

반면 치과의사 서만기의 전문직업성은 개인주의적 유형의 특성을 보여주는 측면을 가지기도 한다. 여기엔 1950년대 한국의 정치사회적인 배경도 서만기라는 인물 형성에 크게 영향을 미쳤다. 가령 일제시기부터 우리 사회에 유입되기 시작했던 자유주의는 그 대표적인 모습이다. 반대로 민족주의적이거나 사회주의적인 사상의 영향을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민족주의는 당시 국가 권력에 의해 사회통합을 위한 강력한 이데올로기였으나 동족상잔의 6.25 전쟁 후 급속히 식어 들었고 반일의식에서나 구체화된 형태로 표출될 뿐이었다. 사회주의 역시 1950년대는 반공사상이 단순한 정치 이데올로기로서가 아니라 중심적 사회적 정서였으므로²⁰¹⁾ 급진 세력이 아닌 이상 관심의 대상이 아니었고 일반대중은 맑시즘과 같은 사회주의 사상에 관심을 가질 여유도 없었다.

라스키(Herold J. Laski : 1893 - 1950)와 같이 자유주의를 역사적으로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자유주의는 근대 유럽의 시민 계층(bourgeois)의 정신이었다.²⁰²⁾ 따라서 생명과 재산에 대한 시민 개인의 권리 및 그에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 참조.

201) 이를 테면 소설 자유부인을 놓고 작가인 정비석과 신문지 상 논쟁을 벌였던 황상덕 교수는 자유부인을 가리켜 “중공군 50만명에 해당하는 적”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서울신문 1954년 3월 14일.

202) J. Herold Laski, *The Rise of European Liberalism with a new introduction of John L. Stanle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7), 258.

따르는 책임을 강조하는 개인주의를 필연적으로 중시하였다. 또한 귀족계층과 국가권력 또는 기타 폭력적 혼란으로부터 자신들의 그러한 법적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법치주의를 중시하였으며 그러한 권리를 기반으로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해나가기 위해 자유시장 경제(자본주의)를 추구하였다.²⁰³⁾ 이러한 자유주의는 영국에서 19세기에 전형적으로 드러났다. 자유주의적 개인의 권리는 책임을 동반하고, 선택은 늘 신중함이 요구된다. 어떤 행동을 선택하는 것은 다른 행동을 포기하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서만기는 언행에 있어서 "기사가 바둑돌을 적소에 골라 놓듯이" 신중하게 행동하고 언제나 "남에게 친절히 대할 것을" 잊지 않았다. 이를 유교적인 전통적 행동 관습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신분사회였던 조선시대 양반이 천민을 포함한 모든 타인에게 친절하게 대하지는 않았다. 실제로 작가는 그러한 서만기의 모습을 "좋은 의미에서 그는 영국풍의 신사였다"라고 묘사하고 있다. 물론 작가가 19세기 유럽의 자유주의 정치사상이나 존 스튜어트 밀(John Stuart Mill)의 『자유론』을 연상하여 서만기의 인간상을 형상화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작가가 살고 있던 1950년대 한국 사회에 미국의 원조와 함께 미국의 문화가 많은 부분 우리 사회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던 것을 고려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 즉 그 당시

203) 자유주의에 대한 정의는 학자마다 너무나 달랐기에, 오히려 역사적 배경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주의를 설명하는 라스키와 같은 방식이 설득력을 가진다. 유럽에서는 이러한 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개인에 대한 차별적인 규제들이 철폐됨과 동시에 입헌정치체제의 수립과 자유무역의 발달이 영국을 중심으로 확산되어 나갔다. 하지만 독일을 비롯한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그러한 정신에 동조하기 보다는 집단주의에 기반을 둔 강력한 nationalism 과 독재정치 그리고 중상주의 보호무역에 기울었다. 이러한 영국과 독일로 상징되는 상반된 철학적 이데올로기는 1, 2차 세계대전 발발의 가장 근저에 있는 갈등의 원인이기도 했다. 실제로 케인즈와 같은 경제학자는 1차 대전을 경험하고 고전적 자유주의에 관한 자신의 신념에 대해 진지하게 성찰하였다.

Donald Markwell, *John Maynard Keyn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Paths to War and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13.

영미권의 자유주의와 개인주의를 바탕으로 한 시나 소설, 영화 등 문화적 산물들이 국내에 많이 소개됨으로써 전후 한국 사회의 분위기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미국의 문화만이 아닌 일본을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수입되었던 역사적 측면도 가진다. 특히 1920년대 일본에서 일어난 자유주의 운동 (다이쇼 데모크라시)은 식민지 시기 한국 사회에도 영향을 미쳤는데 이는 1950년대 영미 자유주의 사조의 유입을 가속화하는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치과의사 서만기를 비롯하여 실제 현실의 의사 개인 혹은 집단에 있어서도 개인주의적 전문직업성 유형과 집단주의적 전문직업성 유형의 특징은 그 내면에 공존한다. 어떤 의미에선 의사 개인이나 집단은 개인주의와 집단주의의 양극단 사이의 어딘가에 자신들의 성향이 위치한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시간의 흐름에 따라 그러한 성향은 사회 전체적으로 혹은 개인 안에서 또 다른 특징적인 변화를 초래하기도 할 것이다. 가령 1950년대 의사들은 당시 한국사회가 그러했던 만큼 집단주의적 유형의 전문직업성을 가지는 경우가 많았을 것이며 지금에 와서는 개인주의적 전문직업성을 가진 의사들이 예전에 비하면 훨씬 많아졌을 것이다. 하지만 반대로 의료시장의 환경과 관련하여 의료보험 도입과 대형 병원 확대 이전인 1950년대와 60년대에는 개인의원의 자족성이 강하게 보장될 수 있었고 그만큼 개인의원 내부의 폐쇄성이 강했으며 따라서 개인주의적 전문직업성을 띠는 치과의사들이 많았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²⁰⁴⁾ 이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 일반적으로 의사를 포함하여 전문직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개인주의적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사회 일반의 평균과 비교하는 연구도 의미

204) 전반적으로는 중앙회 중심의 집단주의적 권위 확립과 전문직업성 구축보다는 개인 의원 경영을 주로 하는 한국 의사 특유의 개인주의적 전문직업성 문화가 발달하기 시작한 시기도 이 시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조병희, 국가의 의료통제. 참조.

가 있을 것이다.

제6장 결론

본 논문은 기본적으로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해온 한국의 치과 의사의 모습 그리고 치의학의 모습을 문학이라는 특정한 형식의 기억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성찰해보는 작업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개별 영역, 즉 문학과 의학, 역사, 사회학 등의 영역에 존재하는 개별화된 사실과 이론들을 특정 시대 특정 지역의 치과 의사 한 명의 삶을 통해 종합화하는 방식을 채택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1950년대 후반을 살았던 젊은 치과 의사로 묘사된 손창섭의 단편소설 「잉여인간」의 주인공 서만기를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먼저 소설 속 허구인물인 서만기의 개인의원을 배경으로 화자에 의해 묘사된 그의 모습, 특히 그가 무엇을 공부했고 무엇을 지켜나가고자 했는지를 통해 인문사회의학의 궁극적 주제인 시대를 관통하는 이상화된 의사상에 접근해보고자 하였다. 서만기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고도 변두리에 위치한 초라한 건물에서 영세한 치과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인내심 강하고 언제나 침착성을 잃지 않는 신중한 치과 의사로 나온다. 전공 학문지식이 전문직으로 살아가는 의사의 자아상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소설 속 그의 모습을 분석해 보았을 때 그는 서구 근대의학에 대한 성찰의 자세, 특히 20세기 이후 급격히 과학화 되어가던 현대의학에 대한 철학적 성찰을 내면화한 인물로서 형상화된 측면을 가진다.

또한 그는 사회사와 문학사적 관점에서 볼 때 급속히 자유주의와 물질주의 풍조가 확산되던 1950년대를 배경으로 물질적 곤란 속에서도 자신의 도덕적 신념을 포기하지 않고 성적 유혹에 대항해 가족적 가치를 고수해 나가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이는 당시 젊고 성숙한 치과 의사에 대한 일반 대중의 기대가 반영된 인물형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1950년대

우울 일변도의 단편소설 속 인물들 중에서 그 시대가 요구할 수 있는, 비현실적으로 완벽한 인격체를 표상하는 인물로 그려졌다. 이상적 인간성을 황량한 현실 세상 속에 창조해내려는 이러한 작가의 시도는 19세기 유럽의 사실주의 소설, 가령 러시아의 도스토예프스키 소설들 속의 주인공과도 비교될 수 있다. 하지만 서만기의 경우엔 대중과의 사회적 상호작용 속에서 자아실현을 해나가는 당시 치과의사들의 삶의 모습이 긍정적으로 투영된 모습이다.

동시에 그를 통해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구체화 작업을 시도해볼 수 있었다. 즉 실재하지는 않지만 인격성이 부여된 소설 속 치과의사 인물을 대상으로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각 개념 요소들을 그의 인격성과 결부시켜 살펴봄으로써 (추상적인 이론화와 달리) 전인격적인 접근 방식을 꾀하였다. 그 과정에서 전문직업성을 재고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1950년대 의사의 전문직업성은 유럽에선 고전적인 형태로 공공의료의 틀 속에서 확립되어 나갔고 미국에선 강력한 의사단체의 집단 전략으로 민간 의료시장 속에 확립되어나갔다. 일반대중의 지식과 교양 속에 치과의사의 전문직업성이 인식되어 나가기 시작하던 초기단계의 한국사회에서 간호사 1명과 함께 홀로 자신의 개인 치과의원을 운영해나갔던 서만기의 모습은 한국 치과의사의 전형적인 모습이기도 했다.

의사의 전문직업성에 내재한 역사성과 정치성을 바탕으로 바라 보았을 때 정부 통제가 실시되기 이전, 의료기관 개설 신고제 시대였던 50년대의 영성한 의료시장 속에 자연스럽게 개원하게 된 치과의사들은 장기적인 집단 전략이 부재했던 상황에서 단순히 보다 많은 수요자로부터 선택 받는 전략을 택하게 되었다. 이후 치과의사들은 자신의 지식과 기술에 대한 경쟁적인 투자에도 불구하고 자본의 투자가치를 따라잡지 못하는 힘든 상황을 초래하였다. 이미 1950년대 소설 속 서만기 역시 자신의 도덕적 소신

을 지키기 위해 치과의원을 문닫는 상황에 내몰리게 된다.

의사의 직업윤리성은 의료시장을 중심으로 한 사회경제적 조건 등 다각도에서 분석될 수 있는데, 의사 개인의 가치관과 신념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특히 서만기의 전문직업적 윤리성은 봉우처와의 관계에서도 드러난다. 환자와의 관계에서 치과의사는 전문직으로서의 높은 사회 경제적 지위 등 여러 특성을 바탕으로 환자에 대한 육체적, 정신적 매력의 영향력이 강하게 작용할 수 있는 측면을 가진다. 서만기는 타인의 행동에 대한 판단에는 신중하지만 자신에 대해서는 철저한 의무론적 윤리관에 입각하여 행동해나가는 모습이다.

치과의사 개인이 의료시장에서 취하는 전략적 태도, 가령 개업할 것인가 병원에 봉직할 것인가와 같은 경력과 관련된 선택은 집단적 전략과 달리 개인의 가치관과 성향에 근거한다. 그로 인해 형성되는 치과의사 개인의 삶의 양상은 사회적 측면에서 유형화해볼 수도 있다. 비유하자면 교사의 교직원을 성직관, 노동직관, 전문직관으로 유형화하는 것이 일반적이듯, 고전적인 전문직업성을 구현하려는 봉사자적 치과의사상과 기업가적 전문성을 구현하려는 사업가적 치과의사상으로 유형화해볼 수 있다. 서만기의 경우 그가 사업가적 의사상을 추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는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어렵듯하게나마 인식한 상태에서 봉사자적 의사상의 역할에 충실하고자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전문직업성의 핵심을 구성하는 의사의 자율성은 의사 자신의 학문적, 도덕적 소신에 입각하여 외부 압력에 대항하는 내적 통제를 기반으로 한다. 이 경우 사업가적 치과의사상은 전문직업적 자율성보다 자유주의적 원리, 즉 환자의 선호에 따른 의사 선택에 우선적인 가치를 부여함으로써 스스로 치과의사로서의 전문직업성을 내려놓는 결과를 초래한다. 비유하자면 학원강사관을 교직관의 유형으로 볼 수 없듯이 사업가적 의사상을 치과의사상의 유형으로 보긴 힘들 것이다. 치과의사에게 전문직업성을 좌절시키는 상황은 국가권력에 의해서도 일어날 수 있다.

치과의사 개인이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문화적 환경 요소에 영향 받음을 고려하여 개인의원을 운영하는 치과의사의 직업문화적 측면의 유형화를 시도해보았다. 승진을 통한 서열화를 조직적 특징으로 하는 일반 회사 속의 직장인이 집단주의적 뒷담화 문화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은데 반하여 치과의사는 개인주의적인 사회적 무관심에 빠져들 가능성이 높으리라는 가정 하에 치과의사 개인이 가지는 전문직업성의 특성을 개인주의와 집단주의로 유형화해보았다. 이는 절대적인 윤리원칙을 일상의 치료과정 속에서나 환자와의 관계에서나 늘 적용시킬 수 없음을 인정하고 치과의사 자신의 문화적 정체성을 인지하는 가운데 환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보다 효과적인 전문직업성을 구현해 나가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문화심리학적 구도로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유형의 특성에 따라 서만기를 전문직업성의 관점에서 분석해 볼 수 있었다. 그에게선 1950년대 한국 사회의 집단주의 정서를 내면화한 모습과 함께, 당시 치의학이라는 서구 현대학문을 통해서 그리고 전문직의 특성으로서 자연스럽게 습득되었을 자유주의적인 개인주의 성향이 엿보이는 모습을 살필 수 있었다. 이러한 전문직과 개인주의의 관계에 대해서는 보다 실증적인 연구의 여지가 남아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강신익. “치과전문직의 형성과 전망.” **동향과 전망** 23 (1989 겨울): 294-315.
- 강신익. “생명의료윤리의 역사와 철학: 치과의사의 윤리를 중심으로.” **대한의사학회지** 11, 2 (2002. 12.): 117-136.
- 강신익. “의학의 두 문화: 환원인가 구성인가?” **의사학** 11, 1 (2002): 1-19.
- 고효상. “담임교사의 교직원인 교사-학생간 관계에 미치는 영향.”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9.
- 교과서포럼, **한국근현대사**. 서울: 기파랑, 2008.
- 구인환. “전후 한국문학의 지형도: 소설의 서사문법을 중심으로.” **한국전후문학연구**. 서울: 삼지원, 1996.
- 구인환. **한국근대소설연구**. 서울: 삼영사, 1977.
- 권복규. “근대의학의 의학론.” **의사학** 13, 1 (2004. 6.): 146-154.
- 권상욱. “철학은 의학에 얼마나 필요한가.” **서강대학원신문**, 2013년 6월 12일.
- 권태환, 홍두승, 설동훈. **사회학의 이해**. 서울: 다산출판사, 2006.
- 권희완 외 13인. **현대사회학의 이해**.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 기창덕. **한국치과의학사**. 서울: 민족문화문고간행회, 1987.
- 김경미. “고소설 남성인물의 형상화: 변강쇠가를 중심으로.” **이화어문논집** 17 (1999): 75-91.
- 김동춘. “1950년대 한국 농촌에서의 가족과 국가.” **선택과 굴절**. 역사문제연구소 엮음. 서울: 역사비평사, 1998.
- 김명임. “손창섭 소설 연구: 인물구조와 그 관계 양상을 중심으로.” 인하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5.
- 김보미. “미군정기 여론조사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김상선. **신세대 작가론**. 서울: 일신사, 1964.
- 김옥주. “서양 근대 이후의 의사의 정체성.” **의사학** 14, 1 (2005. 6.): 55.

- 김옥동. **대화적 상상력: 바흐친의 문학 이론**.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1.
- 김옥동.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 서울: 현암사, 1993.
- 김원진. “개원의와 봉직의의 직무만족도 결정요인 비교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김윤식, 김현. **한국문학사**. 서울: 민음사, 1973.
- 김정곤. **의료인력 자격 상호인정을 위한 정책방향: 한미 면허 관리체계 비교를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6. 연구자료 06-01.
- 김주환. “한국의 치무행정: 5차 아태회의 보고서에서.” **치원** 2 (1968) 이주연 2006, 322에서 재인용.
- 김천혜. **소설 구조의 이해**.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0.
- 나카하라 쉐(中原 泉). “현대의치원론(1).” **대한치과의사학회지** 17, 1 (1998): 85-102.
- 노안영. **성격심리학**. 서울: 학지사, 2003.
- 동국대학교한국문화연구소. **한국문학과 여성**. 서울: 아세아문화사, 2002.
- 맹광호. “한국에서의 ‘의학전문직업성’ 교육: 과제와 전망.” **한국의학교육** 20, 1 (2008): 3-10.
- 박동규. **현대한국소설의 성격연구**. 서울: 문학세계사, 1981.
- 박복영 외 4인. **한국 경제발전경험의 대개도국 적용 가능성: 아프리카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서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07. 연구보고서 07-13.
- 박영숙. “초등교사의 교직원과 직무만족도에 관한 조사연구.”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윤재. “한국 근대 의학사 연구의 성과와 전망.” **의사학** 19, 1 (2010. 6.): 45-68.
- 박재석. “1950년대 손창섭 소설 연구: 한국전쟁 직후 경험의 서사적 구성 방식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박준상. “언어와 예술의 관계: 니체로부터.” **범한철학회** 44 (2007): 177-206.
- 박호진. “한국의사의 탈전문화에 관한 연구.” 청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8.
- 배민. **우리안의 개인주의와 집단주의** 서울: 책과나무, 2013.
- 서양근대철학회. **서양근대철학**.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1.
- 서준섭. **한국 모더니즘 문학 연구**. 서울: 일지사, 1988.
- 손호정. “한국 의사의 전문직 자율성의 특징과 결정요인에 대한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송재소 외 4인. **(선비정신에서 찾는) 교사의 길**. 서울: 문화체육관광부, 퇴계학연구원, 2011.
- 송하춘, 이남호. **1950년대의 소설가들**. 서울: 나남, 1994.
- 신경득. “반항과 좌절의 미학.” **월간문학** (1978. 12.)
- 신경득. **한국전후소설연구**. 서울: 일지사, 1983.
- 신동원. **한국근대보건의료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7.
- 신재의. **한국치의학사연구**. 서울: 참운, 2005.
- 심영덕. “손창섭 소설의 심리학적 연구.” **영남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7.
- 양은창. **한국 전후소설 구조론**. 서울: 응동, 1999.
- 엄정식. **지혜의 윤리학**. 서울: 벽호, 1994.
- 예병일. **내 몸을 찾아 떠나는 의학사 여행**. 파주: 효형출판, 2007.
- 우한용, 전용태, 한점돌. **현대소설의 이해**. 서울: 새문사, 1999.
- 유종호. “모멸과 연민.” **현대문학** (1959. 9.)
- 유홍준. **직업사회학**. 서울: 경문사, 2000.
- 이국환. “한국전후소설 인물연구.” **동아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이기효. “미국 시장지향 의료체계의 성과와 시사점.” **병원경영학회지** 9, 1 (2004): 1-21.
- 이대영. **한국전후실존주의소설연구**. 서울: 국학자료원, 2003.
- 이상섭. **문학 연구의 방법**. 서울: 탐구당, 1985.
- 이상우, 이기한. **문학비평의 이해**. 서울: 집문당, 1995.
- 이어령. “1958년의 소설 총평.” **사상계** (1958.12)
- 이영미, 이영희. “종설: 문학은 의학교육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가?” **한국의학교육** 15, (2003): 83-90.
- 이영아. **육체의 탄생: 몸, 그 안에 새겨진 근대의 자국**. 서울: 민음사, 2008.
- 이영현 외 3인. **한국인의 직업의식 및 직업윤리 실태(2008): 전문직의 전문직업성과 직업윤리**. 서울: 한국직업능력개발원, 2008. 연구보고서 2008-12-2.
- 이인호. “예브게니 오네긴과 그 선조들: 잉여인간에 대한 역사적 해명.” **세계의 문학** (1977. 겨울)
- 이재담. **서양의학의 역사**. 파주: 살림, 2012.
- 이재선. **현대한국소설사: 1945-1990**. 서울: 민음사, 1991.
- 이종찬 편저. **서양의학의 두 얼굴**. 서울: 한울, 1992.
- 이종찬. “근대 임상의학의 형성에 관한 두 가지 다른 역사적 해석.” **의사학** 3, 2 (1994): 202-217.

- 이종찬. “전통의학을 보는 오늘의 시각: 동아시아 의료를 중심으로.” **새로운 의학 새로운 삶**. 전세일, 전홍준, 오홍근 엮음. 서울: 창작과비평사, 2000.
- 이종찬. 근대 중국에서 의학의 문화적 헤게모니: 근대화론자와 신정통주의사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1900년대~1930년대.” **의사학** 12, 1 (2003. 6.): 13-33.
- 이종찬. **동아시아의학의 전통과 근대**. 서울: 문학과지성사 2004.
- 이주연. “의료법 개정을 통해서 본 국가의 의료 통제: 1950~60년대 무면허 의료업자와 의료업자의 실태를 중심으로.” **의사학** 19, 2 (2010): 385-432.
- 이주연. “치과대학 치과의학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연세의사학** 13, 2(2010. 12.): 33-49.
- 이주연. “한국 치과의사 사회의 전문직 위상확립 과정에 관한 근대사적 고찰.”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2.
- 이주연. **한국근현대 치과의료체계의 형성과 발전**. 서울: 혜안, 2006.
- 이진경. "관계를 떠난 주체는 없잖아!" **한겨레**21, 2000년 05월 04일.
- 이형식 외 3인. **현대문학비평의 방법론**. 서울: 서울대출판부, 1983.
- 임인숙. “몸-자아의 소비문화적 연결방식과 불안정성.” **한국사회** 8, 1(2007): 95-120.
- 임헌영. **한국현대문학사상사**. 서울: 한길사, 1988.
- 장휘숙. **청년심리학**. 서울: 박영사, 2009.
- 전상인. **고개 숙인 수정주의: 한국현대사의 역사사회학**. 서울: 전통과현대 2001.
- 전우택, 김상현, 오승민. **인문사회이학**. 서울: 청년의사 2010.
- 정규제. “마이클셴델과 구제역과...” **한국경제신문**, 2011월 2월 22일.
- 정기용, 이충열. “1951년 국민의료법 제정과정에서 한의사 제도를 둘러싼 논쟁: 국회 속기록을 중심으로.”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6, 5 (2012): 588-98.
- 정순웅. “강원도 의사회 보고.” **대한의학협회지** 3, 3 (1960): 46-48.
- 정영희. “1950년대 대중지와 근대 도시적 삶의 구성: 여성지 ‘여원’을 중심으로.” **언론과학연구** 9, 3 (2009): 468-509.
- 정준영. “식민지의학교육과 헤게모니 경쟁: 경성제대 의학부의 설립과정과 제도적 특징을 중심으로.” **사회와 역사** 85 (2010): 197-237.
- 정창범. “손창섭론: 자기모멸의 신화.” **문학춘추** (1965.2.): 41-48.
- 정호웅. **1950년대 문학연구**. 서울: 예하, 1991.

- 조남현. **소설원론**, 서울: 고려원, 1987.
- 조남현. **한국현대소설의 해부**. 서울: 문예출판사, 1994.
- 조남현. **한국현대작가의 시야**. 파주: 문학수첩, 2005.
- 조두영. “손창섭 초중기 세 단편소설에 대한 정신분석적 고찰: 유실몽, 설중행, 잉여인간을 대상으로.” **정신분석** 12, 2 (2001): 253-260.
- 조병희. “개업의사들의 전문직업성과 직업만족도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학** 28 (1994): 37-64.
- 조병희. “국가의 의료통제와 의료의 전문화: 한국의료체계의 갈등구조의 역사적 배경.” **한국사회학** 24 (1992): 131-152.
- 조병희. **질병과 의료의 사회학**. 파주: 집문당, 2006.
- 조병희. **한국 의사의 위기와 생존전략**. 서울: 명경, 1994.
- 조연현. “병자의 노래.” **현대문학** (1955. 4.)
- 조영수. “일제하 조선의 근대적 치과의업과 식민지배.” 인제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조정래. **나병철, 소설이란 무엇인가**. 서울: 평민사, 1991.
- 조현일. “허무주의 심연과 극복의 노력: 손창섭론,” **한국전후문학연구**. 서울: 삼지원, 1996.
- 조혜선. “유치원 교직원 문화 분석: 경력교사 10인의 인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08.
- 주창윤. “1950년대 중반 댄스 열풍: 젠더와 전통의 재구성.” **한국언론학보** 53, 2 (2009): 277-299.
- 최보문. “현대 의학전문직업성: 역사적 배경, 개념변화, 선언문 비판.” **대한의사협회지** 54, 11 (2011. 11.): 1124-36.
- 충북치과의사회. **충북치과의사 70년사**. 청주: 뒷목출판사, 2002.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예술과 사회**. 서울: 민음사, 1979.
- 한국치의학교육평가원. **제1주기 치과대학·치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교육 인증평가 기준, 2010년 2월**. (서울: 동연구소, 2010).
- 허경. “근대 임상의학 및 생명 담론의 변화: 미셸 푸코의 ‘임상의학의 탄생’을 중심으로.” **생명연구** 23 (2012): 25-68.
- 홍지수. “손창섭 소설의 인물 유형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1.
- 황기우. “교직의 전문직업성에 대한 사회학적 고찰.” **교육문제연구** 9 (1997. 2.): 79-100.
- 황상익. **근대 의료의 풍경**. 서울: 푸른역사, 2013.
- 황영미. “한국 TV 의학 드라마에 나타난 의사 캐릭터 유형 변화 양상 연구.” **세계한국어문학** 5 (2011): 247-80.

2. 국외문헌

- Abbott, A. *The System of Professions*.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Baker, R., A. Caplan, L. Emanuel, S. Latham. *The American medical ethics revolution: how the AMA's code of ethics has transformed physicians' relationships to patients, professionals, and society*. Baltimore and London: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99.
- Butler-Bowdon, Tom. **내 인생의 탐나는 심리학 50: 프로이트에서 하워드 가드너까지 인간 탐색의 흐름과 그 핵심**. 이정은 옮김. 서울: 흐름출판, 2008.
- Canguilhem, Georges. **생명과학의 역사에 나타난 이데올로기와 합리성**. 여인석 옮김. 서울: 아카넷, 2010.
- Dalby, Andrew. **언어의 종말**. 오영나 옮김. 서울: 작가정신, 2008.
- Dussault, G. and A. Sheiham. "Medical theories and professional development: The theory of focal sepsis and dentistry in early twentieth century Britain." *Social Science & Medicine* 16, no. 15 (1982): 1405-12.
- Fook, J. *Radical Casework: A Theory of Practice*. Sydney: Allen & Unwin, 1993.
- Freidson, Eliot. **프로페셔널리즘: 전문직에 대한 사회학적 분석과 전망**. 박호진 옮김. 서울: 아카넷, 2007.
- Freidson, Eliot. *Profession of Medicine: A Study of the Sociology of Applied Knowledge*.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8.
- Freud, Sigmund. **문명속의 불만**. 김석희 옮김. 서울: 열린책들, 2007.
- Gadamer, Hans-Georg. **(철학자 가다머) 현대의학을 말한다**. 이유선 옮김. 서울: 몸과마음, 2002.
- Giddens, Anthony. **자본주의와 현대사회이론**. 박노일, 임영일 옮김. 파주: 한길사, 2008.
- Heidegger, Martin. **숲길**. 신상희 옮김. 서울: 나남출판사, 2008.
- Herold, Laski, J. *The Rise of European Liberalism with a new*

- introduction of John L. Stanley.* New Brunswick: Transaction Publishers, 1997.
- Hofstede, G. **세계의 문화와 조직.** 서울: 학지사, 1995.
- Jaspers, Karl. **기술 시대의 의사: 야스퍼스의 의철학과 심리치료 비판.** 김정현 옮김. 서울: 책세상, 2010.
- Johnson, Paul. **지식인의 두 얼굴.** 윤철희 옮김. 서울: 을유문화사, 2004.
- Koelesijn, W. T. "Intra-organizational dynamics as drivers of entrepreneurship among physicians and managers in hospitals of western countries." *Social Science & Medicine* 75, no. 5 (2012): 795-800.
- LaHaye, Tim. **목회자가 타락하면.** 황승균 옮김. 서울: 생명의샘, 1992.
- Larson, Magali Sarfatti. *The Rise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al Analysi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77.
- Le Breton, David. **근대성과 육체의 정치학.** 홍성민 옮김. 서울: 동문선, 2003.
- Lloyd, G. E. R. *Hippocratic Writings.*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87.
- Markwell, Donald. *John Maynard Keynes and International Relations: Economic Paths to War and Peac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2006.
- Martin, Mike W. *meaningful work : rethinking professional ethic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 Mcdonald, K. M. **전문직의 사회학,** 권오훈 옮김. 서울: 일신사, 1999.
- McKinlay, J. B. "Corporatization and the Social Transformation of Doctoring."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s* 18. no. 2(1988): 191-205.
- Michaud, Yves 외 38인. **문화란 무엇인가1.** 강주현 옮김. 서울: 시공사, 2003.
- Mischel, Walter. **성격심리학.** 손정락 옮김. 서울: 시그마프레스, 2006.
- Navarro, Vicente. **현대 자본주의와 보건의료.** 보건과사회연구회 옮김. 서울: 한울, 1989.
- O'Connor, S. J. and J. A. Lanning. "The end of autonomy: Reflections on the postprofessional physician." *Health Care Management Review* 17, no. 1 (Winter 1992): 63-72.
- O'Connor, T. *Agents, Causes, and Events: Essays on Indeterminism and Free Will.*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5.

- O'Mahoney, S. "A.J. Cronin and The Citadel: did a work of fiction contribute to the foundation of the NHS?" *The journal of the Royal College of Physicians of Edinburgh* 42, No. 2 (2012): 172-78.
- Porter, Roy 책임 편집. **의학: 놀라운 치유의 역사**. 여인석 옮김. 서울: 네모북스, 2010.
- Rimmon-Kenan, Shlomith. **소설의 시학**. 최상규 옮김. 서울: 문학과지성사, 1996.
- Ring, Marvin E. *Dentistry: an illustrated history*. New York: Harry N Abrams, 1992.
- Rogers, Carl R. **사람 중심 상담(a way of being)**. 오제은 옮김. 서울: 학지사, 2007.
- Rowe, Alan and Mila García-Barbero. *Regulation and licensing of physicians in the WHO European Region*. Copenhagen: WHO Regional Office for Europe, 2005. EUR/05/5051794c.
- Schellenberg, James A. **사회심리학의 대가들**. 김동, 이동원 옮김. 서울: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1984.
- Schwanitz, Dietrich. **교양 (사람이 알아야 할 모든 것)**. 인성기 외 3인 옮김. 서울: 들녘, 2004.
- Singer, S. Jonathan. **자연과학자의 인문학적 이성 죽이기(The Splendid Feast of Reason)**. 임지원 옮김. 서울: 다른세상, 2004.
- Sox, Harold C. "The ethical foundations of professionalism: a sociologic history." *Chest* 131, no. 5 (2007): 1532-40.
- Starr, Paul. **미국의료의 사회사**. 이종찬 옮김. 서울: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2012.
- Stoddard, J. J., J. L. Hargraves, M. Reed, A. Vratil. "Managed care, professional autonomy, and income: effects on physician career satisfaction." *Journal of General Internal Medicine* 16, no. 10 (2001): 675-84.
- Triandis, H. C. and M. J. Gelfand. "Converging measurement of horizontal and vertical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74 (1998): 118-128.
- Triandis, Harry C.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Oxford: Westview Press, 1995.
- Turner, Jonathan. **현대사회학이론**. 한상근 등 옮김. 서울: 나남출판,

2002.

Wynia, Matthew K. "The Short History and Tenuous Future of Medical Professionalism : the erosion of medicine's social contract." *Perspectives in Biology and Medicine* 51, no. 4 (2008): 565-578.

3. 신문 및 잡지

동아일보

경향신문

치의신보

한국교육신문

4. 단행본

김동리 외 3인 엮음. 한국단편문학전집 10. 서울: 문성당, 1976.

Abstract

A Study on the Literary Figuration of Dentists in Postwar Novels and Its Implication for Professionalism - Focusing on Changseop Son's *Superfluous Men* -

Min Bae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intention of this study is to reflect upon the image of dentists and dentistry through a diachronic perspective with the help of specific forms of memory. In this study, the fields of literature, medicine, history, and sociology are brought together through the life of a dentist against a specific historical backdrop. This dissertation focuses on *Superfluous Men*, a novel by Changseop Son, published in *Sasang-ge*, Seoul, in 1958 and its dentist protagonist, Mangi Seo. The character of Mangi Seo as he goes about his work in his clinic is analysed in this study through multiple perspectives that include literature and medicine. Through this analysis an idealised image of the doctor could emerge that is timeless : the ultimate theme in the area of humanities and sociology of medicine. Various facets of his character embody an introspective aspect, internalising a philosophical meditation on modern Western medicine, especially its dramatic evolution as a science since the late 19th century. Mangi Seo's personality is depicted as too perfect to be realistic, yet expected at the time, in contrast to the perennially gloomy characters in Korean short novels of the 1950's. This depiction could imply that he represents the positive aspects of dentists' lives at that time in that he is striving to attain self-realisation through his social interactions with the public. By exploring the novel, this study also seeks to distil the essence of doctors' professionalism. In analysing the

character of a fictitious dentist, whose personality is brought to life in *Superfluous Men*, each element of professionalism is examined through the many elements of his personality, and in the process, the very concept of professionalism is reconceptualised. This holistic approach is far easier to understand than abstract descriptions and the formulation of theories. Just as the perception of teaching as an occupation is categorised into three main types – namely the clergy, labourer, and professional types of teacher, – this study attempts to classify the professionalism of dentists from a social perspective: the caring type of dentist who embraces a traditional professionalism, and dentists who act like businesspeople, pursuing entrepreneurial values. The view of the dentist as businessman draws upon the principle of liberalism (especially the free market) by placing a greater value on patients' preference of dentists than on professional autonomy, which ultimately leads to the surrender of professionalism itself. On the other hand, recognising the strong cultural influence on dentists in their day-to-day work, this study also attempts to categorise dentists from the perspective of occupational culture. The objective of this classification is to examine the nature of dentists' professionalism that acts to empower them in the interplay between their patients and themselves amidst an increasing need to discover their cultural identity and the ambiguities surrounding the ethical norms they apply in their work and in their relationship with their patients. The conceptual framework is based on notions of individualism and collectivism, an analytical methodology commonly used in the field of cultural psychology.

Keywords : postwar novel, literature, dentist, doctor, figuration,
professionalism,

Student Number : 2007-22012